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

권미경 외

연구보고 2018-02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인 화 (명지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2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 학급운영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58-9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2년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초·중·고교 ‘다문화 예비학교’가 운영 중이다.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아의 유치원 입학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아에 대한 한국어(KSL) 교육 지원에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유아의 발달과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과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기관에서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현재 외국인가정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현황과 지원요구를 수렴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 유치원 설립유형, 전담교사 유·무 등을 고려한 유치원 ‘예비학급’ 운영안과 더불어 한국어 진단 도구의 개발,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청별 교원 확보 및 운영, 지원 주체간의 연계, 순회형 지원을 포함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제언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모든 유아가 행복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그동안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학계 전문가, 정책 실무자, 유치원 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8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

목 차

요약	1
<hr/>	
I. 서론	15
<h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II.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21
<hr/>	
1.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23
2.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안	32
3. 유아용 한국어 진단도구	36
4. 선행연구	50
III. 국외 언어교육 지원 사례	59
<hr/>	
1. 일본	61
2. 캐나다	67
3. 독일	75
4. 호주	86
5. 소결	103

I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 요구 109

-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 증가 111
- 2.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 양상 116
- 3. 유아 한국어능력 진단 및 평가 120
- 4.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요구 123
- 5. 소결 131

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135

-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위한 학급 운영안 137
-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안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57

- 부록 1.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 척도 의사소통 영역 예시 159
- 부록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대한 의견 조사 160
- 부록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유치원 평가양식 164
- 부록 4. 독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부모용 안내책자 166
- 부록 5. 호주 유아기관에서 진학 기관(유치원)에 보내는 전환통지서 167
- 부록 6. 호주 유치원 등록 신청서 171
- 부록 7. 호주 유치원의 통역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 172
- 부록 8. 호주 유치원 언어평가 결과 통지서 173

표 목차

〈표 I-3-1〉 전문가 의견 조사 내용	20
〈표 I-3-2〉 자문 내용	20
〈표 II-1-1〉 한국어교육에 대한 법적 기초	24
〈표 II-1-2〉 지역별 외국인주민 자녀	25
〈표 II-1-3〉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2016년)	26
〈표 II-1-4〉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27
〈표 II-1-5〉 다문화학생 유형('17. 4. 1. 기준)	28
〈표 II-1-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한국어교육과정	29
〈표 II-1-7〉 2018 다문화 유치원 운영 현황	31
〈표 II-1-8〉 2018 다문화 유치원 유형별 비교	32
〈표 II-2-1〉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내용 및 문항구성	38
〈표 II-2-2〉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의사소통 영역 지표	39
〈표 II-2-3〉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수용언어 검사문항	41
〈표 II-2-4〉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표현언어 검사문항	42
〈표 II-2-5〉 K-CDI 척도별 문항 수 및 측정내용	45
〈표 II-2-6〉 내용범주별(듣기) 관찰 준거 예시(만 3세)	48
〈표 II-2-7〉 내용범주별(듣기) 평가 준거 예시(만 3세)	48
〈표 II-2-8〉 내용범주별(듣기) 관찰 준거 예시(만 3세)	48
〈표 II-2-9〉 언어진단평가 교사용(듣기) 예시(만 3세)	50
〈표 III-4-1〉 EAL/D 학습자의 학업적 진보	92
〈표 III-4-2〉 학습 진보 단계 소요 평균 시간	96
〈표 III-4-3〉 직접적 지도 방식	98
〈표 III-4-4〉 협력적 지도 방식	98
〈표 III-4-5〉 자원으로서의 EAL/D 교육방식	99
〈표 V-1-1〉 주요변인별 선택 가능한 학급 유형	143
〈표 V-2-1〉 교육부, 교육청, 개별 유치원 수준의 정책 방안	148

그림 목차

[그림 II-1-1] 전체학생 및 다문화학생 증감 추이	27
[그림 II-1-2]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안)	29
[그림 II-1-3] 한국어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30
[그림 III-1-1] JSL 대화형 평가도구: DLA	65
[그림 III-4-1] EAL/D 교육 관련 정책	8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면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유아교육 현장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취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아에 대한 한국어(KSL)¹⁾교육 지원에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교육 지원 국외 사례를 고찰하고, 현재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화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제도를 파악함.
- 외국인 관련 통계와 다문화 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수합 분석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의 환경 변화를 파악함.
- 언어교육 지원 관련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유아 대상 한국어능력 진단·성취평가에 활용 중인 도구를 파악함.
-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과 개선요구를 파악함.
- 유치원 내 한국어학급(예비학교)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방안들을 제의함.

1)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은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초·중·고 예비학교 및 한국어학급(특별학급) 설치 기준, 외국인가정, 다문화 유치원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 온라인 검색과 현지 거주 전문가를 통해 국외 언어지원 사례(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 유아교육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유치원 한국어교육 모형 제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총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유치원에서의 유아 한국어교육 필요 및 현황을 파악하고 유치원 내 한국어학급 설치 방안을 논의함.

2.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가.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1) 법적 기초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권’을 보장함.
 - 헌법은 ‘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이기에 ‘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은 제외될 수 있어 비준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도 포함함.
-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외국인주민 자녀 및 다문화 학생 현황

- 2009년과 2015년, 외국인주민의 자녀 추이를 살펴보면, 107,689명에서

207,69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함.

-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10만9천여 명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2,733명, 중학생 15,945명, 고등학생 10,334명으로, 연령이 낮은 학교급에 더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임.
-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며,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 등임.

3) 초·중·고 한국어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한국어교육과정’을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한국어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 9월 개정 고시하고 2019년부터 초·중·고에 적용 예정임.

4)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

- 교육부는 2012년에 다문화 예비학교를 도입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학생과의 통합 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있음.
- 다문화 예비학교는 일반학교 내에서 특별학급으로 운영하는 ‘직영형’과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학생을 위탁하는 ‘위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한국어강사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예비학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5) 다문화 유치원 운영 현황

- 교육부는 다문화유아의 발달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원을 2018년 기준 전국 131개원(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포함)을 운영 중임.
- 주로 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통합언어교육 및 개별언어교육 제공하며, 다문화 유치원 재원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의 다양성, 반편견·평등 등 다문화교육을 실시함.

나.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안

- 운영목표는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다문화 유아의 한국 문화 적응력의 향상임.
- 시도교육청이 예비학교 지원의 중심이 되며, 유치원 내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10명 내외의 학급규모, 6개월~1년의 교육기간, 전담교원의 배치, 입급 및 복급기준, 원적학급에서의 학적관리, 교육과정의 편성 및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함.
- 교원 배치는 예비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소속 교원을 예비학교 담임(전담)교사로 배치하거나, 증원(신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원 외에 필요 시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기 특성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책임자 선발함.
- 예비학교의 입급 기준은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유아의 이주 배경 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며, 예비학교 대상자의 학적관리는 기본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함.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며,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능력,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주당 150분 내외로 편성·운영함.

다. 유아용 한국어 진단도구

1)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의사소통 영역

-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3-5세 각 연령별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수행 및 활동 평가로 구성.
-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됨.
- 평가 시 교사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아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대답이나 반응 이끌어 내기, 부모면담 등의 종합적으로 평가함.

2)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간접검사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임.

-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는 3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3개월 단위로 세밀하게 측정하며,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는 수용언어검사와 표현언어검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영역당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됨.

3) K-CDI

- K-CDI는 부모가 진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도구로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표현 언어, 언어 이해, 글자, 숫자 등 10개 영역, 270개 문항으로 구성됨. 이중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영역이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음.
- K-CDI는 15개월에서 만 6세 사이의 아동 또는 이와 같은 범위의 발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 K-CDI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사가 가능하며,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발달 프로파일'을 그릴 수 있어서 다량의 집단적 검사 도구로 활용이 가능

4)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on Vocabulary Test: REVT)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만2세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포함하는 검사 도구로 수용어휘검사(REVT-R)와 표현어휘검사(REVT-E)으로 나누어서 구성됨.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그림 자료를 활용한 어휘력 검사도구로 REVT-R은 피검사자가 그림 자료 중에서 목표어휘를 나타내는 그림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REVT-E는 피검사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시함.

5) 언어 진단 평가(시화유치원)

- 시화유치원은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효과 증진을 위하여 연령별 언어 진단 평가를 개발함(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b). 만 3-5세 연령별 구분되어 있으며, 1) 내용범주별 활동 계획, 2) 내용범주별 평가 준거, 3) 내용별 관찰준거, 4) 언어 진단 평가 교사용, 5) 언어 진단 평가 유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사가 누리과정에 맞추어 이해하고 적용하기 용이함.

라. 선행연구

-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추진되어 온 선행연구들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유아 관련 연구, 다문화가정 유아 및 학생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지원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 관련 연구, 유아 한국어 성취진단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화함.
- 유아 대상 집중 한국어교육은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의 학습 지체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 자존감 형성 등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필요함.
-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진됨이 효과적이며, 유치원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요구됨.
- 유아용 한국어교육 능력 진단에 대한 도구가 체계화되어야 하며,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에는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은 유치원의 상황, 즉 외국인 유아의 비율, 유치원 설립유형(공립 단설, 공립병설, 사립)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3. 국외 언어교육 지원사례

-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교육 정책 중 언어 관련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의 사례를 고찰함.
- 그 나라의 공식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공식 언어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치원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외국인 아동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함.

가. 일본

- 일본에서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2 언어로서의 일본어교육 지원은 초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나 해외에서 귀국한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함.
- 1992년부터 외국인 학생이나 귀국 학생 등 일본어 학습을 위해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그 급여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일본어 지도 협력자'를 배치함(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호진·성수미, 2011).

- 1993년부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담당교원의 연수를 실시'함.
- 문부과학성은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위한 JSL 대화형 평가도구인 DLA를 개발함.
- 2014년 1월 4일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56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귀국·외국인 아동 학생의 일본어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포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특별 교육과정'은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재적 학급이나 다른 학급에서 학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 가지 형태로의 지원이 가능함.
 - 재적학급에서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일본어로 설명을 보충하는 등의 배려를 함.
 - 재적학급에서의 수업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이외의 지원교사가 들어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의 모국어로 설명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함.
 -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보충지도를 시행함.
-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조사를 1991년부터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의 시행으로 외국인 아동의 입학 및 취학안내 통지가 철저해졌으며, 일본학교의 입학 수속 절차를 안내하는 취학 안내서가 영어, 한국·조선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제공됨.

나. 캐나다

- 온타리오(Ontario)주는 29.1%에 달하는 인구가 캐나다 밖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어, 캐나다를 대표하는 다민족 다문화 지역임.
- 영어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는 온타리오주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에 속한 학생으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교수학습과정에 사용되는 표준영어와는 유의미하게 다른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대한 유창성을 획득하는데 집중적인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학생을 지칭함.

- 영어학습자가 포함된 교실운영방법: 일과 시간표와 규칙을 확립하기, 영어학습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발달적 고려, 유아의 모국어를 교실 안에 포함시키기, 대집단 활동,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실 운영, 영어학습자를 평가하기, 평가에 기반한 교수 방법의 변화, 평가법의 변화 등의 전략을 사용함.
- 평가의 기본 전제: 영어학습자를 평가할 때 교사는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영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유아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평가도구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영어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온타리오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원칙(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에 근거하여 다른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가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어느 정도 성장(진보)하였는지, 다음 발달 목표는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임.
- 부모와의 면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 상담 전에 부모가 준비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에 면담에서 사용된 자료를 가정으로 보내며, 면담 시에는 가능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가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배려함.

다. 독일

- 독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만 6세 이상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이들을 독일교육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언어지원책을 무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DaZ) 수업’임(성상환, 2009).
-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독일어 능력과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1 언어의 지속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에서 아동의 연령대(1~3세 영아, 4-6세 유아)별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함(김미숙 외, 2011).
- 연방 주에 따라 취학 전 약 18개월에서 10개월 전에 유아의 언어 수준을 사정하여 유아기관에서 독일어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

- 2000년 OECD 주최 국제학력평가에서 독일의 15세 학생들이 아주 낮은 성적을 거둔 원인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낮은 독일어 실력이 거론되었고, 2011년 이후 연방차원에서 언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 시작함.
- 언어통합 중점 유아기관(Schwerpunkt-Kitas Sprache & Integration)프로젝트 사례임.
 -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진행되었고, 대상은 교육에 차별받고 있는 가정이나 이주 가정의 유아 비율이 높은 만 3세 미만 유아 대상 교육 기관(Kitas) 4,000개소임. 통합적 일상 언어교육을 통한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며 언어전문가와 교사들 간의 전문적인 교류(의견 교환이나 상호 조언)를 통해 유아기관 내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수준을 향상함.
- “언어 유아기관(Sprache Kitas):언어가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사례임.
 -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 중임. “언어통합 중점 유아기관(2011-2015)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시작되어 이를 더욱 확장한 것임.
 - 2016년~2020년까지 특별한 언어적 요구를 가진 유아의 비율이 높은 곳을 “언어 유아기관(Sprache Kitas)”으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함. 최대 10억 유로의 기금을 제공하여 언어교육 전문가와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함. 프로그램의 강조점은 일상적으로 통합된 언어교육, 포괄적인 교육, 가족과의 협력임.
- 언어와 글쓰기를 통한 교육(Bildung durch Sprache und Schrift: BiSS) 사례임.
 - 거의 모든 연방의 주 및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600개 이상의 교육 기관이 BiSS에 참여하며, 교육기관들 네트워크는 3~10개의 유아기관 또는 학교는 물론 대학이나 도서관과 같은 다른 파트너로 구성함.
 -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능력 향상 및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 보급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발 프로젝트는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3단계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언어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됨.
 - 이 중 유치원 단계 프로젝트는 단일 언어 및 다언어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위한 일상 통합 언어 교육의 전문화로 느끼기, 생각하기, 말하기를 다루며 “예비 초등 교육에서 초등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유아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개선하는 모듈 6까지로 구성됨.
 - 다양한 언어 관련 진단도구를 개발, 현장적용, 검토, 보완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아기관 이주 아동의 언어행동 및 언어관심에 대한 평가(Sismik)”,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LiSe-DaZ)”, “유치원 - 초등학교 전환기의 언어 지원 평가 (SPRÜNGE)” 등의 진단도구가 포함됨.

라. 호주

- 호주는 2차 대전이후 인구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시행한 대표적 다문화국가임.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EAL/D(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교육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함.
- EAL/D 학생들의 영어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습 성취도를 증진시켜서 그들이 학교 교육에 온전히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추구하도록 함.
- 갓 이민오거나 난민배경을 가진 학생 등 EAL/D 학생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초기 적응 지원에서부터 새로운 교우관계와 교직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될 만한 과정들을 도입함.
- 입학 시 혹은 입학 직후 영어능력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생을 전형적인 영어 학습 진행 과정인 EAL/D 학습진보(Learning Progression)의 4단계(기초, 진전, 발달, 강화) 중 하나로 분류하고 학생의 언어적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함.
- EAL/D 학생에 대한 연간 조사를 바탕으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형평성 기금이 학교에 제공되며, 학교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언어 지원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함.
- EAL/D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EAL/D 학생들의 수, 그들의 현재 영어 수준, 학생들의 학급 배치 그리고 EAL/D 전문 교사 및 EAL/D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유무에 따라 학교마다 다양하며 다음의 세 가지 EAL/D 지도 방식을 조합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
 - 직접적인 EAL/D 지도 방식은 EAL/D 학생들을 속해 있는 학급이나 학년의 또래들로부터 분리하여 영어를 따로 지도하는 것으로 개별지도나 분리 수업, 선택 수업, 병행 수업 등이 포함됨.
 - 협력적인 지도방식은 EAL/D 전문 교사들과 담임교사 혹은 과목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실시, 지도, 사정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임.

- 자원으로서의 EAL/D 지도 방식에는 EAL/D 전문 교사의 전문성을 개별 교사나 학교 전체 교직원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
- EAL/D 학생에 대한 지원은 EAL/D 학생과 그들의 요구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관련 교직원들과 함께 가장 적합한 지원 모델에 대해 논의하고, EAL/D 학생의 요구수준에 따라 EAL/D 시간을 배정해서, 필요시 수정한 뒤 직원들과 공유하고 일정표를 재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됨.
- EAL/D 학생 지원 전략의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책무는 교장에게 있으며, 학교는 교육청에서 개발한 “EAL/D 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점검표 (EAL/D School Evaluation Framework)”를 통해 이를 자체 평가해야 함.
- EAL/D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교장, EAL/D 감독자, 학급 교사, EAL/D 전문교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매뉴얼이 제공됨.
- EAL/D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EAL/D 전문가 인증 과정, EAL/D 교육과 학습의 주요 원칙, 부모/양육자 그리고 공동체와의 소통(다국어로 된 학교 관련 서류 홈페이지에 탑재, 통역과 번역 서비스 제공),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매뉴얼과 지원이 이루어짐.

4.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 요구

가.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 증가

- 유치원의 한국어 지원 필요성은 유치원 내 외국인 유아 비율의 증가, 유아와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및 교육활동 추진 어려움, 유치원 학급 내 유아 역동의 변화,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요구 증가 등으로 요약됨.

나.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 양상

-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중도입국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적 집중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유치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교육지원의 양상을 학급 운영 형태, 한국어 강사, 교육청 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봄.

다. 유아 한국어 능력 진단 및 평가

-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진단척도, 교육용 교재, 교육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 필요에 의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누리과정 의사소통영역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진단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능력을 진단하는 곳도 있음.
-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함.
- 현재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은 누리과정과 연계한 점과 통합교육으로 시행하는 점, 연령별 접근, 한국어 전문교사 참여, 가정과의 연계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라.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요구

- 한국어교육지원 개선 의견으로 현장 적용에 앞서 유치원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함.
- 유아의 한국어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고려하여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대부분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아용 별도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 연령, 언어적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중심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므로 언어지원능력뿐 아니라 유아의 특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임용고시에서 외국어 우대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과 유치원교사가 한국어 교수방법을 익혀 지원하자는 의견도 개진됨.
- 각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에의 요구가 다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은 표준 운영 안을 마련하고, 선택 가능한 몇 가지 운영 모형을 보완하여 각 유치원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유치원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유치원 수준이 아닌

교육청 중심 계획과 지원이 필요함.

5.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가. 유치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급 운영안

- 현실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특별학급인 예비학교를 배치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학급이 없는 유치원에서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대상유아의 비율, 유치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고려함.
- 학급의 운영 방법은 1) 통합학급(submersion), 2) 부분통합학급(pulling out system), 3) 분리학급(sheltered system), 4) 순회학급 등으로 대표되며, 학급운영 주 고려 변인은 전담교사 유무, 외국인 유아 수, 유치원 설립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려되는 주요변인별로 적절하게 고려되는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급 운영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통합학급	부분통합학급	분리학급	순회학급
전담교사	유		✓	✓	
	무	✓			✓
대상유아수	10명 이상		✓	✓	
	4~9명		✓	✓	
	3명 이하	✓			✓
설립유형	단설유치원		✓	✓	
	초등병설유치원	✓	✓	✓	✓
	사립유치원	✓	✓		✓

나.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안

-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육을 지원한 교사의 판단이 가장 적절한 것도 사실이지만 객관적 기준이 될 만한 교사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평가 기준이나 도구의 마련 필요
- 한국어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지원: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일상생활 중심 기초 문장 등을 중심으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적절한 교재 필요
-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외국인가정 유아를 위해 언어만이 아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배려하는 교사와 또래의 태도와 모국어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 학부모 참여 가능한 유치원 환경 등을 조성하여 자긍심 갖도록 지원이 필요

- 학급 당 유아 수 조정: 예비학교가 아닌 경우, 일반학급 통합교육 상황에서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 증가는 담임교사에게 부담이 크므로 외국인 유아를 배정되는 경우 학급당 유아 수를 현재보다 줄여서 배치할 것을 제안함.
- 순회형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순회형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관내 개별유치원으로 파견하는 형태임.
- 교육청별 지원 인력풀 구성: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중언어 강사풀(pool)을 구성하고, 개별유치원으로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임. 외국인가정의 사용언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공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교사대상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교원직무 구체화: 유치원에 한국어 예비학급 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의 직무 간에 명료화와 함께 예비학급이 설치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중언어 강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업무 매뉴얼 등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와의 연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예비학급을 운영 중이므로 유치원 예비학급이 착수 시 학교 급간 연계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한 언어지원: 교사나 외국인 부모가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사용언어를 제시하면 다문화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에서는 언어별 전담자를 두어 연결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것임.
- 가정과의 연계 지원: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치원에서의 상담 시 현장통역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지원하거나 전화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의 전화 통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오성배, 박희훈, 2018: 72). 2012년 한국어(KSL) 교육과정 고시와 더불어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초·중등학교에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도입되었다. 2018년 현재 197개교(223학급,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포함)에서 운영 중인 예비학교에서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8a: 1).

유아교육 현장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취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아에 대한 한국어(KSL)2교육 지원에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 안성시, 시흥시, 동두천시 등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 유치원의 경우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는 등 별도의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기는 급속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향후 초등학교에서의 언어학습과 다른 교과목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차숙, 2005; 정남미, 2013).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초기 학습 지체가 추후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의 함양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17년 말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중 하나로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제시하였고, 다문화유아 언어발달

2)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는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함.

지원, 일반유아의 통합·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 유아와의 유대 형성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교육부, 2017). 또한 다문화유아 대상 통합(개별)언어 교육 제공 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다문화 유치원은 국내 출생 다문화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유아 집중지원은 한계를 보인다. 이에 실제적인 유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아 대상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유치원 특성에 적합한 한국어학급 도입에 대한 검토와 그를 토대로 한 한국어교육 지원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의 언어 발달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아들의 언어발달 수준을 파악하여야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므로(윤진주, 2007; 김순환·전우용, 2016) 유아의 한국어 성취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 척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이주 가정의 유입이 많은 국가들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언어교육(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JSL: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등)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아와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한 검토와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교육 지원 국외 사례를 고찰하고, 현재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유치원에서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제도를 파악한다. 현재 초·중·고에서 운영 중인 예비학교 및 특별학급 제도를 살펴보고, 다문화유치원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외국인 관련 통계와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수합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게 된 유치원의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8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계획을 확인한다.

셋째, 언어교육 지원 관련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무엇보다 이주 가정의 유입이 많고 학교에서의 언어교육 지원의 역사가 깊은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국외 사례를 발굴 검토하여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 및 한국어능력 평가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사례 국가에서 외국인 또는 이민자 등의 언어교육 지원에 대한 운영 배경 및 목적, 관련 법령, 지원유형, 운영방법, 성취평정방법 및 도구, 특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넷째, 유아 대상 한국어능력 진단·성취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및 현재 활용 중인 도구를 파악한다. 3-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평가척도, 영유아 언어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등 관련 척도를 비교한다.

다섯째,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과 개선요구를 파악한다. 유치원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과 전문가를 통해 외국인 가정 유아 대상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예비학교 및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내 한국어학급(예비학교)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8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내 한국어학급의 운영에 대해 한 가지의 운영 모형이 아닌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 분리학급에서의 집중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고려될 수 있는 다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다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다문화 가정(이주가정, 외국인가정)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초·중·고에서 운영 중인 예비학교, 한국어학급(특별학급)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다.

셋째, 외국인가정, 다문화 유치원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민자의 유입이 많은 국가들(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을 선정하여 온라인 검색과 현지 거주 전문가를 통해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나.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조사를 하였다. 의견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단설유치원 원감 1인, 단설유치원 교사 1인, 병설유치원 교사 3인, 교육 전문직 2인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의견 조사 내용은 <표 I-3-1>과 같다.

■ 표 I-3-1 ■ 전문가 의견 조사 내용

구분	세부내용
I.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현재 운영 중인 내용)	1. 지원 필요성 체감, 2. 한국어교육 지원현황(학급유형, 교사 배치, 교재, 진단 도구 및 방법), 3. 효과적인 현행 지원 부분, 4. 문제점 및 개선 요구
II.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1.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의 적절성, 2. 학급 유형 및 운영, 3. 교원 자격 및 배치, 4. 교육과정 운영 시간, 5. 유아 한국어 능력 진단
III. 유치원 한국어교육 모형 제안	1. 초등병설 유치원 모형, 2. 단설유치원 모형(한국어교육 지원대상이 많은 경우), 3. 사립유치원 모형(한국어교육 지원대상이 소수인 경우), 4. 정규 통합교육, 5. 교재 또는 자료 개발 지원하는 방법

유치원에서 유아 한국어교육 필요 및 현황 파악,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층면담을 추진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가정 유아 담당하는 교원, 장학사 등 교육현장 전문가, 다문화 교육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I-3-2>와 같다.

■ 표 I-3-2 ■ 자문 내용

일시	전문가	자문 내용
2018. 6	단설유치원 원감 3인, 단설유치원 교사 2인, 병설유치원 교사 1인, 교육 전문직 3인, 다문화 교육 실무자 1인	유치원에서의 유아 한국어교육 필요 및 현황 파악
2017. 7.	병설유치원 교사 2인	유치원 내 한국어학급 실태 및 설치 방안

II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1.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2.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안
3. 유아용 한국어 진단도구
4. 선행연구



II.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본 장에서는 유치원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연구의 배경으로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어교육의 지원 현황에 대해 법적 기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예비학교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8년 9월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예비학급의 운용 계획안을 연구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가. 법적 기초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 국민이 아닌 경우라도,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을 비롯한 현행법에서는 교육권의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이 다문화 아동·청소년

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또한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표 II-1-1 ▣ 한국어교육에 대한 법적 기초

<p>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p>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명시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조정

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15년 30개의 다문화시범유치원을 도입하고, 2016년 확대하였다. 다문화유치원의 목적은 다문화 유아에게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 학습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이다(교육부, 2018b). 2018년 현재 다문화 유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31개원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8b).

나. 외국인주민 자녀 및 다문화 학생 현황

1) 외국인주민 자녀 추이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2009년과 2015년, 외국인주민의 자녀 추이를 살펴보면, 107,689명에서 207,69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2 지역별 외국인주민 자녀

분류	2009				2015			
	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계	107,689	4,205	88,485	14,999	207,693	14,184	183,732	9,777
서울	16,772	1,875	12,664	2,233	29,790	4,818	23,957	1,015
부산	5,091	38	4,253	800	9,142	202	8,537	403
대구	3,656	79	3,083	494	6,369	241	5,825	303
인천	6,662	435	4,946	1,281	12,334	1,105	10,639	590
광주	2,420	27	2,070	323	5,067	107	4,815	145
대전	2,441	21	2,001	419	4,734	113	4,404	217
울산	2,489	26	1,901	562	4,559	228	4,025	306
세종	-	-	-	-	726	26	671	29
경기	25,648	1,348	19,891	4,409	52,815	5,466	44,983	2,366
강원	4,017	49	3,604	364	7,015	91	6,571	353
충북	3,748	33	3,253	462	7,868	197	7,340	331
충남	6,399	131	5,658	610	12,341	420	11,183	738
전북	5,474	31	4,831	612	10,820	214	10,166	440
전남	7,279	15	6,675	589	13,086	140	12,007	939
경북	6,353	35	5,668	650	12,712	253	11,820	639
경남	8,060	57	7,007	996	15,498	485	14,214	799
제주	1,180	5	980	195	2,817	78	2,575	164

자료: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conn_path=I3 (2018. 08. 09 인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3.4배, 외국인-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2배 증가하였고,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감소하였다.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경기 52,815명, 서울 29,790명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약 40%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세가 18,08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0세 17,006명, 1세 16,864명, 2세 16,454명 순으로 나타난다. 6세는 16,288명이다. 이에 따르면 48.3%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5세 이하로 나타나, 유치원 취원 연령이거나 잠정적으로 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는 연령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교육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표 II-1-3 |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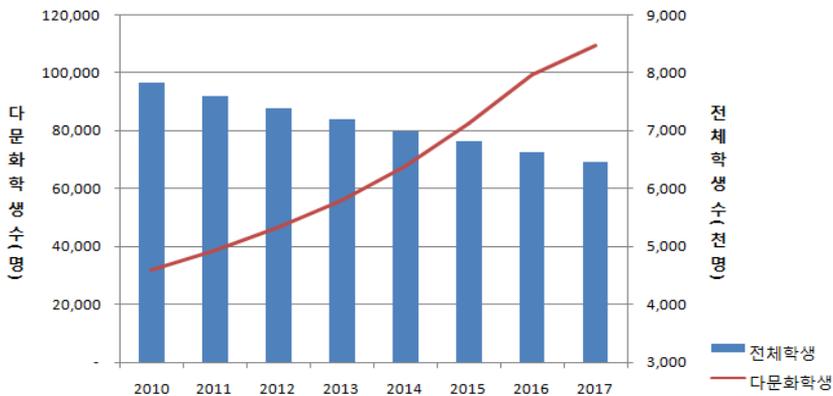
분류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201,333	9,874	191,459
0세	17,006	37	16,969
1세	16,864	144	16,720
2세	16,454	295	16,159
3세	14,104	400	13,704
4세	14,705	458	14,247
5세	18,085	532	17,553
6세	16,288	568	15,720
7세	10,210	710	9,500
8세	10,765	762	10,003
9세	11,570	744	10,826
10세	9,243	625	8,618
11세	7,890	570	7,320
12세	7,090	582	6,508
13세	5,994	509	5,485
14세	5,799	515	5,284
15세	5,660	522	5,138
16세	5,015	619	4,396
17세	4,391	594	3,797
18세	4,200	688	3,512

자료: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conn_path=I3 (2018. 08. 09 인출)

2) 다문화 학생 현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인구(6~21세)가 감소하고 있는 중에, 다문화 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그림 II-1-1 참조). 2017년에는 10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학생 대비 1.9%의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의 3.1%가 다문화학생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1-1, 표 II-1-5 참조).

■ 그림 II-1-1 ■ 전체학생 및 다문화학생 증감 추이



자료: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학생 109,387명으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2,733명, 중학생 15,945명, 고등학생 10,334명으로 나타났다(표 II-1-4 참조).

■ 표 II-1-4 ■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합계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합계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합계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합계
초등	44,808	3,417	48,225	54,156	6,006	60,162	64,547	9,425	73,972	73,453	9,280	82,733
중등	11,702	804	12,506	12,443	1,384	13,827	13,099	1,981	15,080	13,987	1,958	15,945
고등	6,312	422	6,734	7,411	735	8,146	8,664	1,152	9,816	9,398	936	10,334
각종	278	63	341	350	51	401	242	76	318	268	107	375
합계	63,100	4,706	67,806	74,360	8,176	82,536	86,552	12,634	99,186	97,106	12,281	109,387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이하 동일)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이하 동일)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이하 동일)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이하 동일)
 자료: 교육통계 DB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2017) 유초중등통계 >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 통계편 >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 학생 (2018. 07. 30 인출)

이는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년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도, 연령이 낮은 학교급에서 더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은 1.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2.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로 나눌 수 있다(교육부, 2018b: 20).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하여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교육부, 2018b: 20).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로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교육부, 2018b: 20).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의 경우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로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교육부, 2018b: 20).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자녀 다문화 학생은 2012년 6,914명에서 2017년 20,073명으로 늘어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였으며(교육부, 2018b: 2),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며,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도 확인할 수 있다(표 II-1-5 참조).

▣ 표 II-1-5 ▣ 다문화학생 유형(17. 4. 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초	68,624	4,865	9,317	82,806 (3.1)
	중	12,273	1,740	1,970	15,983 (1.2)
	고	8,417	1,187	994	10,598 (0.6)
부모 출신국	중국*	25,604	3,651	7,450	36,705
	베트남	27,841	942	236	29,019
	필리핀	12,306	601	216	13,123
	일본	10,282	1,001	219	11,502
	기타**	13,281	1,597	4,160	19,038
합계	89,314	7,792	12,281	109,387 (1.9)	

주: 1) 괄호 안은 전체 학생 대비 비율
 2) * 한국계 중국 포함 / **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 그밖에 국가
 자료: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0.

다. 초·중·고 한국어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한국어교육과정’을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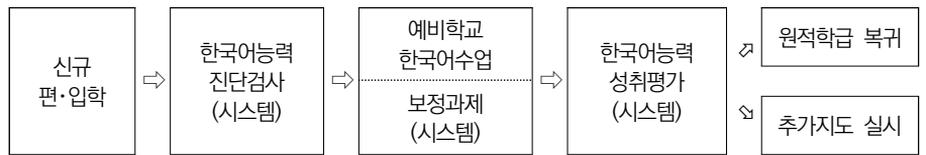
표 II-1-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한국어교육과정

<p>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p> <p>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p> <p>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p>

이에 따라 2012년 7월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KSL)교육과정’을 고시하여, 다문화 예비학교에 한국어(KSL)교육과정 연구학교를 도입하였다(고순희, 2015).

이후 2017년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9년 3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교육부, 2018b).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도에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표준 한국어’ 교재를 새롭게 개발 할 예정이며(교육부, 2018b),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단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안)은 그림과 같다.

그림 II-1-2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안)



※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조)

자료: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18.

2017년 개정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교육대상을 기존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학습 한국어 수업(학문적)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학습도구 한국어와 교과목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과별 어휘인 교과 적응 한국어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18b: 21). 또한,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언어 재료 등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도 문화로 구체화하고 세부 교육내용을 추가하였다(교육부, 2018b: 21).

■ 그림 II-1-3 ■ 한국어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기존		개정
생활 한국어	→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도구 한국어
		교과적응 한국어
문화 의식과 태도		문화

자료: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1.

라.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

1)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가 대두되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5). 이에 따라 다문화 예비학교를 도입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일반 학생과의 통합 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5). ‘다문화 예비학교’를 18년부터 ‘예비학교’로 명명하고 있다.

2) 운영

다문화 예비학교는 일반학교 내에서 특별학급으로 운영하는 ‘직영형’과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학생을 위탁하는 ‘위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한국어강사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예비학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예비학교 대상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18b). ‘한국어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그 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교육부, 2018b: 21), 예비학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국적, 인종, 이주배경과 무관하게 한국어 능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때 예비학교에서는 예비학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한국어 능력 진단에 ‘한국어(KSL)교육과정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한국어(KSL)교육과정 진단도구’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마. 다문화 유치원 운영 현황

교육부는 다문화 유아의 발달을 위해 2017년 116개원이었던 다문화유치원을 운영을 확대하여, 2018년 131개원(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포함)의 다문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17개소, 전남 16개소, 대구 13개소, 경기 11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8b, 9; 교육부 2018c).

▣ 표 II-1-7 ▣ 2018 다문화 유치원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8	7	13	4	7	8	4	2	11	4	6	17	6	16	7	9	2	131

자료: 교육부(2018c). 2018년 다문화 유치원 세부 현황. 내부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단설이 68개소, 51.9%로 가장 많으며, 공립 병설이 35개소, 26.7%, 사립은 28개소, 21.4%로, 과반수의 다문화 유치원이 공립 단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80% 가까이 공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유아가 원비 부담, 다문화 밀집 거주 지역 특성 등으로 인해서 사립보다는 공립에 더 많이 재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언어교육 및 개별언어교육 제공이 가능하며, 다문화 유치원에 재원하는 모든 유아가 다양성, 반편견·평등 등 다문화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교육부, 2018b: 9).

표 II-1-8 2018 다문화 유치원 유형별 비교

구분	공립(병설)	공립(단설)	사립	계
수(%)	35(26.7)	68(51.9)	28(21.4)	131(100.0)

자료: 교육부(2018c). 2018년 다문화 유치원 세부 현황. 내부자료

2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안³⁾

가. 예비학교(유치원) 운영개요

1) 도입배경

우리 사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한 한국어(KSL)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은 모국어가 아닌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한다. 2012년부터 한국어교육과정과 ‘예비학교’를 도입하여 초·중·고등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한국어교육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 주민 다수 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중도입국·외국인 유아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유치원 내 한국어교육 수요가 발생하였다. 기존 ‘예비학교’ 사업을 유치원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유아기 한국어교육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운영목표

첫째,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한다. 다문화유아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발달단계에 맞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다문화유아의 한국문화 적응력을 향상한다. 한국 생활 및 유치원 생활에 조기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교육을 포함한 한국문화교육을 지원한다.

3) ‘2018 예비학교(유치원) 확대 지정 계획(안)(교육부 교육기획 보장과, 2018.5.1.)’과 ‘2018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유치원)’(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8.7)을 토대로 정리함. 이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수립되었으므로 연구진도 계획 수립과정 회의에 참석하였음.

나. 예비학교(유치원) 운영 방침

1) 예비학교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유아 재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한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비학교 선정(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 시 변경 지정(재지정 및 취소)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유아가 다수 재원하는 유치원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예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비학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학교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교사 등 최소 3인~최대 5인으로 구성하며,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장의 결정으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내 위원회'로 대체 운영 가능하다.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 배치, 원적학급 복귀,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예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예비학교 운영

학급 규모는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가 입급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한다.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교육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하여 유치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 3세~만 5세 중도입국·외국인 유아이다.

4) 교원 운용

교원의 배치는 예비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소속 교원을 예비학교 담임(전담)교사로 배치하거나, 증원(신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적 특성, 시·도교육청 교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적절한 교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다수의 교원이 업무를 분할 담당하기보다 소수

교원이 집중 전담한다. 담임(교사)은 교육경력이 충분하며, 다문화유아 또는 한국어교육 이해도가 높은 자로 지정·선발한다.

교원 외에 필요 시 강사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발한다.

다. 예비학교(유치원) 학생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

1) 입급 기준 및 원적학급 복귀 결정

예비학교의 입급 기준은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유아의 이주 배경 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의 수학 희망 여부, 유치원 내 부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한다. 예비학급 입급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 출생한 후 영아기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귀환한 경우
⇒ 해당
-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로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 한국어 구사가 익숙하지 않은 유아
⇒ 해당
-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 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유아
⇒ 해당
- 정서불안 또는 학습능력 저하로 인한 부적응이 나타나는 국내출생 다문화유아
⇒ 비해당

유아의 예비학교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 시기는 상시로 하되, 학기 중에 입급한 경우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다음 학기부터 수학 기간으로 산정한다. 상시 입급으로 기존 유아와 신규 입급 유아의 수준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아의 예비학교 입급 여부는 유치원장이 결정하며, 원적학급 복귀는 예비학교 담임(전담)교사의 의견과 유치원장 또는 예비학교 운영위원회결정을 종합적

4) * 한국어강사(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다문화언어 강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등 ※ 우선순위 : ① 관련 자격 소지자 ② 유아교육 전공자 ③ 업무분야 경력자

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유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도구를 예비학교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아 관찰척도 등의 도구 외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학적관리

예비학교 대상자의 학적관리는 기본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한다. 예비학교 대상자의 출석과 생활기록부 관리는 예비학교 담임(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문화유아는 가정환경 특성상 출결 상황이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철저히 출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달상황 및 성취 정도를 생활기록부에 면밀히 기록하고, 일화 기록자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공유해야 하며, 학부모 통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예비학교(유치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 원칙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유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적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유아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되, 원적학급에서 비다문화 유아와의 통합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언어 기능 위주의 수업을 지양한다.

2) 운영방법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능력,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개별화 교육과정⁵⁾’을 주당 150분 내외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방식은 유치원 일과 운영에 따라 원적학급에서의 통합교육과 예비학교에서의 개별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5) 개별화 교육과정은 1:1 수업 또는 소그룹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에서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비율을 정해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다문화유아가 원적학급과 예비학교를 이동하며 수학해야 하므로 각 학급의 교육계획안(주간·일간)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운영되어야 한다.⁶⁾

3)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

유치원장은 한국어학급 수학 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다문화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원적학급으로 복귀한 다문화유아의 유치원 적응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방과 후 학교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유아용 한국어 진단도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개별 유아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한국어교육 진행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 원적학급 복귀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유아용 한국어 진단 도구를 살펴보았다.

가.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의사소통 영역

1) 개발 배경 및 목적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보다 효과적인 시행과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가 가능한 평가척도로(이미화 외, 2012; 이미화 외, 2013),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내실화와 유아의 발달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이미화 외, 2013).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배우는 유아를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아의 다양한 발달수준과 누리과정 목표의 성취수준을

6)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는 예비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은 유치원장 또는 예비학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파악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이미화 외, 2012: 10). 따라서 유아평가척도는 3-5세 각 연령별로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수행 및 활동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a; 2014b; 2014c).

2) 적용 대상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그 개발 배경 및 목적에 따라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는 3-5세 유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이미화 외, 2012).

3) 평가 도구의 내용

가) 3-5세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유아평가의 근거⁷⁾

-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함
-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함
-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함
-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
-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개선 및 부모면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유아관찰척도 실시방법⁸⁾

평가의 기준은 유아가 가장 잘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연 2회 실시하여 유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
- 문항에서 1~3점 중 해당하는 점수를 선택함
 - 3점 : 유아의 수행정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유아에 해당함
 - 2점 : 수행정도가 부분으로 우수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교사 도움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에 해당함

7) 육아정책연구소(2014a).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p.1

8) 육아정책연구소(2014b).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p. 2~3.

- 1점 : 수행정도가 미흡한 수준의 유아에 해당함
- 교사는 평가문항과 관찰 및 활동의 예시를 참조해야 함
- 누리과정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유아기록지(체크리스트)에 유아의 개별적 발달특성을 서술형 단락으로 기술함
- 유아 관찰 시 학급 내 유아의 상대 평가가 아닌 개별 유아의 절대 평가임
- 근거자료는 실제행동이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며, 관찰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교사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찰뿐 아니라, 활동 결과물 분석, 대답이나 반응을 이끌어 내기,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한 가지 활동이 여러 영역에 관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찰을 수행함

다) 유아관찰척도 구성 내용 및 문항구성⁹⁾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각 연령별,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 및 문항구성은 <표 II-2-1>과 같다.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경우, 「3세 누리과정」의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에 걸쳐 20개 내용범주와 56개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누리과정 5개 영역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문항, 평가요소, 평가준거가 제시되어 있고, 평가준거는 3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교사는 3점 척도 중에서 관찰 대상 유아에 해당하는 점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 표 II-2-1 ▮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내용 및 문항구성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합계
3세	15	10	12	12	13	63
4세	15	12	14	12	14	67
5세	15	12	14	12	15	68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14a).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2) 육아정책연구소(2014b).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3) 육아정책연구소(2014c).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9) 육아정책연구소(2014a).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p. 2

이 중 의사소통 영역의 세부 문항은 <표 II-2-2>와 같다.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 척도 의사소통 영역의 예시를 <부록 1>로 제시한다.

■ 표 II-2-2 ■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의사소통 영역 지표

내용범주		평가문항
3세	듣기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3.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4.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말하기	5.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지며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6.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7.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	8. 글자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9. 책에 흥미를 보이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한다.
	쓰기	10. 글자 쓰기에 관심을 보인다.
4세	듣기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2.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3. 동요, 동시, 동화 듣기를 즐기며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4.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말하기	5.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말한다.
		6.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한다.
		7.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읽기	8.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차례를 지켜 말한다.
		9.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고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10. 책에 흥미를 보이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11. 글자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5세	듣기
1.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하며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2.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3. 동요, 동시, 동화 듣기를 듣고 이해하며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하기		4.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5.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상황에 맞게 말한다.
		6.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읽기		7. 주제를 정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8. 바르고 고운 말을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사용한다.
쓰기		9.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보고,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읽는다.
		10. 책 보는 것을 즐기고 내용을 이해하며 궁금한 것을 찾는다.
쓰기		11.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12.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a).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p. 64

4) 특징 및 시사점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는 연령별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정도를 평가하므로, 평가자인 교사가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 내용범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a; 2014b; 2014c).

평가 시 교사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아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대답이나 반응 이끌어 내기, 부모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육아정책연구소, 2014a; 2014b; 2014c), 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 활동 및 등·하원, 급·간식, 전이시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a; 2014b; 2014c).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에서의 평가는 학급내 유아의 상대 평가가 아닌 개별 유아의 절대 평가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실시하여 유아의 변화정도를 비교해야 하며, 유아의 가족배경 및 문화 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4a; 2014b; 2014c).

나.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1) 개발 배경 및 목적

언어평가는 크게 검사자가 유아를 직접 검사하고 기록하여 채점하는 직접검사와 부모보고 혹은 행동관찰 등의 간접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검사로 나눌 수 있다(김영태, 2002). 특히 말이나 행동으로 언어능력을 표현하기 어려운 3세 이전의 영유아나 다른 장애를 동반하여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검사의 효용성이 높다(김영태, 2002).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언어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외국의 자료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한국 아동 대상으로 표준화된 인지검사 중 언어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 언어발달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김영태, 2002). 이에 따라 김영태(2002)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3세 이전 영유아를 위한 언어발달 도구를 개발하였다.

2) 적용 대상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는 3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4-5개월, 6-7개월, 8-9개월, 10-11개월, 12-13개월, 14-15개월, 16-17개월, 18-19개월, 20-21개월, 22-23개월, 24-26개월, 27-29개월, 30-32개월, 33-35개월로 나누어서 2~3개월 단위로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김영태, 2002).

3) 평가 도구의 내용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는 수용언어검사와 표현언어검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영역당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2-3>, <표 II-2-4>와 같다.

표 II-2-3 |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수용언어 검사문항

수용언어 검사문항	
4-5개월	1.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정확하게 바라본다.
	2. 유아가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유아에게 말을 걸면 잠시 울음을 멈춘다.
	3. 화난 표정과 기쁜 표정을 확실히 구별하여 반응한다.
	4. 친숙한 사람의 주의 주는 음성, 화내는 음성, 다정한 음성 등을 구별하여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한다.
6-7개월	5. 지속적인 기계음에 귀를 기울인다.
	6. “엄마”, “아빠”, “빠이빠이” 등의 익숙한 낱말을 들을 때 관심을 보인다.
	7. “안 돼”라는 강한 어조에 반응하여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주춤한다.
	8. “이리 와:나 ”빠이빠이“하며 손짓하면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한다.
8-9개월	9. 보통 목소리로 “안 돼”라고 해도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눈치를 살핀다.
	10. 특정한 소리나 말, 상황에 따라 규칙적으로 따라하는 행동이 있다.
	11. 울동적인 음악을 들으며 박자에 맞춰 적절한 몸짓이나 손동작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
	12. 체스처를 하면서 간단한 말로 요구하는 동사를 몇 가지(3-5개) 이해하는 것 같다.
10-11개월	13. “안 돼” 이외의 부정적 명령에 하려던 행동을 멈춘다.
	14. 말하는 사람의 말투로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아는 것 같다.
	15. 매주 이해하는 낱말이 늘어가는 것 같다.
	16. 주위에서 들리는 배경 소리와 엄마의 말소리를 구분해서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12-13개월	17.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18. “○○ 어디 있니?”라고 물으면 ○○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린다.
	19. 체스처 없이 말로만 하는 간단한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20.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와 자신에게 말할 때를 구분하여 반응한다.
14-15개월	21. “없다”의 의미를 이해한다.
	22. “엄마” 이외의 일반적인 가족의 명칭을 이해하고 지적한다.
	23. 방 안에 있는 친숙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무엇”이나 “누구” 등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의미를 이해한다.
	24.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일상 사물의 명칭을 말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

수용언어 검사문항	
16-17개월	25. 얼굴 부분의 이름을 듣고 자신의 얼굴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적할 수 있다.
	26. 익숙한 물건이 눈앞에 없더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27. 익숙한 사물과 관련된 2가지의 연속된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
	28.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산만해지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
18-19개월	29. 신체 부분의 이름을 듣고 다른 사람(엄마 또는 인형)의 신체에서 두 군데 이상 지적할 수 있다.
	30. 말로 지시했을 때 4개 이상의 다양한 물건들 중에서 한 가지의 물건을 고를 수 있다.
	31. “나”와 “너”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20-21개월	32. 그림과 실제 사물을 짝지을 수 있다.
	33. “소유자+소유”의 의미를 이해한다.
	34. 유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 이외의 부정 서술문을 이해한다.
22-23개월	35. “10가지 이상”의 간단한 동사를 이해한다.
	36. 일상생활에서 연결된 2가지의 지시가 포함된 문장을 듣고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다.
	37. 친숙한 사람의 전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안다.
24-26개월	38. 일상적인 형용사 중에서 적어도 3-4개를 이해할 수 있다.
	39. 시간을 표현하는 낱말 중 적어도 1개 정도는 이해한다.
	40. 명령하는 말과 물어보는 말을 구별할 수 있다.
27-29개월	41. 지시에 따라 사물의 일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42. 그림책을 보며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할 때 그 뜻을 이해한다.
	43. 5 낱말 이상으로 된 긴 문장을 이해한다.
30-32개월	44. 수량을 표현하는 낱말을 3개 이상 이해할 수 있다.
	45. 대부분의 일상적인 동사를 이해한다.
	46. “-면”, “-(으)니까”, “-(어/아)서” 등의 연결어미가 들어간 복문을 이해한다.
33-35개월	47.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말의 뜻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48.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가서 한 번에 두 개의 사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49. 크기를 나타내는 낱말을 이해한다.
33-35개월	50. “같다, 다르다”의 개념을 이해한다.
	51. 간단한 비유 표현을 이해한다.
	52. 도구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33-35개월	53. 사물의 “위, 아래, 앞, 뒤” 등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 2개 이상 이해한다.
	54. 비교의 개념이 생겨서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55.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33-35개월	56. 여러 가지 색의 이름을 5개 이상 이해할 수 있다.

자료: 김영태(2002).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개발 연구: 문항 및 신뢰도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7(2), 19-20.

▣ 표 II-2-4 ▣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표현언어 검사문항

표현언어 검사문항	
4-5개월	1. 입술 떠는 소리를 자주 한다.
	2. 2개 이상의 다른 모음을 붙여서 웅얼이한다.
	3.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소리 형태가 있다.
	4. “ㅂ, ㅃ, ㅍ, ㅍ”가 들어간 소리를 낸다.
6-7개월	5. 목이나 입술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즐기며 논다.
	6.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2음절 이상의 웅얼이를 한다.
	7. “빠~빠”, “음~마” 등의 낱말처럼 들리는 음절을 말한다.
	8. 모음 소리를 다양하게 낸다.

표현언어 검사문항	
8-9개월	9. 억양이나 소리 크기를 달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10. 같은 음절을 반복하여 소리 낸다.
	11. 어떤 행동을 하여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면 그 행동을 계속한다.
10-11개월	12.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제스처를 동반한 소리를 내어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려 한다.
	13.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리를 듣고 음절 수대로 모방한다.
	14. “아~” 혹은 “어~”와 같은 소리를 감탄사처럼 사용한다.
	15. 짹짹이나 까꿍 놀이와 같이 엄마와 자주 하는 놀이를 유아가 먼저 시작하기도 한다.
12-13개월	16. 통용되는 몇 가지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
	17.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한다.
	18.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행동이나 말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9.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낱말이 있다.
14-15개월	20. 제스처 또는 낱말을 사용하여 아니라거나 싫다는 표현을 한다.
	21. 도움을 청할 때 큰소리로 어머니 가족을 부를 수 있다.
	22. 새로운 낱말 모방을 시도한다.
	23. 어른의 억양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16-17개월	24. 유아가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낱말이 4개 이상 있다.
	25. 웅얼거리는 말속에 “ㄱ, ㄴ, ㅋ, ㅎ”와 같은 소리가 나타난다.
	26.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증가한다.
	27. 말하는 억양이 문장처럼 들린다.
18-19개월	28. 노는 동안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한다.
	29. 유아 스스로(자발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30. 3-4음절로 된 새로운 낱말을 비슷한 발음으로 모방한다.
	31. 호칭이 들어간 간단한 문장(호칭+낱말)을 말한다.
20-21개월	32. TV나 어른들의 대화에서 들은 낱말(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함)을 따라 말한다.
	33.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1개 이상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34.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35. 말할 수 있는 낱말이 적어도 10~20개가 있다.
22-23개월	36. 물어볼 때 말끝을 올려 말한다.
	37. 신체적 욕구에 대한 말로 표현한다.
	38. 5개 이상의 일상적인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39. 두 낱말 문장에서 부정어를 사용한다.
24-26개월	40. “뭐야?”를 써서 질문을 한다.
	41. 선택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다.
	42. 주로 두 낱말 또는 세 낱말로 된 문장을 사용한다.
	43. 사물을 말할 때 대명사보다는 그 이름을 사용한다.
27-29개월	44.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45.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46. 일상적인 동적이 표현된 그림에 대해 질문하면 적절하게 대답한다.
	47.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뭐야?” 이외의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많이 한다.
30-32개월	48. 시간을 나타내는 초보적인 낱말을 표현한다.
	49. “바지, 모자, 포도, 버스” 등의 낱말을 스스로 말할 때 첫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한다.
	50. “나, 우리” 등의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51. 형용사나 부사를 세 낱말 문장에서 사용한다.
	52.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표현언어 검사문항	
33-35개월	53.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54. "왜"를 사용한 질문을 많이 한다.
	55. 간단한 복문을 사용한다.
	56. 관형어(명사를 꾸미는 말)가 포함된 문장을 사용한다.

자료: 김영태(2002).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개발 연구: 문항 및 신뢰도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7(2), 21-22.

4) 특징 및 시사점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는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간접 검사로서 언어능력을 표현하기 어려운 3세 이전의 영유아나 다른 장애를 동반하여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영태, 2002). 따라서 유치원에서 교사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을 관찰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연령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수준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간접검사로서 허위, 과장, 과소 보고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김영태, 2002). 이와 더불어 유치원 시기 유아는 만 3~만 5세 단계이므로 3세 이후의 한국어능력은 측정할 수 없다.

다. K-CDI

1) 개발 배경 및 목적

CDI(The Child Development Inventory)는 Ireton과 Thwing(1972)이 개발한 부모보고형 척도이다(김정미·신희선, 2006). 이는 부모가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차적으로 아동의 발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부모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미·신희선, 2006). 그러나 아동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의 도구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김정미와 신희선(2006)은 CD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K-CDI로 표준화하였다.

2) 적용 대상

K-CDI는 15개월에서 6세 사이의 아동 또는 이와 같은 범위의 발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김정미·신희선, 2006: 40).

3) 평가 도구의 내용

K-CDI는 사회성, 자조 행동,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표현 언어, 언어 이해, 글자, 숫자, 전체발달의 10개 영역, 2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표현 언어, 언어이해, 글자 영역이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다. 표현언어에서는 간단한 몸짓, 발성, 언어 행동부터 복잡한 언어 표현까지 표현적인 의사소통의 발달을 측정하며, 언어이해에서는 언어의 간단한 이해에서부터 개념의 이해까지 포함한 언어 이해의 발달을, 글자에서는 쓰기와 읽기를 포함하는 문자와 단어에 대한 인지발달을 평가한다(표 II-2-5 참조).

표 II-2-5 K-CDI 척도별 문항 수 및 측정내용

척도	측정내용	문항 수
사회성	개별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집단 참여 상황에서 부모, 아동,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발달	35
자조행동	먹기, 옷 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가기, 독립심과 책임감 발달	38
대근육운동	걷기, 뛰기, 오르기, 점프하기, 타기, 균형 잡기, 협응 능력 발달	29
소근육운동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포함하여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그림 그리는 것까지 눈과 손의 협응 발달	30
표현언어	간단한 몸짓, 발성, 언어 행동부터 복잡한 언어 표현까지 표현적 의사소통 발달	50
언어이해	간단한 이해에서부터 개념의 이해까지 언어이해 발달	50
글자	쓰기와 읽기를 포함하는 문자와 단어에 대한 인지발달	23
숫자	간단한 숫자 세기부터 간단한 산수 문제 풀이에까지 수의 양과 숫자에 대한 인지발달	15
전체발달	발달의 총체적 지표를 제공하는 요약 척도로서, 위의 하위 척도로부터 가장 연령 구분력이 뛰어난 10개의 문항(단, 문자 및 숫자 척도에서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	70
문제항목	시각, 청각, 건강과 성장, 먹기, 잠자기, 배변 훈련 등 광범위한 징후	30

자료: 김정미·신희선(2006). K-CDI 아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p. 44.

4) 특징 및 시사점

K-CDI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사가 가능하며, 부모보고에 의해서 검사가 가능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아동발달 프로파일'을 그릴 수 있어서 다량의 집단적 검사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김정미·신희선, 2006). 이러한 진단 및 해석의 용이함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한 특징이 있다(김정미·신희선, 2006).

라.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on Vocabulary Test: REVT)

1) 개발 배경 및 목적

수용·표현 어휘력의 발달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검사는 전 연령에 걸쳐서 언어발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김영태·홍경훈·김경희, 2009). 또한,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동일한 수준에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표현어휘력보다 수용어휘력이 선행하여 발달함에 따라 수용·표현 어휘력 각각에 대한 검사도구가 필수적이다(김영태 외, 2009). 그러나 모든 연령에 걸쳐 언어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함에 따라 김영태 등(2009)은 만 2세부터 성인까지 포함하는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를 개발하였다.

2) 적용 대상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만2세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포함하는 검사 도구로서 2~6세는 학년 전기, 7~8세는 초등초반기, 9~10세는 초등중반기, 11~12세는 초등후반기, 13~15세는 중등기, 그리고 16~18세 이상은 성인기로 구분하고 있다(김영태 외, 2009).

3) 평가 도구의 내용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수용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REVT-R)와 표현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Expressive: REVT-E)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다(김영태 외, 2009: 35).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그림 자료를 활용한 어휘력 검사도구로 REVT-R은 피검사자가 4개의 그림 자료 중에서 목표어휘를 나타내는 그림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REVT-E는 피검사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김영태 외, 2009: 42).

4) 특징 및 시사점

REVT는 우리말 문헌연구를 기초로 한 어휘발달수준에 대한 검사로 모든 연령에 걸쳐서 언어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림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김영태 외, 2009). 그러나 초기 연구(2000년) 당시 구어 사용 문헌의 부족으로 인해 주로 문어 중심의 자료에 구어 자료가 약간 포함되어 개발 되어 문어 중심의 어휘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영태 외, 2009: 43). 또한, 검사자 간 일치도가 중요한 검사로서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언어 진단 평가(시화유치원)¹⁰⁾

1) 개발 배경 및 목적

시화유치원에서는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효과 증진을 위하여 연령별 언어 진단 평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별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b). 이를 위해서 연령별 누리과정 지도서(의사소통 영역), 육아정책연구소의 3~5세 누리과정 관찰척도, 교육부 다문화유아 언어교육프로그램, 교육부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평가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b).

2) 평가 도구의 내용

평가 도구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 내용범주별 활동 계획 2) 내용범주별 평가 준거 3) 내용별 관찰준거 4) 언어 진단 평가 교사용 5) 언어 진단 평가 유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에 맞추어 유아의 언어 발달을 진단하기에 적합하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용이하다.

10) 공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에서 2018. 08. 28. 인출한 내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도구>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II-2-6 내용범주별(듣기) 관찰 준거 예시(만 3세)

내용	세부 내용	1학기 누리동화	2학기 누리동화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동식물과 자연〉 호기심 많은 토끼 트레비 (p.59-61)	〈교통기관〉 네 발 자전거 (p.67-70)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봄〉 씨앗이 자라서 (p.62-63)	〈우리나라〉 옷장수와 호랑이 (p.41-43)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나와 가족〉 아기 돼지 삼형제 (p.199-200)	〈우리나라〉 옷장수와 호랑이 (p.41-43)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동식물과 자연〉 호기심 많은 토끼 트레비 (p.59-61)	〈환경과 생활〉 그림자는 따라쟁이 (p.142-143)

자료: 공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도구〉, 1p.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에서 (2018. 08. 28. 인출)

표 II-2-7 내용범주별(듣기) 평가 준거 예시(만 3세)

내용	척도	평가 준거
①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상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일부만 이해한다.
	하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②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중	도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 않는다.
③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상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중	특정한 방법으로 제시할 경우에 동요, 동시, 동화를 듣는 것을 즐긴다.
	하	동요, 동시, 동화 듣기를 즐기지 않는다.
④ 바른 태도로 듣기	상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다.
	중	도움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하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자료: 공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도구〉, 2p.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에서 (2018. 08. 28. 인출)

표 II-2-8 내용범주별(듣기) 관찰 준거 예시(만 3세)

내용	세부 내용	관찰 문항 (관찰요소)	관찰 준거			생활주제 (동화명)
			1	2	3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일상생활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일부만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동식물과 자연〉 호기심 많은 토끼 트레비 (지도서 4권, p.59-61)
			관찰 및 활동 사례 • 동화를 읽어준 뒤, • 동화를 읽어준 뒤, • 동화를 읽어준 뒤,			

내용	세부 내용	관찰 문항 (관찰요소)	관찰 준거			생활주제 (동화명)
			1	2	3	
	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낱말이해, 문장이해)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잘 듣고 해당 그림카드를 찾아 주세요.” 라고 물으면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찾지 못한다.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잘 듣고 해당 그림카드를 찾아 주세요.” 라고 물으면 관련된 친숙한 낱말 중 일부만 찾는다.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잘 듣고 해당 그림카드를 찾아 주세요.” 라고 물으면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대부분 찾는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흥미, 자발성)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 않는다.	도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봄〉 씨앗이 자라서 (지도서 10권, p.62-63)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흥미, 매체의 다양성 반응)	동요, 동시, 동화 듣기를 즐기지 않는다.	특정한 방법으로 제한할 경우에 동요, 동시, 동화를 듣는 것을 즐긴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나와 가족〉 아기 돼지 삼형제 (지도서 2권, p.199-200)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듣기태도, 자발성)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도움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다.	〈환경과 생활〉 그림자는 따라쟁이 (지도서 9권, p.142-143)

자료: 국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도구〉, 3p.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0>에서 (2018. 08. 28. 인출)

표 II-2-9 언어진단평가 교사용(듣기) 예시(만 3세)

<p>의사소통-①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p> <p>1.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잘 듣고 그림카드를 찾아주세요.” “토끼, 돼지, 닭, 우유, 딸기, 분홍색” 차례대로 한번 씩 들려준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p>〈동식물과 자연〉 호기심 많은 토끼 트레비 (지도서 4권, p.59-61) 토끼, 돼지, 닭, 우유, 딸기, 분홍색</p></div> <p>채점: 1개 이하(1점) / 2개~3개(2점) / 4~5개(3점)</p>

자료: 공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도구〉, 9p.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0>에서 (2018. 08. 28. 인출)

3) 특징 및 시사점

시화유치원 언어 진단 평가의 경우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개발되어, 유치원에 교사가 적용하기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언어 진단 평가 도구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연령에 적합한 언어발달 정도에 대해서 교사가 이해하기 쉬우며, 1) 내용범주별 활동 계획, 2) 내용범주별 평가 준거, 3) 내용별 관찰준거, 4) 언어 진단 평가 교사용, 5) 언어 진단 평가 유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가 유아의 개별 언어 발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선행연구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추진되어 온 선행연구들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유아관련 적응 연구, 다문화가정 유아 및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지원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 관련 연구, 유아 한국어 성취진단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화하였다.

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유아 적응 연구

다문화가정 유아, 외국인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대한 연구(김현자, 2010; 박미경, 엄정애, 2007; 오재연, 2012; 오재연·송미선, 2009)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김현자, 2010; 오재연·송미선, 2009)에서는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주요변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 이는 예비학교에서 부모 한국어 지원이나 안내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활동을 참여 관찰하고,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된 연구(박미경, 엄정애, 2007)에서는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한국인’ 만들기가 아닌 교사와 또래 친구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정의 유아들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모든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의 유아교육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오재연(2012)은 유치원에서 4주 동안 한국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기관 적응과정을 비교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유아 간의 기관 적응 변화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또한, 연구는 따돌림이 한국가정의 유아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따돌림 정도, 어머니 연령과 교육 정도, 아버지 연령, 유아의 한국어 등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대상 심층 면담으로 진행했던 연구(오성배, 2009)에서는 이런 경우 학교(편)입학 기회가 있어도 실제 학교 진입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재학 중에도 수업 적응, 또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성취 수준이 매우 낮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었다. 연구는 인권보장, 사회평화,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도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다문화가정 유아 및 학생 교육지원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를 파악한 연구(박인옥, 2010)에서는 다문화 1세대를 위한 지원은 과다한 반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연구는 영유아기 언어, 사회성 발

달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영유아기의 교육지원이 초등학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중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한국어교육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외국인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한국인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들(이춘양, 최윤곤, 박미숙, 2017; 한선홍, 이대균, 2013)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춘양 등(2017)은 교사들이 외국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 가장 속상하였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맞추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어렵하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선홍과 이대균(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어려움을 ‘외국인 유아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교사’,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아와 안타까운 교사’, ‘외국인 유아의 이문화(異文化)적 행동에 당황스러운 교사’, ‘외국인 유아에게 NO!라고 외치게 되는 강압적인 교사’, ‘울음으로 표현하는 외국인 유아와 답답한 교사’로 구체화하였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은 ‘외국인 유아 그리고 부모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외국인 유아를 학급에 통합(어울리기)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교사’, ‘때로는 외국인 유아를 수업에 절대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사’로 특징지었다. 이처럼 연구가 제시한 어려움과 노력은 예비학급 운영 시 교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게 해주므로 이에 대응하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핀 연구(오성배, 박희훈, 2018)에서도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 중 교과 내용에서 쓰이는 학습 한국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적응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비학교’ 사업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예비학교 선정 시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한국어교육 지원 연구

이중언어환경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교육 요구, 어려움, 정보 이용 등에 대해 언어발달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연구(황상심, 2017)가 보고되었다. 언어발달지도사들은 이중언어 대상자들이 주로 중도입국, 노동이주, 유학생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중언어환경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어발달지도사들이 제1 언어 및 제2 언어 습득, 문화적 관습 및 신념 이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답하였다.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이유가 '아동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결과는 다른 기관보다는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인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서의 어려움은 언어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결과는 유치원 교실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유추하게 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유아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연구(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도 보고되었다. 또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지원 연구(김민화, 신혜은, 2008)에서는 한국어 교사, 외국인 어머니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영유아 한국어 지원은 취학 후 부적응, 학습부진 예방에 목적을 두며, 교육내용으로 연령에 적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놀이식 접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요구를 수렴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고은, 2010)가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은 현재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전담교사와 한글 교육에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유치원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예비학급 형태의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지지한다.

한국어교육 현황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개발된 5종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최권진, 채윤미, 2010)에서는 배포된 교재들이 국어 교과서의 형태이거나 성인 학습자 대상의 내용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나 활

용과 더불어 다른 교과와 다양한 주제 및 문화를 녹여 담은 범교과적 활동 중심의 통합교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기철(2013)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제와 지원을 분석하여 다문화학생 예비학교·한국어교육과정 도입을 직접 제의하기도 하였다. 연구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통합 교과과정의 수립, 전문보조교사 양성, 이중언어 교육 확대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조기교육 실시로 입학 후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예비학교·한국어교육과정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통합운영프로그램에 의한 이주 1세대 부모교육의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는 다음과 같이 예비학교 운영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은 희망에 따라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고 정규학교에 입학한다. 예비학교는 기존 학교나 다문화교육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별도의 학급으로 운영된다. 다문화학생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등록부터 국적취득, 학교입학 안내,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도 집중적으로 양성된다. 우리말에 서투른 다문화학생을 돕기 위해 단계별 ‘한국어교육과정(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다문화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문법 교재를 만들어 KSL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한국어능력 진단도구인 주니어 토픽(J-TOPIK)도 개발한다.”(송기철, 2013: 69)

라. 다문화 예비학교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 유아 대상 예비학교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예비학교, 연구학교, 특별학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홍종명, 2016).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홍종명, 2016)에서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중 대상 학생이 없어 일반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거나, 보충 차원의 교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현장의 실제 수요와 달리 선정되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

다. 그 이유로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등 현장 담당자의 한국어교육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었다.

다문화 예비학교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교육현장 연구(박철휘, 박주형, 김왕준, 2016; 이병호, 한승수, 2016; 이명희, 김기화, 황진민, 이재창, 허은지, 2017; 황석규, 2015)도 보고되었다.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황석규, 2015)에서는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학생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 지원과 지자체인 제주도 지원, 민간단체의 협력 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다문화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병호 외, 2016)에서는 다문화 아동반을 별도로 구분 편성하는 것보다 함께 어울리게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비학교 현장연구(박철휘 외, 2016)도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교과 지도나, 생활지도,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중 '교사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보다 가장 크다는 결과는 유치원 예비학급 구성 시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배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로는 상담교사 배치(4.02점), 행정실무사 배치(3.96점), 학급당 학생 수 감축(3.89점), 예비학교 전담교사배치(3.83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보급,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명희 등(2017)은 다문화 예비학교의 운영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중도입국 학생에게 공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한국사회 진입통로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예비학교 교육과정에서 중도입국 학생들의 국적과 학습 격차, 입학 시기 등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함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문화유치원 실태를 분석하여 유형별 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문무경, 최효미, 이민경, 2016)가 이루어졌다. 2015년도 다문화 유치원 시범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유아 수(10명),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상, 하), 부모 참여도(상, 하)를 기준으로 8가지 모형의 운영 안을 제시하였다.

마. 유아 한국어 성취진단 관련 연구

국내에서는 유아 한국어 성취 진단을 위해 장영애(1981)가 개발한 언어능력 측정도구, 주영희(1982)의 언어 및 사고검사, 채미영(2003)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토대로 언어 수준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도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유아뿐 아닌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어 진단·평가도구 개발과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고순희, 2015; 김순환·전우용 2016).

유아 대상 성취평가에 대한 현장요구가 높았기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연계한 관찰척도가 개발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하는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용과 더불어 교사의 관찰을 통해 유아의 성취를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미화 외, 2012; 이미화 외, 2013)이 이루어졌다. 이는 유아 연령특성과 누리과정의 5개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3세용 63문항, 4세용 67문항, 5세용 68문항이 개발되었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였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의사소통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3세 10개 문항, 4세와 5세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여 미흡(1점), 보통(2점), 우수(3점) 중 하나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정림, 최효미, 정주영, 오유정, 이정아, 2014)도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다문화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서의 누리과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순환과 전우용(2016)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적절한 지원을 위해 진단과 평가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아의 언어발달 평가와 평가도구에 대한 현장의 요구 인식을 조사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에게 맞는 평가도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측정과 관찰을 사용한 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바. 소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유아 대상 집중 한국어교육은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의 학습 지체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 자존감 형성 등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한국어 조기교육을 통해 초등 입학 후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예비학교를 설치하지는 연구결과를 차치하고라도,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들은 다문화(외국인)가정 유아들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됨이 효과적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주된 이유가 자녀의 접근성 부족과 자녀의 다른 교육 일정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다른 기관보다는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한국어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어교육이 언어교육으로뿐 아니라 유아를 위한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치원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선행연구는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머니들의 요구로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로 전담교사 배치를 보고하였다. 다문화(외국인)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외국인 유아를 맞이하는 두려움, 적응 못 하는 유아에 대한 안타까움, 유아의 이문화(異文化)적 행동에 당황스러움, 그런 결과로 표출되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처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대한 동의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함도 제안하였다. 교사양성부터 교사인력풀 구축 및 배치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유아용 한국어교육 능력 진단에 대한 도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뿐 아닌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도 한국어 진단·평가 도구 개발과 학생의 연령 및 발달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현재 유치원 학급에서 사용되는 진단의 척도는 학급에 따라 교사가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의 언어특성을 반영한 유치원용 한국어 진단 척도가 개발된다면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지원의 출발점 진단과 유아의 수준

에 적절한 교육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마련한 교사들이 매뉴얼에 따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척도와 프로그램의 운영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용 종합 척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에는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어려움,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 등을 토대로 이주 1세대 부모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예비학급 설치 및 교육과정 계획 단계에서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유치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은 유치원의 상황, 즉 외국인 유아의 비율, 유치원 설립유형(공립 단설, 공립병설, 사립)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초·중등 예비학교에 대한 평가 연구들은 한국어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현장의 실제 수요와 달리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여,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표준운영안의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유치원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외국인 유아의 비율,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I

국외 언어교육 지원 사례

1. 일본
2. 캐나다
3. 독일
4. 호주
5. 소결



Ⅲ. 국외 언어교육 지원 사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화를 경험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 중 언어 관련 정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나라의 공식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공식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치원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외국인 아동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언어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주지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활발하게 다문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언어교육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인종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유지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모경환 등, 2015), 구성원들의 문화가 훨씬 다양해졌다.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취업 기회가 확대되자 주로 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나 비즈니스를 위해 들어 온 사업가, 난민, 취

학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일본에서 살게 된 외국인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브라질이나 페루에서 생활하던 일본계 자손의 입국 등 소위 ‘뉴커머’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일본은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로 접어들었다(박영준, 2015).

1990년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5년 이주민 수가 200만 명으로 일본 총인구 대비 1.57%를 넘기면서(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장미숙·이수상, 2012에서 재인용),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다문화공생’을 시행하였다(모경환 외, 2015). 2006년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한 ‘다문화공생’ 정책은 일본어가 모국어인 아닌 외국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정책’과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그리고 ‘생활지원 정책’과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정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김미숙 외, 2011). 여기에서는 ‘다문화 공생’ 정책 중 생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교육지원 정책, 특히 일본어가 제1언어가 아닌 외국인 아동을 위한 일본어 교육 정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대상 아동에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뿐만 아니라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해외 거주 일본인 자녀와 귀국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 애칭이 클라리넷(CLARINET)으로 해외 자녀·귀국 학생의 영어 표기인 ‘Children Living Abroad Returnees Internet’의 머리글자를 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의무 교육 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일본 거주 외국인 아동이나 해외 거주 일본인의 자녀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에서는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재외 일본인 교육 시설의 초등부, 중학부에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원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 교육 시설의 교사 급여 및 현

11)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번역하여 축약 정리함.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2018. 07. 30. 인출)

지 채용 강사의 사례금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거주 외국인 아동의 경우 취학 의무는 없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일본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¹²⁾. 문부과학성에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과 같은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어 습득과 학교 적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모경환 외, 2015).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치원 과정은 일본에서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유아 대상의 일본어교육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귀국 학생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 지도 체제의 정비¹³⁾

1992년부터 외국인 학생이나 귀국 학생 등 일본어 학습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그 급여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일본어 지도 협력자’를 배치하기도 한다(김미숙 외, 2011).

나. 교원 연수 실시¹⁴⁾

1993년부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담당 교원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그 대상을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관리직까지 확대하였다.

12)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번역하여 축약 정리함.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2018. 07. 20. 인출)

13)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함. (2018. 7. 30 인출)

14)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함. (2018. 7. 30 인출)

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조사¹⁵⁾

1) 정기적인 조사

1990년 6월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후 남미에서 이주해 온 일본계를 포함한 외국인의 일본 체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와 함께 외국인이 동반한 자녀가 증가한 것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에서는 1991년부터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왔으나 2008년도 이후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외국인 자녀의 취학이나 미취학 상황 등에 관한 조사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기 조사 외에도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국인 자녀의 취학이나 미취학 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지금까지 2회 실시했다.

가) 외국인 아동의 미취학 실태 조사

남미 출신 일본계 등의 이른바 '뉴커머'가 주로 거주하는 지자체 12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외국인 아동의 미취학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무 교육의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등록 외국인 아동 총 9,889명 중 60.9%에 해당하는 6,021명이 공립학교에, 20.5%인 2,024명이 외국인 학교 등에 취학 중이고 17.5%인 1,732명은 이사나 출국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1%에 해당하는 112명이 미취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기 위한 돈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어를 몰라서', '곧 고국에 돌아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나와 일본어 미숙이 외국인 아동의 학교 진학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외국인 아동의 취학 상황 등에 관한 조사

2009년에는 「귀국·외국인 아동 학생 수용 촉진 사업」(2007년~2009년)이 실

15)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함. (2018. 7. 30 인출)

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라. JSL(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평가 도구개발¹⁶⁾

문부과학성은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위한 JSL 대화형 평가도구인 DLA를 개발하였다.

■ 그림 III-1-1 ■ JSL 대화형 평가도구: DLA



자료: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도구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1345413.htm(2018. 7. 30 인출)

마. JSL(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

JSL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본어가 제1 언어가 아닌 학생의 일본어 지도와 교과 지도를 위해 개발된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JSL이 일본어 습득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어 학생의 교과목과 관련한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다(모경환 외, 2015). 교사는 학생의 일본어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항목의 제시 순서나 사용하는 일본어의 난이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6)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도구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1345413.htm (2018. 7. 30 인출)

바. 외국인 아동의 취학 기회 확보를 위한 제도 실시

2006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 고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의 시행으로 외국인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보호자에게 입학 수속 등에 대한 취학 안내를 통지하는 것이 보다 철저해졌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3개월 이상의 증장기 체류자인 외국인 주민의 경우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녀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시구청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표’가 작성되고 여기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시구청촌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이나 취학을 안내한다.

자녀를 일본학교에 입학시킬 의사를 전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아동 학생입학 신청서’ 또는 ‘취학 안내’가 교부되고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외국인아동 학생 입학허가서’가 당일 교부되거나 우송된다. ‘외국인아동 학생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지정된 학교에 가서 교육상담을 한 후 일본어 지도를 충분히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구청촌 교육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¹⁷⁾

일본학교의 입학 수속 절차를 안내하는 취학 안내서가 영어, 한국·조선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안내서에는 일본의 학교교육과 취학 수속 절차, 학교생활과 교육상담에 대한 내용이 일본어와 각 해당 언어로 제시된다.

사.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2012년 기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 중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모두 3만 명 이상으로 이중 외국인 학생이 약 2만5천 명이고, 일본 국적의 학생이 약 5천9백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본어를 제2 언어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2014년 1월 4일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56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귀국·외국인 아동 학생

17) 문부과학성(2015). 취학 안내서: 일본학교의 입학 수속 절차 (한국·조선어판), p.16
외국인 아동 학생을 위한 취학 가이드 북 한국·조선어

의 일본어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포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별 교육과정'의 대상자는 학생을 주로 지도하는(일본어지도 담당) 교사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가 학생의 상황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특별 교육과정'은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재적 학급이나 다른 학급에서 학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지도를 위해 편성되며 다음 세 가지 형태로의 지원이 가능하다.

- 가) 재적학급에서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일본어로 설명을 보충하는 등의 배려를 한다.
- 나) 재적학급에서의 수업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이외의 지원교사가 들어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의 모국어로 설명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보충지도를 실시한다.

2 캐나다¹⁸⁾

가. 운영 배경 및 목적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민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로(Gallup World Poll, 2016-2017)¹⁹⁾, 1867년 연방창립 이후 현재까지 약 1천 7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전체 인구의 16.1%가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s Canada, 2017)²⁰⁾.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Ontario)주는 29.1%에 달하는 인구가 캐나다 밖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

18)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7). English Language Learners ESL and ELD Programs and Servic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Ontari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indergarten to Grade 12에서 필요한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www.edu.gov.on.ca/eng/document/esleldprograms/esleldprograms.pdf> (2018. 07. 25 인출)

19) GALLUP WORLD POLL (2016-2017). <https://news.gallup.com/poll/233147/migrant-acceptance-canada-follows-political-lines.aspx> (2018. 07. 25 인출)

20) Statistics Canada (2017).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17028-eng.htm> (2018. 07. 25 인출)

어, 캐나다를 대표하는 다민족 다문화 지역이라 할 수 있다(Statistics Canada, 2017).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온타리오의 학교 교실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문해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유치원교육과정(2007)은 유아의 학습 경험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유아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이미 획득한 학습의 바탕 위에서 지식을 발달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7). 이러한 기본 전제는 영어를 배우는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유아의 이전 학습은 유아의 모국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유아의 모국어는 그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국어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처음 공교육에 진입한 유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은 협력을 통해 유아가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령에 적합한 상식과 어휘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국어를 통해 학습된 풍부한 지식은 영어와 같은 제2의 언어로도 쉽게 전환된다.

영어와 같이 알파벳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라 하더라도 모국어로 읽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문해 능력 발달을 강화한다. 자신이 이미 획득한 지식과 기술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아는, 말이 단지 사물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표상한다는 것을 일찍 배울 기회를 얻는다. 두 가지 언어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제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더욱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운영 방법

1) 지원 대상

영어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는 온타리오주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에 속한 학생으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교수학습과정에 사용되는 표준영어와는 유의미하게 다른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대한 유창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 집중적인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칭한다. 이

러한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최근에 다른 국가에서 이주했을 수도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장 배경과 학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각각의 강점이나 필요가 매우 다양하다(이하 '영어학습자'라 함은 온타리오주에서 규정한 영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의미함).

2) 교육비

온타리오주의 유치원부터(Junior kindergarten 4YR) 12학년까지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유치원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 교육방법

1) 영어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아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아와 영어 유창성에서 단번에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기부터 두 가지 언어 모두에 노출된 유아의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부모, 그들의 언어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한편, 영어학습자로 판명된 유아 중,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국어에도 그와 같은 결핍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준어가 아닌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열등'하거나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영어학습자인 유아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교실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모국어 사용

유아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찾아 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 교실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 유아의 시도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해준다.
- 제스처와 단어, 목소리 톤의 조합을 사용하여 말한다.
- 유아의 모국어 중 간단한 몇 개의 단어는 배워서 말해본다.
- 교실 내에 다양한 문자언어를 전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침묵

모국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아는 일정 기간 전혀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유아들은 비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듣고 학습하고 의사소통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거나 속삭여보기도 한다.

- 교사는 유아의 물리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동작이나 음악,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유아와 의사소통한다.
- 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구체적인 탐색이 가능한 사물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아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그림으로 된 상징물을 가리키도록 한다.
- 함께 책을 읽을 때는 문맥 안에서 친숙한 사물을 가리켜 보게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다) 단어와 짧은 문구 사용

유아가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의사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표제어나 짧은 문구를 말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는 아이에게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말해줄래?”라고 물으면 “집”이라고 대답하거나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와 같이 자주 반복되는 짧은 문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 더 복잡한 문장구조나 어휘 사용

초기에는 유아가 자신의 모국어와 영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또래와 대화한다. 간단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익숙한 노래나 라임에 반응하고 참여하기 시작한다. 또래와의 대화 중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모국어를 사용한

다. 육하원칙과 관련된 기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때 교사를 모델링한다. 맥락 내에서 지향성을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한다. 이 단계 후기에 이르면, 간단한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림을 그려 개인의 경험을 표상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학교 내 일상을 이해하고 지시를 따른다. 대집단 소집단 활동에 참여한다. 대문자나 소문자 중 일부를 말한다. 소집단 활동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동사의 변화(현재형 과거형)가 문장에 나타나며 이를 실험한다.

2) 영어학습자가 포함된 교실운영방법

온타리오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영어학습자의 비율을 사전에 파악해서 교실 구성에 반영하기보다 각 교실이 영어학습자의 비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영어학습자가 단 한 명만 있는 교실, 표준영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학습자가 한 명 이상인 교실, 혹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학습자가 한 명 이상인 교실 등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것이고, 이것이 교사의 운영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영어학습자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모두가 새로 시작되는 학기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는 영어학습자를 포함한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이 학교나 교실에 올 때마다 환영받는 편안한 느낌을 얻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실 안에 유아의 이름표와 환영 문구를 게시할 수 있다.

가) 일과 시간표와 규칙을 확립하기

안정된 일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실은 언어에 대한 모방학습 및 새로운 어휘 획득을 지원하고, 유아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 영어학습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어떤 가족에게는 유치원이 캐나다 학교에 대한 첫 경험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유아 및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은 특정 가족에게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발달적 고려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는 다른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적응하면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유아의 강점, 필요, 관심은 모두 다르며 발달적 개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학습자의 경우 트라우마나 영양실조, 의미 있는 가족에 대한 상실과 분리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인이 개별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유아의 모국어를 교실 안에 포함시키기

모국어 발달이 영어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아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영어학습자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지속함으로써 그들이 교실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 대집단 활동

모든 유아가 함께하는 활동은 영어학습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영어학습자가 다른 유아와 함께 어울리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대집단 활동의 핵심 목적이다. 하교 전의 대집단 활동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반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교사는 영어학습자가 쓰거나 만든 것들을 다른 유아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실 운영

교사는 교실 전체가 학습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들의 발달과 상호작용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학습자는 매일 일과가 시작될 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몇 달 후에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소중한 물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함께 책 읽는 시간 역시 일과가 거듭되면서 영어학습자의 영어 발달 수준에 맞추어 어휘나 문장의 난이도, 책의 길이 등이 변화해 갈 것이다.

사) 영어학습자를 평가하기

유치원에서의 평가의 핵심은 ‘유아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유아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지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어학습자에 대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영어학습자를 평가할 때, 교사는 이들이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하며 유아가 성장한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여섯 가지 평가 항목(자아 및 사회성 발달, 언어, 수학, 과학 및 기술, 건강 및 신체활동, 예술) 중, 언어발달이 영어학습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과 진보가 영어학습에 진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사는 관찰, 듣기, 질문하기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과 진보를 평가하게 되는데, 영어학습자를 평가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종류의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학습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일상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그림이나 쓰기 활동)를 분석하는 통해 유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아) 평가에 기반한 교수방법의 변화

교사는 영어학습자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기반하여 활동의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좀 더 개별화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을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를 위해 이중언어 책을 교실에 비치하고 교실에서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몇 가지 책을 가정으로 보내 가족과 함께 읽도록 할 수 있다.

자) 평가법의 변화

유아의 활동물, 교사의 기록과 메모, 사진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는 영어학습자의 발달과 진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라. 성취평정방법 및 도구

1) 평가의 기본 전제

영어학습자를 평가할 때 교사는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영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아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평가도구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영어학습자는 새로운 교실 및 학교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요구를 인지하고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교사는 영어학습자의 모국어 문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교사는 질문이나 지시에 대한 영어학습자의 반응 부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영어에 유창성이 부족,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어려움, 대답을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권위 있는 성인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등).
- 평가는 영어학습자가 제한된 영어 능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평가는 전인적 관점에서 학습과 발달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지 영어 습득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평가

영어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온타리오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원칙(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에 근거하여 다른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가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어느 정도 성장(진보)하였는지, 다음 발달 목표는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영어학습자의 경우, 아동의 학습과

성장이 온타리오의 유아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발달목표에서 수정되어 영어학습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는 쪽으로 일시적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교사는 평가지의 “ESL” 란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체크 표시는 유아가 단지 영어학습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체크 표시와 함께 제시되는 정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온타리오주 평가 서식을 <부록 3>²¹⁾으로 제시한다.

3) 부모와의 면담

교사는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한다. 비공식적으로는 전화통화, 메모를 통한 의사소통, 등·하원 시의 의사소통, 학교나 지역 행사에서의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교사는 부모 역시 영어를 획득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명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직원과 동행한다.

유아의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식 면담 역시 필요하다. 다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 상담 전에 부모가 준비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에 면담에서 사용된 자료를 가정으로 보낸다. 면담 시에는 가능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가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유아의 성취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시각자료(그림, 사진, 유아의 활동 결과물 등)를 활용한다. 필요하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석하되, 통역하는 직원이 아닌 부모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상담 중 어느 때라도 부모가 질문하도록 배려한다.

3 독일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여 1951년에 전체 인구인 5,081만 명의 1%인 51만 명에서 2009년에는 8,814만 명의

21)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pp.18~19.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growingSuccessAddendum.pdf> (2018.08.02 인출)

8.7%인 715만 명으로 늘어났다(김미숙 외, 2011). 외국인을 포함해 전체 독일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에 이르러 약 20%에 이른다(김미숙 외, 2011). 독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설명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은 물론 이주민 2세대나 3세대로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한다(Datenreport, 2001, 김미숙 외, 2011에서 재인용).

2009년 기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 본인이 이주경험이 있는 인구는 약 65%이고, 나머지 35%는 독일에서 태어난 경우이며 이들은 또 각기 독일인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김미숙 외, 2011).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독일에서 이주배경이 없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동안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2009년에 태어난 독일국적자의 약 1/3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김미숙 외, 2011).

독일은 한때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의 영구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만들 때까지 했지만 1990년 후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문제가 예상되자 2001년 시행된 국적법을 통해 기존의 속민주의와 함께 외국인 2세대들의 독일국적 취득을 완화하는 속지주의 정책을 펼쳤다(한영빈, 2013). 또한 2005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이주민의 언어지식을 강화함으로써 독일사회와 노동시장에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통합 내용을 규정(김미숙 외, 2011)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독일어 교육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을 위해 독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어교육 지원은 어른을 위한 과정과 그 자녀를 위한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운영 배경 및 목적

독일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기관은 크게 탁아소(0~3세)와 유치원(3~6세) 그리고 방과 후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왔으나 점차 탁아소와 유치원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를 아동보육시설(Kindertagesstätte)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2006년 2월부터 유치원에 해당하는 3~6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

육비의 2/3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살고 있는 주나 지역에 따라 보육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에른주처럼 취학 전 1년 유치원과정부터 무상인 곳도 있다. 독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고(김미숙 외, 2011), 이들을 독일교육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언어지원책을 무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DaZ) 수업’이다(성상환, 2009). DaZ(Deutsch als Zweitsprache)²²⁾는 만 6세부터 10세까지의 1단계 학습 과정과 11세-15세까지의 2단계 학습 과정으로 운영되고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학교에 7시까지 등교하여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놀이 중심의 수업을 통해 소통하면서 독일어를 익히고,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별도수업 후 학기 말 성적표에 첨부된 DaZ 교사의 평가의견에 따라 DaZ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독일어 능력과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1 언어의 지속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에서 아동의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예로 1~3세 영아 대상 프로그램인 “Griffbereit”은 이주민 자녀와 어머니가 언어놀이를 통해 모국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4-6세 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Rucksack”은 교사와 부모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아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취학 전 아동의 언어 수준을 조사하여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 수준을 평가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브레멘주에서는 초등 저학년(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수준 및 지원 여부 진단을 1994년부터 실시하였다. 니더작센주 경우 2002년부터 취학 10개월 전에 언어 수준을 사정하여 취학 반 년 전에 언어 보충학습을 실시하여 왔으나(성상환·서유정, 2009), 2018년 8월 1일부터 초등 입학 18개월 전에 취학 전 언어 지원을 신청하고 언어평가 기준 미달 시 독일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²³⁾

22)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ro 2013.10.23. 18:32
<http://blog.bokjiro.go.kr/252> (2018. 08. 06 인출)

23) 니더 작센 주 홈페이지 https://www.mk.niedersachsen.de/startseite/fruehkindliche_bildung/traeger/sprachfoerderung_vor_einschulung/sprachfoerdermanahmen-vor-der-einschulung-6020.html(2018. 08. 07 인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중이나 다중언어 또는 모국어 개방 수업 프로젝트 등이 연방의 각 주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25세 미만의 교육대상 인구의 교육 불평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2002/2003년 조사 당시 전문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외국인이 독일인에 비해 약 2.4배 높고, 대학입학 자격은 반대로 독일인이 외국인에 비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11).

특히 2000년 OECD에서 주최한 국제학력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독일의 15세 학생들이 32개 참가국 중 20위 이하를 차지해 독일을 충격에 빠트렸는데 그 이유로 이주청소년의 약 1/3이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져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문화교육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독일의 정규 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주배경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독일어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언어문제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여겨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언어지원프로그램은 필요 없다고 가정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성상환, 2009).

독일 정부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낮은 독일어 실력과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김미숙 외, 2011), 다음은 2011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시작된 언어 관련 프로젝트이다.

나. 언어통합 중점 유아기관(Schwerpunkt-Kitas Sprache & Integration) 프로젝트²⁴⁾

1) 개요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진행되었고, 대상은 교육에 차별받고 있는 가정이나 이주 가정의 유아 비율이 높은 만 3세 미만 유아 대상 교육 기관(Kitas) 4,000개소이다.

24) 독일 연방 정부의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s://sprach-kitas.fruehechancen.de/programm/ueber-das-programm/rueckschau-schwerpunkt-kitas/> (2018.07.26 인출)

2) 유아기관에 언어전문가 추가 배치

유아기관에 언어 교육에 전문 지식을 갖춘 언어전문가를 배치해 유아기관의 교사가 3세 이하의 통합 언어 교육에 교육학적 전문성을 제공한다. 유아 및 그 가족들과 더불어 이루어진 언어교육 활동에 유아기관 교사들과 함께하면서 조언하며 유아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3) 프로그램 특성

통합적 일상 언어교육을 통한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한다. 언어전문가와 교사들 간의 전문적인 교류(의견 교환이나 상호 조언)를 통해 유아기관 내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유아기관과 가족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4) 평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유아기관(Sprache Kitas)”이 시작되었다.

다. “언어 유아기관(Sprache Kitas) : 언어가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²⁵⁾

1) 개요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 중이다. “언어통합 중점 유아기관(2011-2015)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시작되어 이를 더욱 확장한 것이다.

2) “언어가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열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언어 능력은 계속 이어질 교육 및 경제생활로의 진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불우한 가정 및 이주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해당한다.

25) 독일 연방 정부의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s://sprach-kitas.fruehe-chancen.de/>(2018.07.26 인출)

3) 대상

연방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한 언어적 요구를 가진 유아들의 비율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언어 유아기관(Sprache Kitas)” 프로그램에 최대 10억 유로의 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4) 연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지원

첫째, 언어교육 전문가를 지원한다. 언어 유아기관에서 직접 활동하는 언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이들은 매일 통합된 언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유아기관 팀에 조언하고 동행하며 지원한다.

둘째,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한다. 다수의 언어 유아기관이 모여 구성된 네트워크(예: 18개의 유아기관으로 구성된 2개의 네트워크)를 맡아, 언어 유아기관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과정 중에 지원하는 추가적인 전문 상담가(전문 컨설턴트로서 언어치료사, 유아교육자, 사회교육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음)의 자문을 제공한다.

5) 프로그램의 강조점

가) 일상적으로 통합된 언어교육 강조

유아는 자신의 삶과 경험한 세계에서 상황을 자극하여 언어를 학습한다. 유아의 개인적 역량과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을 지원한다. 전체 유아기관의 일상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 활용한다.

나) 포괄적인 교육

유아와 성인이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다양성을 논의하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유사점과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가족과의 협력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가족 간의 서로 믿고 수용하는 파트너십은 유아의 총

체적 언어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언어교육은 부모님과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유아기관에서는 가정에서 언어발달을 자극하는 환경 구성에 대해 부모에게 조언하고 유아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유치원에 대한 안내 책자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부록 4).

라. 언어와 글쓰기를 통한 교육

(Bildung durch Sprache und Schrift: BiSS)²⁶⁾

1) 개요

연방교육 연구부(BMBF),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MFSFJ), 독일(KMK)의 연방 공화국의 교육 장관의 상임 회의 및 장관의 청소년 및 가족 회의(JFMK)는 2012년 10월 “언어와 글쓰기를 통한 교육(BiSS)”이라는 공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 대상

거의 모든 연방의 주 및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600개 이상의 교육 기관이 BiSS에 참여하였다. 교육기관들은 모두 총 104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 교육 및 지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근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었다. 네트워크는 3-10개의 유아기관 또는 학교는 물론 대학이나 도서관과 같은 다른 파트너로 구성되었다.

3) 개념 및 목표

“언어와 글쓰기를 통한 교육”(BiSS)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언어 향상, 언어 진단 및 독서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유아기관과 학교, 협회는 긴밀히 협력하여 언어 교육 및 언어 홍보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수행하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계속 교육 및 지속적 자격 유지를 지원한다.

26) 독일 연방 정부의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www.biss-sprachbildung.de/> (2018.07.26 인출)

4) 구성

개발 프로젝트는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유치원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유치원 단계 프로젝트

단일 언어 및 다 언어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위한 일상 통합 언어 교육의 전문화로 느끼기, 생각하기, 말하기를 다룬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아동의 감정 인식과 사실 인식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 교육과정 개발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가 언어 능력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학제 간의 종적 연구 프로젝트로 설계되어 아동 언어 발달에 필수적인 세 가지 연구 분야(심리학, 언어학, 교육 과학)를 연계한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까지 진행된다. 3단계로 모듈 1~6으로 구성된다.

- 1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언어적 상호 작용 방식에 대한 목록을 작성
- 2단계: “느끼기, 생각하기, 말하기“ 과정을 개발
- 3단계: 정서적, 과학적 지식과 사고에 중점을 둔 일상적인 통합 언어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초등교육 단계의 프로젝트

일상적인 통합 언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간의 협력과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어린이를 위한 추가 언어를 지원한다. 모듈 1~4로 구성된다.

다) 중등교육 단계의 프로젝트

중등 교육의 과목에서 어휘력을 구술 능력으로 옮겼다. 8학년 사례를 이용한 중재 연구 등을 하였다. 모듈 1~5로 구성된다.

5) BiSS 프로그램의 모듈

BiSS 프로그램은 개별 교육 성공의 핵심인 언어 능력 측면에서 제도적 돌봄의 시작부터 중등 교육의 끝까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록 선택된 모듈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평가한다.

예비 초등 교육에서의 BiSS 모듈은 제도적 돌봄이 시작될 때부터 학교 입학 시까지의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적용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적인 통합된 언어 교육 또는 소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언어 지원을 담당한다. 문맹 퇴치, 언어 측면과 같은 다양한 언어 영역에 중점을 둔다.

가) 모듈 E 1: “일상 통합 언어 교육”

이 모듈의 목적은 그룹 또는 기관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통합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며, 나이는 2-6세 미만에 적용한다.

나) 모듈 E 2: “삼 년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이 모듈의 목표는 삶의 첫해 아이들을 다루는 교육과 조기 교육 전문가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여 한 살 이후 어린이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다. 초점은 전문가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개선하는 데 있다.

다) 모듈 E 3: “언어 구조 분야에 집중 지원”

이 모듈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복잡한 언어 구조와 어휘, 곧 기술, 설명, 논증 및 “학습 언어”라 불리는 언어적 수단 등 언어 형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형식과 구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모듈은 예비적인 진단에서 문법 / 문장 구조와 어휘의 분야에서 위험군 아동으로 확인된 5~6세 유아들을 위해 주로 사용한다.

라) 모듈 E 4: “음운론적 인식에 대한 집중적 촉진”

이 모듈의 목적은 “위험군 아동”으로 예비 진단에서 확인된 소그룹의 5~6세 아동의 음운 인식과 문자 지식을 집중적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 모듈 E 5: “작은 그룹에서 대화체 독서를 통해 집중 언어(능력) 촉진”

이 모듈의 목적은 예비 진단에서 위험군 아동으로 드러난 아동들의 언어 이해,

어휘, 유창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특별한 형태의 그림책 관찰과 낭독을 활용하여 “대화식 읽기”로 불리는데, 언어적 표현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서 소그룹에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

바) 모듈 E 6: “예비 초등 교육에서 초등 교육으로의 전환”

이 모듈의 목표는 아동을 위한 언어 지원 활동 및 아동의 언어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지역 맥락에서 유아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모듈의 실행에는 유아를 내어 보내는 유아기관과 지역-지역 맥락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한다. 협력을 위한 조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친숙해지는 것이 핵심적 목표가 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협동의 중심 목표는 유아기관과 초등학교의 학습 문화를 상호 조율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연령대 아동들 간에 존재하는 학습의 차이를 너무 성급히 평균화하지 않아도 된다.

6) 권장 진단도구

가) 유아기관 이주 아동의 언어행동 및 언어관심에 대한 평가(Sismik)

이주 아동의 언어발달 관찰에 기반한 질적평가와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해당되는 모듈은 초등 이전의 E1·E3·E5·E6이며 대상 연령은 3, 4, 5, 6(7)세다. 표준화를 위해 2011년 12개 연방 주의 유아기관에 다니는 56개 언어 집단의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단도구는 소책자와 다음 4개 영역의 관찰시트로 구성된다. 평가 목적에 따라 관찰이 진행되므로 실행시간은 가변적이다.

- 언어가 관련된 상황에서의 언어 활용(예: 역할극, 소그룹 등)
- 독일어 능력에 대한 진단(예: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단어 간의 연결, 종속절 형성, 관사와 동사의 사용법 등을 관찰하고 기록)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행동(예: 독일어와 모국어 간의 전환, 더 오래 사용하는 언어 등) 관찰 및 기록
- 가족의 생활 모습이나 모국어 발달, 학교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문답을 통해 파악

나)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LiSe-DaZ)

LiSe-DaZ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과 3세에서 7세 사이의 제2 언어로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독일어 표현과 이해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 약 3년 동안 네 개의 사전 검사 양식을 개발하여 독일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아동 851명과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 30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표준화를 위해 가장 빠리는 24개월에서 가장 늦게는 47개월 사이에 독일어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접촉한 3세에서 7세 11개월까지의, 제2 언어로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아동 609명과 3세부터 6세 11개월까지의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30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아동들은 8개의 서로 다른 연방 주에서 표집되었다.

본 도구는 단일 언어 및 다언어 아동을 위한 별도의 표준을 갖고 있으며 다언어 아동이 독일어와 접촉한 기간을 고려한 유일한 진단도구다. 독일어가 제2 언어인 아동의 언어 능력을 독일어가 모국어인 같은 또래 아동들과 단순비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능력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단 결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시 반복 측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해당되는 모듈은 초등 이전의 E1, E3, E5 그리고 6, 7세 초등학생의 P1(일상적이고 실질적 상황에서의 언어 교육)과 P2(집중적 언어 구조적 촉진/지원)이다.

LiSe-DaZ는 언어 표현(4개의 하위 검사)과 언어 이해(3개의 하위 검사)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개별 하위 검사가 수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하위 검사 VB (동사의 의미 이해하기), 언어이해 모듈
- 하위 검사 SK (부가절), 언어 표현 모듈
- 하위 검사 SVK (주어 동사 일치), 언어 표현 모듈
- 하위 검사 WK (품사), 언어 표현 모듈
- 하위 검사 KAS (격[格]), 언어 표현 모듈
- 하위 검사 WF (W- 질문[영어로는 H- 질문]에 대한 이해), 언어이해 모듈

- 하위 검사 NEG (부정의 이해), 언어이해 모듈

다) 유치원 - 초등학교 전환기의 언어 지원 평가(SPRÜNGE)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기에 필요한 언어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서로 다른 BiSS 네트워크에서 사용한다. 프로젝트 팀은 전환기에 일상적으로 수행되거나 추가적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지원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한다. 또한 지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전문가의 언어 능숙도, 초등 이전 유아기관 교사와 초등 교사 간의 협력의 질, 부분적으로 공동 수행된 언어 학습 상호 작용의 질 등을 살펴본다. 다음의 검사를 통해 어떤 형태의 언어 지원(일상적으로 통합된 지원 혹은 추가적 지원)이 취학 전 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더 많은 교육과 협력에 특히 효과적인지 살펴본다.

- 언어 분야에 있어서 아동의 능력 및 전문가의 발달지원 역량 향상 검사
- 비디오 분석을 기반으로 선별된 유아기관 및 초등학교에서 언어 지원의 수준을 검사
- 전문가와 교사의 협력의 향상, 공동 연수를 통한 동기 부여, 직업적 신념 및 실질적 오리엔테이션 측면의 향상을 검사

4 호주²⁷⁾

호주는 2차 대전 이전에는 국가의 구성원이 주로 앵글로색슨과 호주 원주민으로 이루어졌으며 백인계 위주의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였다(박성혁·성상환, 2008).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인구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박성혁·성상환, 2008). 호주 정부는 1973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모든 공공정책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이

27)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associated-documents/eald_advice.pdf
(2018.07.18 인출)

는 학교교육에도 반영되어 공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박성혁·성상환, 2008).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도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각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영어교육을 지원한다(박성혁·성상환, 2008). 연방국가이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없으며 각 주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교과과정 안에 연방 수준에서 합의된 ‘학습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박성혁·성상환, 2008). 여기에서는 호주의 주요 도시인 시드니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실시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공교육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운영 배경 및 목적

언어는 의사소통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있어 영어 학습은 학교에서의 성공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후의 취업에 있어 필수적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30% 이상(240,000명 이상)이 영어외의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language background other than English:LBOTE), 약 20%(145,000명) 정도가 영어를 추가언어(English as Additional Language: EAL)로 배우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호주 원주민 학생들은 약 50,000명 정도로 이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호주 원주민 영어나 다른 형태의 표준적이지 않은 영어를 사용한다. 호주교육과정평가기관(The Austral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ACARA)에서는 이들 학생들이 표준 호주영어(SAE)를 마치 새로운 방언(Dialect)처럼 배워야 한다고 간주해 학급 내에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집단에 포함시킨다(Capability Framework p. 16)²⁸⁾.

언어를 추가언어로 혹은 방언으로 배워야 하는 이러한 EAL/D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은 그들의 영어 실력을 발달시키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 그들이 학교 교육에 온전히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28)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4에서 재인용

과 훈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EAL/D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취학 전 1년인 유치원과정(K)을 포함한 초등학교부터 제공된다. 영어를 학습하는 EAL/D 학생들의 다양한 단계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교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EAL/D 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K)에서 12학년에 이르기까지 새로 호주에서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은 물론 기존에 살고 있던 EAL/D 학생을 위해 초기의 영어 집중학습은 물론 집중학습 이후의 영어 학습까지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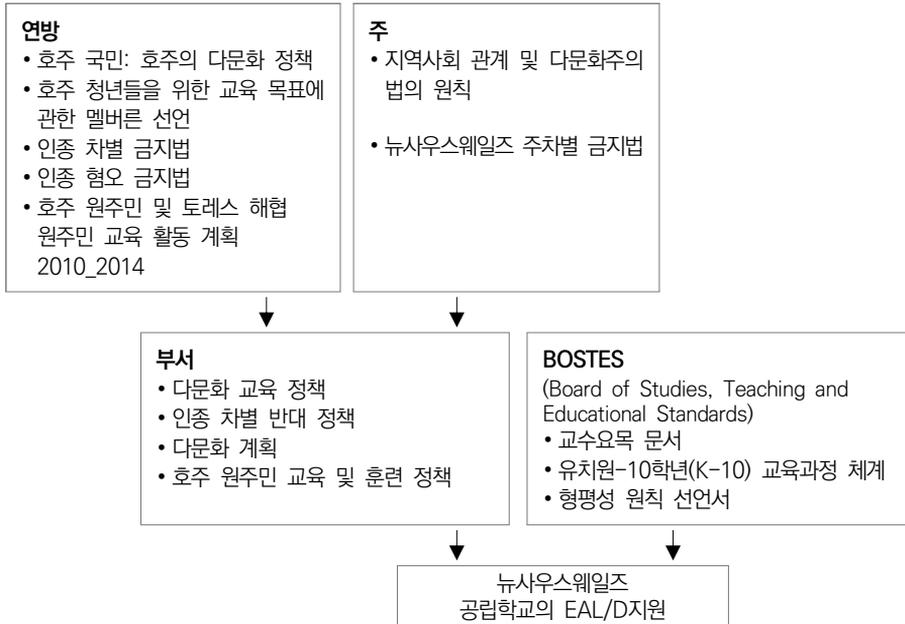
나. 관련 법령 및 정책

2000년에 제정된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에 준행해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내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EAL/D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특수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할 전략이 포함되며 다문화 정책과 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성취 정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다문화 교육 정책으로 EAL/D 학생들에 대한 영어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정책)

- 1.3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배경과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적 교육의 실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다른 문화와 종교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증진시킨다.
- 1.4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영어와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학교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한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1.5 학교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특정한 학습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교육방법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그림 III-4-1 || EAL/D 교육 관련 정책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5

다. 교육지원 대상자

1) EAL/D 학습자의 다양성

EAL/D 학습자는 제1 언어가 영어가 아니거나 호주 표준영어와 다른 방언으로, 공식 언어로서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또래들에 비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학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EAL/D 학생들은 학습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영어로 학습을 해야 하고 또한 영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는 EAL/D 학생들을 위해 영어 학습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EAL/D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과 EAL/D 기반 학급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EAL/D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EAL/D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AL/D 학습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호주나 국외 출생 학생으로 제1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구이민 온 경우
- 일시 체류를 위해 입국한 학생
-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
-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원주민 학생들로 제1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원주민 학생들로 제1 언어가 호주원주민 영어와 같이 호주 표준영어와는 다른 경우

EAL/D 학생들의 배경과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다양하다. 호주 학교에 입학하는 EAL/D 학생들의 사전 교육 경험이나 영어에 대한 지식수준도 다양하고 호주에서 출생한 학생은 물론 영구이민이나 일시 체류를 위해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난민이나 외국유학생도 포함된다.²⁹⁾

출신국에서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교육의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다. 제1 언어로 문해력을 갖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EAL/D 학생들의 입학 전 사전교육 경험이나 영어에 대한 학습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호주 유아기관에서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아기관 교사와 부모가 전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진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부록 5).

2) EAL/D 학습자의 특성³⁰⁾

-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다.

29) 서호주에서는 EAL/D 학습자에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민 온 경우나 유학, 일시체류를 위해 입국한 경우도 따로 명시하고 있음.

Department of Education WA(2015). Early Childhood EAL/D Progress Map- Kindergarten - Year 2. http://det.wa.edu.au/curriculumsupport/eald/detcms/cms-service/download/asset/?asset_id=18126600(2018.07.31 인출)

30) ACARA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Resource,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7에서 재인용하여 요약함.

- 이미 영어 외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언어(나 방언)를 구사한다. 이러한 언어 지식은 추가적인 언어를 배울 때 유리하며 학생의 생활상 경험 및 다양한 문화적 지식과 함께 영어 학습이나 문해력, 교육적 발달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 학습 영어 능력은 우수하지만, 영어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호주의 학급에 배치된다. 그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이나 생활 경험이 영어 실력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 외지의 시골이나 호주의 대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살 수 있으며, 학습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각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외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3) EAL/D 학생들 중 추가적인 학습요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에 새로 도착한 EAL/D 학생들로 매우 다양하다.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한된 문해력을 가진 학생들, 정규교육을 통해 모국어의 언어 능력이나 문해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이민 학생들까지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초기 적응 지원에서부터 새로운 교우관계와 교직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정들을 도입해야만 한다. 또한 학교 입학 시 혹은 입학 직후 영어 능력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EAL/D 지원 수준과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만 한다.

4) EAL/D 지원이 필요한 난민 학생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경우에 난민이나 인도주의적 입국자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호주에 새로 도착한 대부분의 다른 EAL/D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교육적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이 요구된다. 호주에 도착하기 전 제한된 교육을 받았거나 중단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공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도 매우 적을 수 있으며 모국어의 문해 능력도 제한적이고 난민 생활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복잡한 복지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교육이 중단되었던 학생들의 경우 추가적인 EAL/D와 문해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데 기반이

될만한 모국어의 문해 능력과 내용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또래들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능력이나 학습 성취를 이루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 EAL/D 학습자의 학업적 진보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에서는 EAL/D 학생들을 EAL/D 학습진보(Learning Progression)의 4단계(기초, 진전, 발달, 강화) 중 하나로 구분한다.

표 III-4-1 EAL/D 학습자의 학업적 진보

단계	설명
1. 기초 영어	학생들은 자신의 제1 언어에 있어 문자에 대한 약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유치원 학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기초 영어 (제한된 문해 능력)	읽기 및 보기 그리고 쓰기 영역의 하위분류로, 어느 언어로도 문해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주 적은 경우다.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 진전 영어	영어 구사 능력과 문자 영어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3. 발달 영어	영어 구사 능력과 문자 영어에 대한 지식이 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4. 강화 영어	학습 목적의 영어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포함해서 음성 영어는 물론 문자 영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7

6) EAL/D 학습자 지원의 중요성

Jim Cummins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살게 된 EAL/D 학생이 기본적 대인 간 의사소통 기술(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BICS)에 능숙해지는데 최대 2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인지/학술적 언어 능력(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 의 발달에는 EAL/D 전문가의 지원 하에 5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신적 외상이나 학교 교육에 지장을 받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언어에 숙달하는데 1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EAL/D 학생들이 교과 과정 언어를 익히고 학습에 임하기 위해서는, 단기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넘어서서 전문가의 EAL/D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라. 운영전략

1) 전체 학교 차원의 접근

학교에서 EAL/D 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각 학교의 EAL/D 학생 지원 운영 방식은 EAL/D 학생의 수, 그들의 영어 학습 요구도, 각 학년 및 학급별 분포, 그리고 재직 중인 EAL/D 전문 교사의 수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EAL/D 학생 지원은 EAL/D 교사들이 EAL/D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 교사 및 다른 특수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학교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지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모든 교사들은 차별화된 학습을 촉진하고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지적이고 안전한 수업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학교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모두 수용적일 수 있게, 반인종주의적, 반차별주의적 학습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학교는 반인종주의, 반차별 정책 및 인권 법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교직원은 반인종주의적, 포괄적인 행동을 모델링하고 옹호함으로써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EAL/D 학생의 등록

EAL/D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 시 학생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배경정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등록 번호(Enrolment and Registration Number :ERN)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작성한 신청서의 자료는 학교에 입학한 후 ERN에 입력된다. 이러한 학생 등록 신청서 양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2017년 4월 현재 36개 언어로 제공됨). 학교에서는 가장 최근의 양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 등록 신청서의 한국어 양식은 작성 안내문을 포함해서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6).

- 영어 이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출생 국가
- 학생의 호주 거주 자격: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 혹은 일시 비자 소지자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호주에 입국한 시기/
- 유치원 입학 전년도에 경험한 가정 외 돌봄 및 다녔던 유아기관 유형

학교는 등록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역이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통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국어로 안내한다(부록 7).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이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통역사도 제공된다.

4) 성취평정 및 도구

가) 언어 능력 평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데 EAL/D 학습 진보(EAL/D Learning progression)를 사용해야 한다. 이 도구는 EAL/D 전문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EAL/D 학생들의 전형적인 영어 학습 진행 과정을 제시한다. 이 도구를 사용해 EAL/D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다음 4단계-기초, 진전, 발달, 강화- 중 하나로 분류하고 부모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한다(부록 8).

교사는 EAL/D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포함해서 수업 활동 중에 관찰한 사례를 가지고, EAL/D 학습 진보 단계에서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부합되는 언어적 요소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영역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사는 EAL/D 학습 진보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 EAL/D 학생들이 위치한 다양한 영어 학습 단계에 대한 이해

- EAL/D 학생들이 어느 진행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보기 및 쓰기 기술을 확인함으로써 언어적 진도를 모니터링

나)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보고

(1) EAL/D 학생들의 ERN 관리

학교는 LBOTE 설문조사, EAL/D 연간 조사 그리고 EAL/D 새로운 도착 프로그램 설문조사의 완료를 위해 매해 정해진 시기에 LBOTE 및 ERN의 EAL/D 학생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EAL/D 유지 관리에 대한 접근권은 ERN Access Management Utility를 통해 교장에 의해 제공되며 교사는 필요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의 EAL/D 단계와 마지막 평가 날짜는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 영어 이외의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LBOTE)에 대한 조사

매년 1학기에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LBOTE)를 ERN에서 수집한다. 학교에서는 이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다양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교육 실재와 자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3) EAL/D 연간 조사

뉴사우스웨일스의 모든 공립 학교에 대한 EAL/D 연간 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영어 능력을 위한 형평성 기금”의 할당이 검토된다.

- 영어 이외의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 수(LBOTE)
- 그 학생들이 호주 학교에 재학한 기간
- 영어 이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LBOTE) 중 EAL/D 학습자로 파악된 수
- 개별 EAL/D 학습자의 EAL/D 단계 수준(기초, 진전, 발달, 강화)
- EAL/D 지원을 받고 있는 EAL/D 학생의 수

모든 학생들의 최근 6개월 이내에 결정되거나 수정된 영어 능력 수준이 4단계

중 하나이거나 EAL/D 지원 불필요로 나와야 한다. 학생들이 EAL/D 학습 진보 단계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표 III-4-2 ▣ 학습 진보 단계 소요 평균 시간

단계	평균 시간
기초	6~9개월(1년)
진전	1~2년
발달	2~5년
강화	5~7년 이상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14

5) EAL/D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가) 영어 능력 기금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oading

EAL/D 연간 조사를 바탕으로 재원 할당 모델(Resource Allocation Model: RAM)에 따라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형평성 기금이 학교에 제공된다.

재정을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EAL/D 지침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EAL/D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해야 하며 영어를 추가적인 언어나 방언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향상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나) 신규 이주자나 난민인 개별 학생 대상 자금 지원

영어 능력 기금 외에도, 호주에 새로 도착하거나 난민인 학생들에게 특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 NAP(새 도착자 프로그램) 지원 신청

EAL/D New Arrivals Program(NAP)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집중 영어 센터에서 새로 도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 영어 수업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도착한 EAL/D 학생들의 영어 기술을 향상시켜 일반 학급에서 또

래들과 함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P(새 도착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 호주에 도착한 6개월 이내(유치원은 18개월)에 첫 번째 학교에 등록
- 초기 집중적인 영어 지원 필요(즉, 기초 단계 또는 진전 단계에 있음)
- 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승인된 임시 거주자 비자 소유자여야 한다.

라) 난민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난민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학교들에 배정된다. 학교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영어 집중 수업 및 이중언어, 문해 및 수학 교육 지원, 멘토링, 과외, 정착과 복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난민 출신으로 새로 호주에 정착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NAP 학습 지원과 이중언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난민 출신 학생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주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호주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기 3년 동안 추가적인 재원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영어 집중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6) EAL/D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식

EAL/D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EAL/D 학생들의 수, 그들의 현재 영어 수준, 학생들의 학년 및 학급 배치 그리고 EAL/D 교사 및 EAL/D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유무에 따라 학교마다 다양하다. EAL/D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마다 자신의 학교에 재학 중인 서로 다른 집단의 EAL/D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들은 다음의 세 가지 EAL/D 지도 방식을 조합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직접적, 협력적 그리고 자원 활용방식이다.

가) 직접적인 EAL/D 지도 방식

직접적인 지도 방식은 EAL/D 학생들을 속해 있는 학급이나 학년의 또래들로

부터 분리하여 영어를 따로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 예로는 개별지도나 분리 수업, 선택 수업이나 병행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 표 III-4-3 ▣ 직접적 지도 방식

유형	내용
병행 모델	초등학교의 EAL/D 읽기 집단의 예와 같이 EAL/D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급을 EAL/D 전문교사가 따로 언어 발달에 주안점을 두면서 교과과정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특정한 주제 영역에서 고등학교의 병행 학급이 해당된다.
선택 모델	EAL/D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과목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예: 기본 영어
개별지도 혹은 분리 모델	중중 다른 학급 또는 학년의 학생들을 모아 일정 기간 동안 보다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예를 들어 새로 호주에 도착한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에서의) 집중 학급이나 새로 도착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연계 학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17

나) 협력적인 지도방식

협력적인 지도방식은 EAL/D 교사들과 담임교사 혹은 과목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실시, 지도, 사정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 표 III-4-4 ▣ 협력적 지도 방식

유형	내용
합동 교육 혹은 팀 교육 방식	EAL/D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학급 교사와 EAL/D 교사가 동등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EAL/D 교사와 2학년 교사가 HSIE 프로그램을 함께 가르치거나 EAL/D 교사와 10학년 영어교사가 10학년 영어 수업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해당된다.
집단 교육 방식	담임 교사와 EAL/D 교사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 교사 모두 교실 내의 소규모 집단과 함께 협력해서 계획한 지도와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18

다) 자원으로서의 EAL/D 교육 방식: 지도자로서의 EAL/D 교사

자원으로서의 EAL/D 교육 방식에는 EAL/D 교사의 전문성을 개별 교사나 학교 전체 교직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표 III-4-5 자원으로서의 EAL/D 교육방식

유형	내용
교사 발달 모델	EAL/D 교사는 EAL/D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급 교사들을 위해 자료를 개발 혹은 조정하고 전문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학교 발달 모델	EAL/D 교사들이 제공한 조언이 EAL/D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적용된다.

자료: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p.18

7) EAL/D 학생 지원 개요

EAL/D 학생에 대한 지원은 EAL/D 학생들의 수, 그들의 영어 능력 수준, 그리고 EAL/D 전문교사의 배정 여부와 학교의 일정표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 EAL/D 학생과 그들의 요구를 식별
- 우선순위 결정
- 관련 교직원들과 함께 가장 적합한 지원 모델에 대해 논의
- EAL/D 학생의 요구수준에 따라 EAL/D 시간을 배정
- 일정표를 시험적으로 운영
- 필요한 경우 일정표를 수정한 뒤 관련되는 모든 직원들과 공유
- 매 학기 혹은 필요에 따라 일정표를 재검토

8) 평가와 책무성

교장은 EAL/D 학생 지원 전략의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ELP 기금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

학교가 효율적인 EAL/D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점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EAL/D 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점검표(EAL/D School Evaluation Framework)가 개발되었다. 학교는 6개 범주(학교의 계획과 운영 실제 및 과정,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학습 문화 및 복지, 교육과정과 평가 및 보고, 자료에 기초한 효율적

학급 운영, 교사의 전문적 수준 및 연수)에 걸쳐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수한 단계까지 4단계로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EAL/D 학생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과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각 범주에서 보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영역이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마.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및 책임

1) 교장

교장은 EAL/D 학생 지원 전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형평성 기금이 제한된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 학교의 연간 보고서를 통해 EAL/D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항들과 그 성취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학교의 EAL/D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EAL/D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교육의 실체가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하면 EAL/D를 가르치는 자리는 EAL/D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2) EAL/D 감독자 (슈퍼바이저)

EAL/D 감독자는 EAL/D 지원이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과 계획 그리고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EAL/D 전문 교사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통해 지원한다. EAL/D 전문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지원하고, EAL/D 전문가와 학교 교사들 간의 협력 교육을 촉진한다.

3) 학급 교사들

학급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EAL/D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EAL/D 학습 진보(EAL/D Learning Progression)를 사용하여 EAL/D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파악한다. EAL/D 학생들의 영어와 문해 학습 요구를 다룰 수 있는 차별화된 교수 프로그램과 실제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에 참여하고, EAL/D 전문 교사와 상담사 그리고 다른 관련 직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EAL/D 학생들에 대한 지원, 평가 그리고 보고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한다.

4) EAL/D 전문 교사

EAL/D 전문 교사는 EAL/D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기반 영어 교수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특별한 영어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들에 배정된다.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지원하는 데 있어 EAL/D 교사들은 EAL/D 학생들의 영어와 문해 학습에 집중한다. 또한 학급 교사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EAL/D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학급과 과목별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바. EAL/D 프로그램의 운영

1) EAL/D 전문가 인증

호주 TESOL 협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EAL/D 전문가 인증 과정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2) EAL/D 교육과 학습의 주요 원칙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의 EAL/D 교육과 학습의 주요 원칙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언어는 다양한 문맥에서 의미 있는 사용을 통해 학습되므로 교육과정 안에서 글과 언어의 발달을 위한 진정한 맥락을 제공한다.
- EAL/D 학습자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 영역마다 특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나 언어 지식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 측면과 학습적 측면이 뚜렷이 나뉘며 EAL/D 학생이 제2 언어나 추가 언어로 기본 의사소통 기술에 능숙해지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인지적/학습 언어 능력의 발달에는 EAL/D 지원이 있을 경우에 5~7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EAL/D 전문가의 지원이 집중적인 영어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 구두 상호작용은 제2 언어 학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는 제2 언어 학습을 지원한다.

- EAL/D 전문 교사와 학급 교사 간의 공동 계획과 팀 티칭을 활용한다. 공동계획은 수업 계획서 전반에 걸쳐서 혹은 단원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 팀 티칭 교사들은 계획, 교육 및 학생 평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집단 지도와 개별 지도등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부모/양육자 그리고 공동체와의 소통

학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가정과 학교 간에 긍정적인 문화적 연관성이 있을 때 학생들의 성취도가 더 높다.

-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모나 양육자를 위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³¹⁾
- 학교 공동체에 부모를 참여시킨다.
-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을 제공한다.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는 새로운 이민 및 난민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4)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에서 EAL/D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EAL/D 학생을 새로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EAL/D 학습자를 식별하고, EAL/D 교육 및 도구에 익숙해지고,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EAL/D 신규 도착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에 새로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비디오 컨퍼런스 및 Adobe Connec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매 해 제공된다.
- 영어 학습자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Language Learners:TELL)은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들이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훈련받은 촉진자에 의해 진행되며 6개의 2시간짜리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목에서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31) 교육청의 많은 문서들이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교육청 홈페이지의 문서번역본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부모들에게 알려주거나 배부해야 한다. <http://www.schools.nsw.edu.au/languagesupport/language/index.php>

- 내 교실에서 난민 교육하기(TRIMC)는 유치원부터 12학년(K-12)에 이르기까지 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5개 강좌로 구성되며, 각 강좌는 2시간이다.
- ‘긍정적인 행동과 학습 촉진: 학교에서 난민 학생들을 지원하기’는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정착하는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한 예방적 지원을 통해 학교들이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어 및 문어 영어 교육(CSWE) 자격증을 온라인학습을 통해 받은 후 반드시 2일 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5 소결

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독일 그리고 미주지역인 캐나다와 호주의 국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에 따라 제2 언어로의 국가 공식 언어 교육 지원 대상자가 다르다. 일본은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 대상에 일본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은 물론 해외에서 귀국한 일본 학생 더 나아가서는 재외 일본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아동들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취학 전인 유치원생은 공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은 취학 전 유치원이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영유아시기부터 독일어가 제1 언어가 아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 즉 독일어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은 물론 부모 세대가 이주경험이 있으며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기관에서의 독일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연방 주마다 공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1년에서 1년 반 전에 취학 예정인 학교에 등록해서 독일어 수준을 평가받은 후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어교육을 받은 후 입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독일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도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유치원과정부터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캐나다는 만 4세부터, 호주는 만 5세부터 유치원이 시작된다. 캐나다와 호주는 제1 언어가 영어가 아닌 유아는 물론이고 유아가 사용하는 영어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 영어와 다를 경우 영어학습자에 포함시켜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을 제외

한 독일과 캐나다, 호주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제1 언어가 그 사회의 공식 언어가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기의 언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제1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지원 대상자에 재한 외국인 가정의 유아,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유아, 표준 한국어와 다른 한국어를 구사하는 유아(예를 들면 재외동포나 북한이탈 가정의 유아), 해외귀국자녀 중 누구나 지를 포함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제2 언어로의 국가 공식 언어 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어느 특정 교육 단계에서 단기간의 집중교육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5세 아동의 독일어 읽기와 학습에 대한 평가에서 OECD 국가 중 아주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로 터키계 아동들의 낮은 독일어 수준이 제기되었고 이후 연방 차원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취학 전 유아기관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모델 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예비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는 언어교육 모듈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공교육이 시작되는 만 5세의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정 및 평가절차를 각 연방 주마다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제2 언어로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유아에게는 초기의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먼저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아가 한국어를 “학습 언어”로 사용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별도의 유치원 혹은 분리된 학급에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 후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급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유아가 자신의 원래 학급에서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인 유아 본인은 물론 또래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독

일의 경우를 보면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운 학생들이 제1언어가 한국어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독일처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의 전체적인 교육과정 틀 안에서 한국어교육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유치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호주의 경우 영어학습자의 교육에 있어 계획과 운영,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치원과정부에서 시작하는 공립학교는 교장의 책임 하에 영어 학습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시작해서 매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학교 전체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며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전체 계획에 포함된 영어학습자의 지원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는 계획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 정부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평가보고서의 양식에 맞추어 평가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어학습자의 영어 능력 진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제2 언어로 한국어를 교육해야 하는 유아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전체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에 그 유아들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 후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독일과 캐나다, 호주 모두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초등학생의 언어 수준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1년에서 1년 반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등록하여 언어수준을 평가받고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어 교육을 받은 후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수준 평가는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는 유아를 포함해 모든 유아들에게 요구되며 바이에른주처럼 취학 전 1년간의 독일어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가 늘고 있다.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언어발달을 포함한 아동 발달 상태를 평가한 후 그 내용을 유아가 진학하는 초등학교에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완료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평가에서 기관 간 전달까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를 통해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유아들부터라도 취학 전 한국어 수준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 과정에서 국가 공식 언어를 제2 언어로 교육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아들의 언어진단 도구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언어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평가결과에 대해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독일은 2016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연방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진단 도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등 교육 전 평가를 위해 ‘유아기관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유아의 언어 행동 및 언어에 대한 관심’을 진단하는 도구나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 능력을 진단하는 ‘언어별 언어 현황 조사’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의 언어 지원 평가’ 등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평정도구 개발에 유아의 연령에 따른 특성은 물론 독일어와 접촉 기간 등 독일어가 제1 언어가 아닌 독일어 학습자의 발달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어가 제1 언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유치원의 일반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아들의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교육 유형도 다양하다. 호주의 경우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유아를 위한 전문교사, 지도자, 슈퍼바이저 등이 있으며 근무 유형도 풀타임 교사와 시간제 교사, 순회교사 등 다양하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보다는 풀타임 교사를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주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닐 경우 유아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풀타임 전문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교사의 영어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 직무 연수(출석 연구, 온라인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아기관에서의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내 유아기관과 대학 등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언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아기관에 소속되어 교사들이 독일어 학습자인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어전문가도 있고 여러 유아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상담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유아교육현장에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발달이나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발달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해야 하는 유아가 있는 유치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직무연수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유아 대상 한국어 방문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 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유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치원의 경우 상주하는 언어교육 전문가를 지원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지역 내 몇 개 유치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국외의 경우 유치원 과정에서는 제2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만을 위한 완전 분리학급보다는 모든 유아를 위한 학급에서 통합적인 언어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나 소집단 지도, 집단 교육 방식이나 합동 교육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유아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학습공동체가 유치원이고 그곳에서 장차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점을 고려하면 제1 언어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나누어지고 다르게 취급받기 보다는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별유아마다 언어적 지원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부모와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모든 국외사례에서 자녀의 제2 언어교육에 있어 부모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번역서비스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현장 통역사를 제공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통역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치원에서의 상담 시 현장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지원하거나 전화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누리

콜센터의 전화 통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부모를 위해 학교 등록 원서 등 중요한 서류의 다국어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취학 안내서 정도가 몇 개 나라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약 40개 나라의 언어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다양해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언어를 고려해 중요 서류에 대한 다국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 요구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 증가
2.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 향상
3. 유아 한국어능력 진단 및 평가
4.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 요구
5. 소결



I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 요구

본 장에서는 현재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원감, 교사, 교육전문가와와의 심층 면담과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지원 필요성,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 양상, 유아 한국어 능력 진단 및 평가,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 증가

유치원의 한국어 지원 필요성은 유치원 내 다문화 및 외국인 유아 비율의 증가, 유아와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및 교육 활동 추진 어려움, 유치원 학급 내 유아 역동의 변화,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요구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가. 유치원 내 외국인가정 유아 증가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진 만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교육 요구 증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가정 비율의 증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 보고되는 가운데, 특히 부모 모두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단지역과 기존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내 아동의 비율보다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언어적 측면도 그렇고, 외국인이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다국적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고 작년보다, 그 분포도가 많이 원곡같이 저희도 지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8%나 늘어났고, 다문화 아이들도...(유치원 원감 1).

저희 유치원은... 다문화 비율이 지금 현재 65%입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연령들을 보면 최소 56%에서 많은 데는 69% 거의 70%입니다. 그중(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가정이 76%입니다(유치원 원감 2).

76%가 외국인. 외국인 가정이고, 저희가 또 부모 출신국을 보면 중국이 53% 제일 많고요, 러시아 있고 우즈베키스탄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호주까지 구성돼있었습니다(유치원 원감 2).

00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42%였는데 올해는 50%까지 늘어났어요. 전체 원아 백몇 명중에 53명이 다문화 아이들인데요, 외국인은 42명으로 79%구요, 다문화 가정 유아가 11명 21%예요.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러시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분포되어 있구요(유치원 원감 1).

본원이 위치한 지역 내에 외국인 이주민 단지 및 00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부모의 생계를 위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아의 취원율이 급증하는 추세이다(유치원 교사 4).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몇 년 전 외국인 유아들이 다니던 월드비전 교육기관이 없어지면서 주변 학교 및 유치원으로 외국인 유아들이 들어오게 됨. 부모가 모두 외국인(주로 나이지리아)으로 한국어에 대한 노출 및 교육이 전혀 없이 한국 공교육으로 들어오다 보니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함. 현재 13명 중 1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율이 85%를 차지함(유치원 교사 5).

저희는 17명 중에서 6명은 한국 국적이구요. 나머지는 국적 자체가 외국이에요. 아이들이 거의 한국말을 못 해요. 제가 아이들 오면 비자를 봐요. 출입국 관리소 가서 빠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 그런 일이 있어요(유치원 교사 6).

(외국인가정 배경 다양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출신 국적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특징이라고 보면 예전에는 중국 동포 조선족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현상은 중국동포는 안성 시내 쪽으로 많이 빠지고 고려인 후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스탄, 이런 고려인 후손들이 집성촌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도 전에는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2~30%. 그러다가 작년에 50%를 넘었구요. 초등은 이제 50%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60~70% 이렇게 되어서(유치원 교사 6).

그런 거를 원인이 뭐냐... 교감단 회의에서 들어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구요. 이제 중국 분들은, 동포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는 한 40만 명이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유치원 원감 1).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과 좀 다른 게 차츰 00등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 중국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과 나라가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도입국자가 4명이나 생겼어요(유치원 원감 2).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 오는데 또 문화적 차이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아이들은 교육열이 그래도 어머님들이 높으세요.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이든가, 뭔가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는 조금 다르다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약간 더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유치원 원감 1).

중국 어머니들은 교육을 원하시고,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중국 어머니들은 뭔가를 가르쳐주세요, 뭘 배워주세요 이러니까 저희가 하면 흡수를 잘하시는데 그분(우즈베키스탄 러시아)들은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유치원 원감 1).

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교사의 다문화 가정 유아와 소통 어려움) 한국어 사용이 많지 않은 외국인가정의 유아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교사의 지원에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낮은 유치원 환경에의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이 교사로서 하여금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수적임을 체감하게 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인데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해요. 부모님들하고도 의사소통을 전혀 못 하고, 그래도 중국 교포라서 어느 정도 말은 좀 통하고 말이 좀 미숙할 뿐이지 그렇게 힘든 점은 의외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별로 맞춤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애네들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너무 낯설고. 표정부터 애들이 겁을 먹어있고,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울면서 안 들어오겠다고 (유치원 원감 2).

그 아이들이 교실까지 들어오는 것도 참 힘든 작업이고 또 선생님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가, 무엇이, 이렇게 배가 아프고 표정이 안 좋아도,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플 건지 화가 난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 집중을 하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요. 그리고 아무 활동에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이제, 교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점이 제일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중도입국에 대한 전혀 한국어를 못 하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 진짜 모를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유아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유치원 교사 2).

중도입국 유아들은 한국어 능력이 약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한국어로 표현하는 기회가 적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또래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유치원 원감 3).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유치원예의 흥미 저하) 외국에서 근로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가정이 많다. 자녀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유치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유치원 등원을 꺼리기도 한다. 또한 부모도 유치원예는 부모의 근로 시간 동안 자녀 돌봄 공백을 메워주길 기대하기도 한다.

가정환경을 보면 다들 외국인들은 돈을 벌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교육보다도 긴 시간 봐주기를... 긴 시간 유치원에서만 있어 주면 되는 거다 그냥 안전하게. 돌봄 위주로 만을 원하시는 느낌이에요 저희한테(유치원 원감 1).

(교사-부모 간 소통의 어려움) 교사들은 외국인가정 유아와의 소통뿐 아니라 부모와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무엇보다 부모,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한 유치원에서의 교육 활동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네, 다누리 센터. 통역. 해서 저희가 러시아라던가 인도네시아, 안되는 이중언어 강사 없는 데는 3자 통화를. 그런데 유치원은 엄마하고 관계가 참 중요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유치원 교사 2).

애들은 6개월 지나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선생님들이. 끝까지 엄마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유치원 원감 1).

아이들 가정환경이라던가 상태,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 거에 대한 걸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중 언어 강사를 통해서 상담을 할 때 옆에 세워놓고 같이 물어봐요. 개는 집에서 뭘 하나, 이거는 먹냐 뭐 어찌냐, 집에선 무엇을 하나, 집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유치원은 특히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유치원 교사 1).

다. 외국인 유아의 발달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

(유아기 발달에 언어발달 의사소통이 영향이 큼) 교육전문가나 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 측면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의 한국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아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표현을 원활히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관계에서 위축되어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 이런 이유에서 이른 시기에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으로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교육전문가 2).

(외국인 가정 내 교육적 여건 부족) 교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정의 유아들이 양질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만난다고 이야기하였다.

서로 다른 학력 및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상 유아들이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지역의 다문화 유아의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교육전문가 2).

다문화 중에서도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2교대 근무 가정의 유아들은 더욱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음 이들은 보호자의 무관심과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교육전문가 2).

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증가로 인한 유치원에서의 변화

(유아 간 배려가 보임)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가정 유아,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유아들은 편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아이들은 어떨까... 배려를 더 잘해준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감수성이,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 유아들) 특수 애들처럼 자기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못 해도... 바깥에 나갈 때 자기가 챙겨서 바깥에 나간다면,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구나 하고...(유치원 원감 1).

(부모들은 외국인 가정 유아 증가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 부모들은 유치원에 다문화 외국인 가정 유아의 증가로 이와 관련한 부분의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다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유아가 많아 좀 수준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분도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유아와 생활하기 때문에) 애들이 배려심이 뛰어나다. 지금부터 다문화적인 감수성도 길러주고 이렇게 좋은, 함께 가야되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유치원 교사 2).

부모님들은 조금 약간, 다문화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는 다문화 유치원이 올해지만, 작년 재작년은 이제 다문화연구학교를 하니까, 다문화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불만은 있죠. 그래서 많이 지원을,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가 지원을 덜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유치원 교사 1).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 엄마들은 기초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다문화 아이들 때문에, 좀 수준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갖고 계신 일반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학기 초에 좀 이동이 있었어요(유치원 교사 3).

그런데 그 반에 아이들이 거의 한국어가 안되는 아이들인데 다행히 두 명의 한국인 어머니가 애가 유치원을 갔더니 러시아어를 해서... 뭔가 국제 유치원 보내는 거 같은 부딪힘을 느끼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스러워요(유치원 원감 2).

(외국인가정 유아들이 교실에서 주도권 지님) 외국인가정의 유아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 의사소통 등 교실 내 주도권이 외국인가정 유아들에게 넘어가고 오히려 일반가정 유아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작년에 50%일 때는 짝꿍 할 때 외국 애랑 한국 애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지가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유치원 교사 6).

이젠 한국 애들이 입을 다물어요. 주도권이 러시아권으로 넘어갔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 더 불쌍해. 주도권이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우리 유치원은 러시아 애들 너무 많기 때문에 개네들끼리 떠들지 한국말 안 배워요(유치원 교사 6).

2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 양상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유치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교육지원의 양상을 학급의 운영

형태, 한국어교육 강사, 교육청 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통합학급으로 운영하며 주로 방과 후 과정 활용

외국인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 유치원에서는 일과 중에는 외국인가정 유아들과 비다문화가정 유아들이 함께 통합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방과후 시간에는 다문화 언어강사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하였다.

통합해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이중언어 선생님들과 통역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일차적으로 평가를 해요. 듣기, 말하기, 쓰기를... 보통 기본교육 시간이 아니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방과 후 시간...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한테 또 두 집단으로 수준을 나눠달라고 합니다(유치원 원감 1).

그럴 때 저희 학습준비도 검사라든가, 또 놀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개발해서 아이들 수준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놀이를 통한, 동화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교재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유치원 원감 1).

나. 통합언어교육과 개별언어교육 병행

통합언어교육은 누리과정 의사소통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화를 주제로 유치원 교사가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개별언어교육은 다문화유치원 언어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강사 등과 연계하여 각 반별로 자유선택 시간에 매일 10분간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대일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한국어교육 방법을 크게 개별언어교육과 통합언어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언어교육은 누리과정 안에서, 학급 안에서 의사소통 영역 하위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동화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서 수준별로 진행된 다음에 통합하면서 신체나 게임, 미술 활동을 통합으로 놀이로 접근하고 있어요(유치원 교사 2).

그리고 개별언어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지원 차원에서 받는 다문화 유치원 예산으로 다문화 언어강사랑 통합강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 저희 각 반별로 자유선택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10분간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대일 한국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일 일어나는 거구요, 다문화 센터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강사를 활용을 해서 오전에 교육과정 실시하고 주

1회 오후 시간에 40분씩 개별 아이랑 매주 수요일에 한국어 수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 기준은 반별 교사가 추천한 아이들을 검사를 실시하고 객관화된 언어분석 도구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세 명을 선별을 했습니다(유치원 교사 2).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개별화 언어교육 실시하고(한국어 강사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모국어로 교수), 대소집단활동을 통해 언어 통합교육을 진행하며(한국어로 교수), 00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가 일주일에 2회, 1명을 대상으로 개별화 언어교육을 한다(유치원 교사 5).

다. 한 학급 병설 유치원의 한국어교육 지원

외국인의 거주가 밀집된 지역의 한 학급 병설유치원의 경우 비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외국인가정 유아가 주류를 이루기도 하여 교사가 학급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배경도 다양해져서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에 다문화 언어강사를 지원받아 정규과정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약 10분씩 개별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과 연계하여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다문화 유치원 예산으로 언어강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저희 지금 전체 원아는 13명이구요 한 학급이에요. 그중에서 11명이 외국인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은 나이지리아랑 파키스탄 친구들. 파키스탄은 그중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나이지리아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다문화 유치원이 되어서 작년에 한국어 강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정규과정 시간에 유아별로 한 10분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언어강사가 저희가 그 유아교육과 말고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가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어있었던 터라 유치원도 보시고 혹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겠다 하셔서 작년에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지원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돼서...(유치원 교사 5).

라.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다문화언어강사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 채용하여 유아 당 10분 정도의 개별학습지원을 매일 진행하였다.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강사이고, 다문화언어강사를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을 두 명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채용을 3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해서 일반과정 아이들은 자유선택 시간에서

10분씩 하도록 하고 방과 후 친구들은 오후 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10분씩 해서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분이 다른 거죠. 아이들은, 받는 아이 입장에선 10분을 하고 간 거고, 유치원 입장에선 두 분의 강사님이 계신 거죠. 매일이요, 매일(유치원 원감 2).

한 번은 제가 최대 참여 욕심을 좀 냈어요. 그런데, 10분씩 했을 때 한 13명에서 14명 정도 되구요. 그리고 작년에 30명 정도 아이들이 받았던 거죠. 한 반에 13명에서 14명에서, 최대 15명. 네. 일대일 했지만 어떤 친구는 짝이랑 같이 했지요... 잘하는 친구들은 만 5세 2학기 갔을 때는 짝이랑 같이 보냈어요. 여기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유치원 되면서 너무 좋게 지원비가 있어서 강사 채용해서 활용했고 지금 한국어 강사 요청해서...(유치원 원감 2).

그런데 저희도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 분은 아침에 등원할 때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등원 시간 좀 지나고 나서는 자유선택활동에 각 반에 반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반에서 도움을 좀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유선택활동 할 때 조금 소통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통역도 해주시고 조금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아이들은 이중언어를 좀 발달, 개발할 수 있게... 뭐, 중국어로 된 간단한 말이나 그런 거. 한국어랑 병행해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유치원 교사 3).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강사는 주당 14시간 근무하도록 되었는데, 유아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지원하는 등 그 이상의 업무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또 개별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이 어려워 도교육청에서 채용하여 파견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중언어 강사도 그렇고 한국어 강사도 두 분 다 14시간 미만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유치원 교사 7).

근데 이분은 너무 잘하시니까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아지니까 14시간보다 훨씬 몇 배로 일을 하세요. 왜냐면 오는 시간 이외에도 문자 카톡으로. 내가 미안한 거야.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사실 유치원은 관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딴겠어요(유치원 교사 6).

이중언어 강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채용해서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애들 많은 곳에는 중국 이중언어 강사나(유치원 교사 7).

마. 교육청 외 지원기관과의 연계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지원은 교육청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센터 등과 같이 외국인지원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진단검사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언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당연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했는데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애들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입력하는 게 있어가지고 검사 결과 값에 맞춰서 아이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일단은 세 명의 아이들이어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40분씩 주 1회씩...그리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더라고요 한번 등록이 되면(유치원 교사 2).

네, 지원센터에는 언어치료를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아이의 발음이라든지 더 언어적으로 접근을 체계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유치원 교사 2).

저희도 작년까지는 중국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다른 국가들은 다문화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한국어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상관없었는데 외국어로 전혀 안 통하는 언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의 상태는 많이 좀, 상담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전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다누리센터라는 곳에 그게 잘 되어있더라고요(유치원 교사 1).

3 유아 한국어능력 진단 및 평가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진단척도, 교육용 교재, 교육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언어 검사 도구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능력 진단은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유아용 언어발달 진단 도구들의 사용이 교사에게는 쉽지 않다. 필요에 의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누리과정 의사소통영역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진단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 진단을 하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도구는... REDT하고 KMB CDI로 두 가지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어머님들께 전달하고 필요한 상담을 드릴 때 객관적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객관화된 도구를 교사가 사용하기에는 신뢰도라던지... 어려움이 있어서 누리과정에서 저희가 연령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요. 총 2년의 시간이 걸렸구요.(유치원 교사 2).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동화 그림 자료와 그리고 활동 방법을 평가 전까지 활용을 했는데요. 듣기 1번 문항을 예로 들면, 그림 카드를 동화에서 발췌했어요. 그 카드를 아이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철수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어” 하면, 아이가 그 반응을 듣고 여기서 맞는 걸 찾는 거죠...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교사용으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만들기 시작했고...(유치원 교사 2).

저희가 학기 초에 연구학교 하면서 학습준비도 대신에 이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 아이들 사 전검사를 실시하고 사후로 다시 한번 이 검사를 썼을 때 차이 값을 봤어요. 그래서 1학기 말에, 3월 초에 쓰고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 써서 저희가 의사소통 영역이 점수를 이 점수로 냈었던거요... 2학기도 2학기 초에 9월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2학기 검사도구로 그래서 그걸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12월 초, 방학하기 전에 다시 그 검사를 해서 차이를 봤습니다(유치원 교사 2).

나. 한국어교육용 교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교육용 교재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 되었으나, 활동 내용이 간단하여 교사의 실제 활용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누리과정 지도서를 활용하고 교사별로 초등학교 교재를 활용하거나, 시중에 있는 한국어 교재를 직접 재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누리과정 지도서, 다문화 유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자체 교재 등을 사용합니다(유치원 교사 5).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필요시 교육부 다문화 언어교육 프로그램(2015) 교재, EBS 한글이 야호, 기적의 한글 학습 등을 활용해요(유치원 원감 3).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1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CD 한 장 이랑 책 한 권으로 개발이 되어있어서 자유선택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와 일대일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가 다문화 유치원 운영을 할 때 다 만들어서 그리고 상호작용 방법들 나와 있어서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 때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구요. 활동 방법들이 매우 제한되어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읽기 위해서 어휘 중심으로 되어있는데요. 만 3세 4세 5세 연령 특징에 맞춰 좀 쉬운 것부터 되어있지만 실제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유치

원 교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일대일로 한국어 검사할 때 저희가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년 됐지만 좀 견고하게 만들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도움 받았던 자료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만 하기에는 좀 어렵죠, 한글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유치원 교사 2).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선생별로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있더라구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접근 방법. 왜냐하면 저희가 표준화된 교재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예비 학교에 KSL에서 한 학기에 한 권씩 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재는 따로 없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나눈 4단계 정도로 접근 방법을 달리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유치원 교사 1).

저희도 기존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교재를 또 단계별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유치원 교사 3).

한국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유치원에서 가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확산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도 공유하기도 하였다.

가정과 연계할 방법들을 찾으면서 가정환경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연구학교가 마쳤지만 올해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시 정도 수업을 진행한 다음 4차시에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생활 주제별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위주로 그리고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서... 만 3세, 4세 경우에는 “물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친구야 놀자” 이렇게 생활언어 중심으로 개발했고, 발달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만 5세는 표현 언어. 거기에 맞춰서 가정환경 워크북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유치원 교사2).

(자체로) 개발했고 저희가 중앙다문화센터에도 드려서 아마 활용할 유치원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유치원 교사 2).

다. 한국어교육 효과 인식

현재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은 누리과정과 연계한 점과 통합교육으로 시행하는 점, 연령별 접근, 한국어 전문교사 참여, 가정과의 연계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육 효과에 대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과 연계했다는 점. 그래서 통합언어

교육을 해서 연령별로 언어발달을 고려하면서 언어교육을 실시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았어요(유치원 교사 2).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면서 개별언어교육을 투입하면 효과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구요(유치원 교사 3).

가정과 연계했던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가정연계 워크북 자료 하면서 한국인 어머님들보다 다문화 어머님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유치원 교사 2).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어머님들은 더 많이 접하시고 흔하고 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어머님들은 더 열심히, 저희가 만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이한테도 더 많이 써보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 가지고 오니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1).

4 한국어교육 지원 및 개선요구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한국어 지원의 개선 방안과 향후 한국어학급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어교육지원 개선 의견

(교육계획의 수립) 현장 적용에 앞서 유치원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선정된 예비학교(유치원)를 우선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수준의 예비학교 확대 지정 및 한국어강사 지원 계획이 요구됨(유치원 원감 3)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부모 한국어교육) 다문화 또는 외국인가정 부모의 한국어 역량은 유아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한국어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고려하여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반에 언어소통이 아예 안 되는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하고도 소통하기가 힘들고, 그 친구들 집에서 전혀 한국어에 대한 자극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약간 한국어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유치원에 있는 동안 우리가 더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언어 자극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많이 자극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발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거는 약간 더 추가적으로 된다면 부모님들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교사 3).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 고려) 외국인가정의 특성은 대체로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놀잇감이나 동화책도 부족한 경우도 많아 교재, 교구, 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교육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교재) 그런 걸 줘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주로 놀잇감... 멀티자료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가정에 책도 없어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이런 책을 줘도 지금 할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멀티자료도 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전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자료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면 그래도 집중을 잘하더라구요. 너무 노출이 돼서 교육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전혀 안 되는 애들하고 어머님들이 전혀 해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좀...(유치원 교사 3)

(교재 개발) 현재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아용 별도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 연령, 언어적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도 개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유아들에게 친숙한 생활주제, 교실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재 지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 많을 때. “줄 좀 서. 나가자.” 하면 선생님이 “우리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야” 하는데 벌써 이 모습을 보고 뛰어나간대요. 아이들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 그림이라도 주고 뒤에다가 러시아어로 “줄 좀 서자” 해놓으면, 딱 보여주면 “우리 줄 서자”, 선생님이 한국말로 하면서 “줄 서자”하고 사진 보여 주면 줄이라도 설 테니까 그런 그림 자료하고 외국어가 지원되는 그런 거라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3).

교실단어. 제일 먼저 있어야 하고요. 생활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개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적응하려면 계절과 관련된 의식주라든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단어와 개념. 계절의 변화, 날씨, 음식(유치원 교사 6).

더불어 유아들의 일과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제공 등도 필요함. 예를 들어 1. 줄 서는 그림, 2. 밥 먹는 그림, 3. 화장실 가는 그림 등을 카드로 제공하면 한국어가 되지 않는 유아들에게 선생님이 한국어로 “줄 서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제시해주면 유아들이 쉽게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고 상황과 말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이와 같은 교재는 예비학급뿐 아니라 예비학급이 없는 통합학급에서 교사가 다문화 유아를 지도하는 데 더 필요할 것임(교육전문가 2).

그리고 강사가 이제, 유아교육과 나온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러한(유아발달) 교재나 교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유치원 교사 1).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 중에서 읽기 쓰기 위주의 교재를 부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예를 들어 노트에 글자를 따라 쓰거나 칸을 채우는 형식의 교재는 지양하고 일명 ‘세이펜’처럼 그림을 펜으로 짚으면 이름을 말해주는 형식의 시판되는 교재는 유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놀이를 통해 부담 없이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됨(교육전문가 2).

(진단도구)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중심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준은 만3세 정도의 의사소통 수준이 적절하다고 고려된다.

유아 시기는 아직 지필고사를 통한 평가가 부적절한 시기이며, 특히 다문화유아에게는 더욱 적절한 방법일 수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진단도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교육전문가 2).

진단도구 수준은 만 3세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으로 제작하며, 유아들이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학급으로 입급 할 때 만3세 수준의 의사소통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입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교육전문가 2).

(한국어 강사교육) 한국어교육 전담강사가 파견되는 경우 유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므로 언어지원능력뿐 아니라 유아의 특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임용고시에서 외국어 우대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과 유치원교사가 한국어 교수 방법을 익혀 지원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 한국어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강사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자격증 있는 분이라도 잘못하면 다른 위주로 막 가르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지도강사가 한국어 전공하신 분은 또 유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방법

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사에, 어떤 강사가 유치원에 적당한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채용도 어렵지만, 적절하고 아이에게 효율적인 강사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유치원 원감 2).

근데 없겠죠.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 임용고시 볼 때 타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우대해서 뽑았으면 좋겠어(유치원 교사 6).

교사가 한국어교육과정을 듣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도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국어를 하니까 그런 한국어교육과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유치원의 지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기회와 자조집단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가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거기서 아이들이 한 5시 정도에 가면 대략 2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성의가 있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는 없으니까(유치원 교사 1).

(교사를 위한 행정지원 필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추가 지원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가 추가됨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요구도 있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한 학급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이 어렵다면 초등학교 행정인력에 수당을 더해주는 실질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솔직히 너무 혼자 하기 어려워요. 한 학급이에요.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병설유치원은 좀 독특해요. 따로국밥이에요. 같은 우산 안에 있는데 전혀 몰라요. 지원이라던지 이런 거도. 왜냐면 같은 저기가 있는데요. 행정실에서 유치원자만 붙으면 다 유치원으로 와요. 보건이든 행정이든 영양이든 다 유치원 업무지 내 업무가 아니라 그래요(유치원 교사 6).

초등 원어민 교사 배정받는 거 행정실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언어교사 내려주면 유치원에서 행정업무까지 다 해야 해요(유치원 교사 7).

그분 월급도 줘야 하구요. 기안도 다 해야 하구요. 그래서 제가 싫은 거예요. 그분 고용도 제가 해야 하구요. 그 분 면접도 제가 해야 하구요. 그분들 관련된 모든 사항. 제가 다 해야 해요. 저는 이거를 하면 애들이 안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유치원 교사 6).

근데 1학급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실에 업무를 주고 수당을 준다던가. 내가 수당을 받아서 유치원 업무를. 초등 실무사님 자기도 일 많대요. 그래서 더 준다 그래도 안 할 거예요(유치원 교사 6).

(담임교사 가산점 부여고려) 다문화 학생 특히 외국인가정 유아가 많은 지역에서 교육 운영이 쉽지 않음을 배려하고, 또한 경력 있는 교사의 근무 자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등은 다문화 학교 하면 승진 가산점이 있는데(유치원 교사 7).

유치원은 아무것도 없어. 저도 저 가면 신규(임용 교사)가 와야 할걸요. 만약 점수를 준다면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도시는 당연히 있을 거야(유치원 교사 6).

(학급 규모 적게 운영) 다문화 유아, 특히 외국인가정 유아의 재원이 많은 경우 학급 규모를 줄여달라는 요구이다.

(학급 당) 유아 수 수정해 주시는 거. 개인적으로 제일 원해요. 가장 원해요. 대화가 안 돼요. 항상 아이들이 많은데 많으면 결과적으로 언어지도가 안 돼요. 20명이 넘어가는 순간 작년에는 2학기 때 넘어갔어요(유치원 교사 7).

제일 원하는 게 외국인인 많은 환경은 반 클래스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애들 좀 줄여달라고. 나는 가산점도 필요 없구요. 애들 비율을 좀 줄여줬으면(유치원 교사 6).

나.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어교육 지원 위한 학급 운영방식) 현장의 의견은 유치원 수준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도 학급의 운영보다는 부분 분리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방과 후 또는 일과 중 일정 시간을 별도의 학급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선호도가 높았다.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어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자유선택 시간에는 유아들 간 상호작용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으므로 대집단 교육 시 분리된 한국어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단설유치원 등에 거점형 한국어교육 지원 학급을 두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옆에서 이중언어 교사가 통역하는 경우는 안 좋아요.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소란스러워요. 러시아 말이 너무 시끄러워서...(유치원 교사 6).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경우 애네들 따로 수업하고 진단하고 원 학급으로 보내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늘지를 않아요(유치원 교사 7).

초등학교처럼 한 학급 따로 설치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시간별로 계속 외국인만 가르쳐. 그 시간 동안 한국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중해서 한국 애들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업이 안 되니까(유치원 교사 6).

한국어 시간만 따로 집중적으로 해주고 통합학급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후에 하는 거 오후에는 방과 후 학습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거를 좋아하세요. 오전 시간에 따로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유치원 교사 7).

완전 통합환경에 있으면서 자유선택 시간에만 해봤는데 이게 몇 명이 아니라 주류가 되니까 안 좋더라구요(유치원 교사 6).

자유선택시간에는 아이들과 교류가 많아요. 그때는 교류하게 하고요. 대집단 활동을 할 때 그쪽에 가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7).

애들이 많으면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해서 개별, 1:1은 안되지만 두세 명씩 했으면 좋겠어요(유치원 교사 6).

개별유치원에서 어려우면 단설유치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지역의 유치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7).

학부모가 원하면 거점학교 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6).

(별도 학급운영 기간 및 시간) 별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 비율과 유아의 사전 경험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간 6개월에서 최대 2학기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이와 달리 오전에 1시간 정도 운영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50% 넘으면 안 돼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1년 정도? 빠른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거쳐 온 애들은 6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은 1년이 되어도 어려워요(유치원 교사 6).

어떤 특별한 학급도 안 나오고 공간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오전에는 그냥 누리과정, 또래교육 수업도 하고 오후에 별도로 학급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실도 없고 하니까 오후에는 비잡아요(유치원 교사 3).

특별학급이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5시간. 특수학급처럼 원적학급에 있다가 본 학급에 있다가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유치원 교사 6).

오전 중 한국어교육 총 시간은 1시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통합교육으로 진행(유치원 원감 3)

개별화 및 소그룹 활동을 포함해 30~60분(교육전문직 2).

(통합 상황에서의 부분적인 개별화 교육방식) 특수학급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듯이, 외국인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도 수준별 개별교육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자유선택시간에 10분 정도를 한 아이에게 할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사가 오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10분간에 그 아이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언어가 많이 발달이 될까하는 약간 의문도 들었어요. 일단은 그 특수에서 개별화 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있듯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경우엔 5명의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평가를 한 다음에 각각의 아이들마다의 개별화에 대한 교육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의 할애를 뭐 한 시간 정도씩, 아니면 단일활동 중심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유치원 교사 2).

약간 유치원은 이제 통합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진짜 수준차(는 있고),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을 생활언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줘야 하니까 개네들은 개별화로 빠져 해야 돼서 저희는 아까 보면서 대집단 활동시간하고 뭐 이야기 나눌 시간 분배하고 하는 게 유치원에 맞다, 유치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교육전문직 1).

(교사 배치)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시 교사는 세 가지 유형이 협력하게 된다. 먼저 유치원 정교사는 기본적인 유아의 발달에 대해 알고 교육 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이다.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문가이다. 다문화언어강사는 결혼이민자 중 ‘다문화(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 담당교사는 정규 교사의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에서는 유치원 2급 정교사의 자격과 한국어교원 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를 희망하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한국어교육 지원으로 인한 업무중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므로 유아교육 전공 정규교사 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에 대한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공의 정규교사가 제일 좋죠. 업무를 나눌 수 있으니까...(유치원 교사 6).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실을 하나. 하다 못하면 식당이라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다문화가 시급하니까. 교사 하나 그동안 채용하는 것보다, 이중강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규 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는 게 낫다...(교육전문직 1).

현재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배치한다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지 않을까요(유치원 원감 3).

추가 교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하고, 이중언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 등을 채용해서 함께 팀티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유치원 교사에게도 한국어교육(KSL)에 대해 집합연수나 원격연수의 기회를 주어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교육전문가 2).

(사립유치원에는 순회 교사 지원) 다문화, 외국인 유아의 비율이 높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규교사의 배치보다는 특수교사 운용 방식과 유사하게 순회교사를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다른 애들도 한글이 안 된다. 사립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다문화 아이들은 지원이 시급하다. 말도 안 되고, 엄마랑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시는 걸 마치 통합학급에서, 특수 통합학급에서 순회교사가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 특수 선생님을 못 보내주니까 그렇게 이중 언어 강사나 한국어 선생님이 와서 그 유치원에서, 여기 보면 한글도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곳도 있으니 거기에 선생님을 한 분 보내주기에는 예산상 어려우니, 그 사람들이 와서 순회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한쪽의 요구가 있으세요. 사립 유치원에서는(교육전문직 1).

(공간 확보의 문제) 실질적인 의견으로 한국어교육 위한 학급을 구성한다면 공간 확보가 선결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교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교실이 없어요. 인구밀도가 엄청나요. 분반을 못 할 지경이에요(유치원 교사 6).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교실이 있으면. 예비학교의 제 1조건이 교실이 있는 지라고 봐요. 그래도 저희는 시골의 아주 전형적인 6클래스 학급이에요.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장실을 빼야 할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유치원 교사 6).

(예비유치원 선정기준의 문제) 예비유치원 선정 시 배점 기준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함에 부족하였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예비유치원) 공모계획서에 보면 다문화 유아가 많은 점수에 10점밖에 안 준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예요. 100점 중에 이게 10점밖에 안 돼요. 다른 게 더 점수가 높아요. 이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지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유치원 교사 7).

컨설팅 점수가 10점. 그다음에 행사 많이 했는지 10점. 그다음에 원격 연수를 받았는지가 10점 이게 30점인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 점수보다 (외국인)아이들 많은 점수가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유치원 교사 7).

5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원감, 교육전문직 공무원 등과의 심층 면담과 서면 자문을 통해 나타난 지원 현황과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과 유치원 한국어학급 설치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유치원 한국어교육 특별학급 설치 운영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특별학급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부터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운영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중도입국 유아를 위한 별도 한국어 학급 운영을 통해 조기 개입으로 적절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구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없는 다문화 유아에게 한국어에 대한 많은 노출과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어학급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입장은 유아기에는 통합교육을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분리학급으로의 운영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외 사례에서도 공교육과 연계된 취학 전 1년에 대해 언어 학습지원이 진행되기도 하나, 3세 또는 4세를 포함하는 유치원 교육에서의 분리학급 운영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둘째, 경기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고, 밀집 거주 지역이 형성되면서 이제까지의 다문화 유치원의 언어발달 지원과는 다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일정 부분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지만, 외국인 가정의 경우는 한국어 사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입원하

게 된다. 현재 개별 유치원 수준에서 부분 분리식 교육, 방과 후 교육, 이중언어 교사의 통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의 '예비학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를 유치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은 중요한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한국어 학습 동기가 없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아의 비중이 증가하여 50%를 넘는 경우에는 교실 내 유아들의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고, 의사소통도 모국어로 소통함에 따라 한국어 학습에의 동기도 떨어짐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유치원학급 편성 시 외국인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비율을 조절하여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치원에 외국인 유아들을 위한 예비학급이 구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학급 내 외국인 유아의 비율은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운영 방식 선택에도 중요한 변인이 된다. 현장 교사들은 한국어교육지원 경험을 토대로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통합 환경에서 부분적 개별교육이 효과적이지만 비율이 높아질 경우는 예비학급 형태의 완전 분리가 더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유아 발달에 맞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재 및 활동의 개발과 더불어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증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교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의 주제 또는 유아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생활 주제를 반영하고, 교실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진단도구와 관련하여서 전문가와 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 성취 기준을 유치원에서의 교육 참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최소 기준으로 3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유치원 알림장, 가정연계학습 등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유치원에서의 유아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를 위한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 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원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유치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은 교육청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센터 등과 같이 외국인

지원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은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 지원 뿐 아니라 부모교육,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가정 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덟째, 유치원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유치원 수준이 아닌 교육청 중심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유아들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받더라도 이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강사 선발 과정, 지원방식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담 교원의 선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운영 유치원의 선정, 교육내용 및 교재의 선정 등 종합적 기획과 지원이 요구된다.

아홉 번째, 각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에의 요구가 다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외국인 유아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기도 하고, 출신 국가도 그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지역 간 특수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원아 중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 외국인가정의 출신국, 유치원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은 표준운영 안을 마련하고, 선택 가능한 몇 가지 운영 모형을 보완하여 각 유치원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현장에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은 구성되어야 한다. 본 면담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담당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 방안과 향후 한국어학급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서 지원방안으로 정리하였다.

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위한 학급 운영안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안



V.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본 장에서 제시하는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 운영안은 2장에서 연구의 배경으로 소개한 교육부의 예비학급 설치 계획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 유치원 설립유형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한국어교육 위한 학급운영 안을 구상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급운영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 유치원 한국어교육 위한 학급 운영안

교육부가 제시한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안³²⁾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설치된 예비학교를 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예비학교 지원의 중심이 되며, 유치원 내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0명 내외의 학급규모, 6개월~1년의 교육 기간, 전담교원의 배치, 입급 및 복급기준, 원적학급에서의 학적 관리, 교육과정의 편성 및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의 한국어교육 지원은 참여대상 학생 수, 전담교원 유무, 유치원의 규모나 설립유형 등에 다양하여 하나의 모형을 적용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가이드 라인에서도 운영방식과 교육시간은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특별학급인 예비학교를 배치하기는 어려우므

32) '2018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유치원)'(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8.7)

로 특별학급이 없는 유치원에서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대상 유아의 비율, 유치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가. 학급 운영 방법

외국어 교육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³³⁾이 유치원교실 현장에서 다음의 학급 다음의 형태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 통합학급(submersion): 침잠식 교육

이는 가장 전통적인 유형으로 특별한 외국어 교육 없이 그저 정규 내용교과수업에 ‘침잠(submersion)’되는 방법으로 교과 내용에 집중하면서 언어를 흡수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이해영, 2014; 236).

가) 유치원에서의 운영

외국인가정 유아에 대한 별도의 한국어교육 지원이 없이 학급에서 비다문화가정 유아들과 함께 수업하는 형태이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아의 경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별도의 공간이나 교사의 투입이 없이 학급의 담임교사가 진행한다.

나) 고려되는 강점과 단점

이 방법은 예측할 수 있듯이 한국어 교실에 적용할 경우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실력에서도, 교과 내용의 이해도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이해영, 2014; 236).

2) 부분통합학급(pulling out system)

이 방법은 침잠식 교육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정규 수업을 듣다가 일정한 시간

33) Brown(2001:155-157), Richard-Amato(2003:354-357)가 제시한 내용임. 이해영(2014).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과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236-238에서 재인용함.

에 ESL 수업으로 옮겨 수업을 듣는 형태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이해영, 2014; 237). 이는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이 병행되는 상황으로 현재 초중등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학급이 이와 유사하다. 일반 학급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언어 발달에 적합하다. 'Early Bird Class'라고 하여 정규 일과 전에 시작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과 성실성을 키워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학급 분리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막아주기도 한다.

가) 유치원에서의 운영

외국인 유아 수가 별도의 학급을 구성할 만큼 많지 않거나, 공간의 부족으로, 전담교원 확보가 안 되는 등의 이유로 분리된 학급운영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 시간을 정하여 별도 학급으로 운영하는 부분 분리학급 유형이다.

현재 다문화 유아가 많이 재원하는 유치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가정 유아는 원적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유치원 일과 중 특정 시간(자유선택활동시간, 방과 후)에 일정 시간(10분~40분) 동안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 수업을 한다.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 강사와의 수업이 별도 교실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나) 고려되는 강점과 단점

집단 간에 언어능력의 수준이 달라 통합활동이 힘든 시간을 기준으로 분리함이 적절하다. 유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자유놀이 시간 등에 별도의 한국어교육이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자칫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해영, 2014; 238).

3) 분리학급(sheltered system)

이 방법은 특수한 형태의 몰입 프로그램으로 몰입과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모국어 출신이라는 것과 교사가 내용교과의 ESL 그리고 교수법 두 가지 모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이해영, 2014; 237).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활용

되려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이해영, 2014; 237).

가) 유치원에서의 운영

완전히 별도 학급을 구성하여 유치원 입원 이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에서 집중 교육하는 유형이다. 이는 일정 기간 교육 후 유아의 한국어 수준 진단하여 별도 학급에서 원 학급으로 진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유치원 교사가 이중언어 교수법을 익히고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해 전담교원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나) 고려되는 강점과 단점

현재로서는 관련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절한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두 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교육과 교과 연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이해영, 2014; 237).

4) 순회학급

이는 현재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장애유아들이 재원하는 유치원으로 특수교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외국인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육지원에 차용할 수 있다.

가) 운영방안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국어교육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예비학급 구성이 어려운 유치원으로 순회 파견하는 형태이다. 즉, 교사가 파견되어 부분통합학급(pulling out system)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소수의 외국인 유아를 위해 전담 교원이나 강사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접근으로 앞서 살펴본 통합학급(submersion)으로 강사가 파견되어가는 방식이다.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나) 고려되는 강점과 단점

사립유치원이나 외국인 유아의 수가 적은 유치원 등 개별 유치원에서 강사 채용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어교육이 가능해진다.

나. 학급운영에의 주 고려 변인

1) 전담교사 유무

유치원에 한국어교육 전담교원이 있거나 또는 없음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 학급의 구성은 달라진다. 전담교원이 있으면 완전히 분리된 학급과 부분 분리된 학급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 통합 환경에서 개별 유아의 지원도 가능하다.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 자체로 이상적인 한국어 지원 환경이 된다. 현장에서는 전담인력으로 유치원 정교사를 가장 희망하였다.

전담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재원 유아에게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교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외국인 유아 수

외국인가정 유아와 비다문화가정 유아의 비율에 따라 학급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비학교 운영안에서는 10명을 별도학급 구성 기준으로 정하였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들은 학급 내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면 외국인 가정 유아들 간 서로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서 한국어 학습의 동기도 떨어지고, 학급 내 주도권을 갖게 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외국인가정 유아가 10명 이상의 경우 별도 학급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4명 이상~9명인 경우, 3명 이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적절한 학급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유치원 설립유형

유치원의 설립유형과 규모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

가) 단설유치원

일반적으로 단설유치원은 학급의 수가 많고 재원 유아의 수가 많아 한국어교육 지원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 이런 이유에서 전혀 학급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한국어교육 거점유치원을 운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단설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지역의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대상 유아 수 부족, 다양한 언어 배경,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 교원 부족,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어려운 인근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단설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거점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초중고에서 위탁기관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끼리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능력이 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위탁기관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이 적용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초등병설유치원

초등병설유치원은 학급 수의 편차가 크다. 한 학급 규모가 가장 많지만 병설 중에도 4~5학급의 경우 충분히 단독으로 예비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용의 차이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기도 하여 한 학급이라도 외국인 가정 유아의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다.

한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 혼자 모든 유치원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정 유아의 증가로 교육 활동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병설유치원의 강점은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예비학교 또는 한국어 지원과 연계하여 유치원에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초등학교 예비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계획에 유치원 유아를 포함하여 연계 운영을 할 때, 유아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유치원 유아의 개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유아의 학습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10분 내외, 또는 20분 정도의 과

정으로 놀이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병설유치원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강점으로 여겨진다.

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외국인의 경우 누리과정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용을 부모가 온전히 전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가정의 경우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여, 사립유치원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대상이 소수인 경우가 많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찾아가는 예비학교’의 개념으로 파견교사를 활용한 부분통합학급 운영이 적절해 보인다.

다. 주요변인별 선택 가능한 학급 유형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학급운영 방법은 전담교사 유무, 대상 유아의 수, 유치원 설립유형 등 유치원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되는 주요변인별로 적절하게 고려되는 유아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급 운영 방법은 다음 <표 V-1-1>과 같다.

▮ 표 V-1-1 ▮ 주요변인별 선택 가능한 학급 유형

구분		통합학급	부분통합학급	분리학급	순회학급
전담 교사	유		✓	✓	
	무	✓			✓
대상 유아수	10명 이상		✓	✓	
	4-9명		✓	✓	
	3명 이하	✓			✓
설립 유형	단설유치원		✓	✓	
	초등병설유치원	✓	✓	✓	✓
	사립유치원	✓	✓		✓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개선안

외국인 가정 유아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 유형을 선택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방법 이외 기타 지원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가.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2장에서 언어발달 진단도구들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외국인 유아의 언어발달, 의사소통 정도를 진단하기에 최적의 도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비학급에서 원적학급으로의 복귀를 결정할 때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한국어교육을 지원한 교사의 판단이 가장 적절한 것도 사실이지만 객관적 기준이 될 만한 교사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평가 기준이나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어가 제1 언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유치원의 일반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면 자문에서 교육전문가는 평가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아들의 말하기, 듣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평가 도구 만들어 점수화할 것과 원적학급의 교사와 한국어 학급의 교사가 유아의 성장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한국어 학급의 유아가 원적학급으로 진급함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졌는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량평가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단도구의 내용은 일상생활 내용으로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세요.”를 듣고 이해하여 실행하는지 평가하는 등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한국어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해 학급을 설치함과 더불어 유아의 발달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교재 교구의 필요성 또한 높다. 현재 초·중등학생을 위한 교재 및 자료 개발은 매우 활발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다. 유아용으로는 외국인가정 유아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유아

언어교육 프로그램(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5)'이 개발·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유아의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일상생활 중심 기초 문장 등을 중심으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적절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외국인가정 유아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인 교실과 또래와의 적응이 쉽지 않다.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은 유아들에게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지되기 십상이다. 또한 외국인가정 유아가 소수로 주류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위축되기도 쉽고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외국인가정 유아를 위해 언어만이 아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배려하는 교사와 또래의 태도와 모국어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 학부모가 참여 가능한 유치원 환경 등을 조성하여 자긍심 갖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라. 학급 당 유아 수 조정

외국인 유아가 속한 경우, 학급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급의 정원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교육부의 예비학교 정원 기준은 10명 내외이다. 그러나 예비학교가 아닌 경우, 일반학급 통합교육 상황에서 외국인가정 유아의 비율 증가는 담임교사에게 부담이 크다.

예비학급의 정원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유아가 배정되는 경우 학급당 유아 수를 현재 보다 줄여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마. 순회형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모든 유치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인 유아가 한 유치원에 다수 재원하고 있는 경우보다 1~2명의 외국인 유아가 소수 재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아 수가 적고, 다양한 언어 배경을 지니고, 의사소통이 전

혀 안 되고, 교원은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순회형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관내 개별유치원으로 파견하는 형태이다.

바. 교육청별 지원 인력풀 구성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함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전에 중국가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가정의 출신국이 다양해지며 사용하는 언어도 러시아어, 나이지리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으로 다양하다. 필요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가까이 거주하는 언어강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외국인 가정의 이주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중언어 강사풀(pool)을 구성하고, 개별유치원으로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의 출신국이 다양해지며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해지고 강사를 구하기 어려움에 대해 전공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관내 대학에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대학생을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제공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사.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3장에서 호주, 독일 등의 국외 사례를 보면 유아들의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교육 유형도 다양하였다.

우리나라도 유아교육현장에서 한국어 지원요구가 증가함을 반영하여, 유아 교사의 양성과정에서 ‘이중언어’ 발달이나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발달을 다루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해야 하는 유아가 있는 유치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지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유아 대상 한국어 방문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아. 교원 직무 구체화

이중언어 강사의 직무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유치원에서 외국인 가정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이중언어 강사가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유치원 알림 내용까지 통역 전달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전담교사인 예비학급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의 직무 간에 명료화를 요한다. 또한 예비학급이 설치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중언어 강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업무 매뉴얼 등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와의 연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어 부족으로 초기 적응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예비학급을 운영 중이다. 유치원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예비학급이 착수되는 과정에서 학교급간 연계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 예비학급의 성공사례와 개선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운영계획에 반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차.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한 언어지원

외국인가정의 출신국이 다양해지며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해져서 개별 유치원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많다. 여성가족부의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다문화 지원센터에 통역 핫라인 전화를 두는 방안이다. 교사나 외국인 부모가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사용언어를 제시하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언어별 전담자를 두어 연결하여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타. 가정과의 연계 지원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모든 국외사례에서 유아 언어

교육에 있어 부모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부모를 위한 번역서비스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현장 통역사를 제공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통역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치원에 서의 상담 시 현장통역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지원하거나 전화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의 전화 통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와 더불어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치원 현장에서는 이런 필요를 반영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등을 개발 및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수한 현장 사례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또 사례집을 구성하여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에 제시한 정책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인 교육부 수준, 교육청 수준, 개별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 제시하면 다음 <표 V-2-1>과 같다.

표 V-2-1 | 교육부, 교육청, 개별 유치원 수준의 정책 방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개별유치원
진단도구개발	• 외국인 유아용 한국어 진단도구 개발	• 한국어 진단도구 보급	• 한국어 진단도구 활용 진단
한국어 교재 및 자료개발	• 한국어 교재 및 자료개발 계획 수립	• 연구용역 발주 • 개발 연구유치원 지정	• 우수사례 제공 • 사용 후 피드백 제공
심리 정서적 지원		• 교사 대응 안내서 구성	• 지원적인 유치원 분위기 및 환경 조성
학급당 유아 수 조정	• 기준마련	• 시도별 현황 반영 운영 지침 제시	
순회형 한국어교육 지원	• 순회형 운영방안 수립	• 교사 채용 및 파견 계획수립, 운용	• 이용 대상자 추천
한국어교육지원 인력풀 구성	• 기준마련 • 필요인력 제공안 수립	• 시도별 수요 현황반영 인력풀 구성 운영	• 구체적 수요 정보제공
교사전문성 향상	• 교사양성 기준에 반영	• 교사 연수, 교육기회 제공	• 현장교육기회 제공
교원 직무 구체화	• 교원 직무 기준마련		
초중고 예비학교와의 연계	• 연계 기준 마련	• 다면적 연계 방안 구체화 제시	
다문화 지원센터와의 연계	• 부처별 협력활성화 방안 모색	• 협력 가능한 지원체 현황 파악 및 다면적인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연계 및 협력 우수 사례 제공
가정과의 연계 지원		• 연계 우수사례 발굴 • 연계 안내서 구성	• 우수사례 제공 • 연계 활동 활용

참고문헌

- 고순희(2015).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정책 연구 -다문화 예비학 교
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2, 1-14.
- 고은(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제안. 교육
의 이론과 실천, 15(2), 1-24.
- 교육부(2015).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
책 1], 34).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다문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17. 01. 13.)
- 교육부(2018a). 2018년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내부자료
- 교육부(2018b).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8c). 2018년 다문화 유치원 세부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a). 2018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설명회 자료집.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b). 교육부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유아의 언어 기초능력 신장.
- 교육부 교육기획 보장과(2018.5.1.). 2018 예비학교(유치원) 확대 지원 계획(안).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5.12).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유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
화 유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7). 2018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유치원).
-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27.

- 김민화·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순환·전우용(2016). 유아교사의 유아 언어발달 평가 및 평가도구에 관한 인식 및 요구, 활용실태. 유아교육학논집, 20(2), 193-222.
- 김영태(2002).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개발 연구: 문항 및 신뢰도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7(2), 1-23.
- 김영태·홍경훈·김경희(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개발연구: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 33-45.
- 김정미·신희선(2006). K-CDI 아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39-53.
- 김현자(2010). 일반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적응. 영유아교육연구, 13, 83-100.
- 모경환·이재분·홍종명·임정수(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 문무경·최효미·이민경(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07.
- 문부과학성(2015). 취학 안내서: 일본학교의 입학 수속 절차(한국·조선어판), 외국인 아동 학생을 위한 취학 가이드 북 한국·조선어 p. 16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성혁·성상환(2008).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2, 19-60.
- 박영준(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58(4), 6-41.
- 박인옥(2010).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 조사. 인문과학연구 25, 467-507.
- 박철희·박주형·김왕준(2016).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현실과 과제: 서울 서남부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9(2), 173-201.
- 성상환(2009). 독일의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1, 37-65.
- 성상환·서유정(2009). 독일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독일교육, 46, 7-35.

- 송기철(2013).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 한국어교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53-76.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성배·박희훈(201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6(1), 71-92.
- 오재연(2012). 시간경과에 따른 한국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정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147-176.
- 오재연·송미선(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51-269.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육아정책연구소(2014a).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 육아정책연구소(2014b).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 육아정책연구소(2014c).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 윤진주(2007). 유아 언어능력 평가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677-690.
- 이명희·김기화·황진민·이재창·허은지(2017).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 -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409-432.
- 이미화·이정림·여종일·김경미·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2).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 연구- 평가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31.
- 이미화·정주영·엄지원·김희정·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3).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36.
- 이병호·한승수(2016).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140.
- 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27.
- 이차숙(2005).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춘양·최윤곤·박미숙(2017). 한국어교사의 중도입국 학생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6(4), 21-39.
- 이해영(2014).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과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국어교육연구*, 34, 231-258.
- 장영애(1981). 가정환경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임숙·이수상(2012).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 *지방정부연구*, 16(1), 455-476.
- 정남미(2013). 유아 언어교육(개정 3판). 서울: 창지사.
- 주영희(1982).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및 사고능력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미영(2003). 유아용 이야기 꾸미기 활동 평가 준거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권진·채윤미(2010).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재 분석. *한국어문학연구* 54, 431-462.
- 한선홍·이대균(2013). 외국인 유아를 지도하는 한국인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및 노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09-240.
- 한영빈(2013).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연구*, 22(2), 251-273.
- 홍종명(2016).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6차 국제학술발표 논문집*. 72-76.
- 황상심(2017). 이중언어 아동의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도사의 요구 탐색. *언어치료연구*, 26(1), 145-160.
- 황석규(2015). 제주도연구 자유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한 일고찰. 2015년 제주학회 제4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5(1), 199-210.
- Ireton, H., & Thwing, E. (1972). *Manual for the minnesota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inneapolis: Behavior science systems.
- Ireton, H., & Glascoe, F. P. (1995). Assessing children's development using parents' reports. *The Child Development Inventory*. *Clinical Pediatrics*, 34(5), 248-255.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7). *English Language Learners ESL*

and ELD Programs and Servic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Ontari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indergarten to Grade 12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Assessment, Evaluation, and Reporting in Ontario Schools.

〈법령 및 판례〉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항-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제5호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참고 사이트〉

(한국)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conn_path=I3 (2018. 08. 09 인출)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conn_path=I3 (2018. 08. 09 인출)

국가법령정보

교육통계 DB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2017) 유초중등통계 >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 학생 (2018. 7. 30 인출)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ro 2013.10.23. 18:32. <http://blog.bokjiro.go.kr/252> (2018.08.06. 인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자료검색-다문화 연구학교-2017년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결과보고서_기초학력제고, 경기 시화유치원 운영보고서 <http://www.nime.or.kr/search/mmsSchool4/view/11592?page=1&> (2018. 08. 28. 인출)
공립시화유치원, 다문화유치원, 운영자료실, 프로그램적용, <만3세_1학기언어진단 도구>, <http://www.sihwa.kg.kr/board.read?mcode=1911&id=1>에서 (2018. 08. 28. 인출)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

평가도구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1345413.htm (2018. 7. 30 인출)

일본 문부과학성, 외국인 학생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있음.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 (2018. 7. 30 인출)

https://www.mk.niedersachsen.de/startseite/fruehkindliche_bildung/traeger/sprachfoerderung_vor_einschulung/sprachfoerdermanahmen-vor-der-einschulung-6020.html (2018. 8. 7 인출)

(독일)

<https://sprach-kitas.fruehe-chancen.de/programm/ueber-das-programm/rueckschau-schwerpunkt-kitas/> (2018. 7. 26. 인출)

<https://sprach-kitas.fruehe-chancen.de/> (2018. 7. 26. 인출)

독일 니더 작센 주 홈페이지 https://www.mk.niedersachsen.de/startseite/fruehkindliche_bildung/traeger/sprachfoerderung_vor_einschulung/sprachfoerdermanahmen-vor-der-einschulung-6020.html(2018. 8. 7 인출).

독일 연방 정부 <https://sprach-kitas.fruehe-chancen.de/programm/ueber-das-programm/rueckschau-schwerpunkt-kitas/> (2018.07.26. 인출)

<http://www.biss-sprachbildung.de/> (2018.07.26. 인출)

(호주)

<http://www.schools.nsw.edu.au/languagesupport/language/index.php>

Department of Education WA(2015). Early Childhood EAL/D Progress Map- Kindergarten - Year 2. http://det.wa.edu.au/curriculumsupport/eald/detcms/cms-service/download/asset/?asset_id=18126600(2018.07.31 인출)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2014).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Advice for Schools. https://education.nsw.gov.au/policy-library/associated-documents/eald_advice.pdf (2018.07.18. 인출)

<http://www.schools.nsw.edu.au/languagesupport/language/index.php>

(캐나다)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7). English Language Learners ESL and ELD Programs and Servic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Ontari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indergarten to Grade 12에서 필요한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www.edu.gov.on.ca/eng/document/esleldprograms/esleldprograms.pdf> (2018.07.25. 인출)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7). Support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Kindergarten: A practical guide for Ontario educators에서 필요한 내용을 번역 후 축약함. <http://www.edu.gov.on.ca/eng/document/kindergarten/kindergartenELL.pdf> (2018.07.25. 인출)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pp.18~19.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growingSuccessAddendum.pdf> (2018.08.02. 인출)

Statistics Canada (2017).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17028-eng.htm>

GALLUP WORLD POLL (2016-2017). <https://news.gallup.com/poll/233147/migrant-acceptance-canada-follows-political-lines.aspx>

〈부록 첨부 자료 출처〉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유치원 평가양식.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pp.18~19.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growingSuccessAddendum.pdf> (2018.08.02. 인출하여 번역함)

독일 작센 안할트 주에서 6개 언어로 제공하는 유치원 안내책자

http://www.lerneninterkulturell.de/wp-content/uploads/Elternbroschuer-e-KiTa_Onlineversion.pdf (2018. 8. 7 인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유아기관의 교사와 부모가 작성하여 진학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전환통지서.

http://www.transitiontoschool.nsw.edu.au/wp-content/uploads/2017/03/Transition_to_School_Statement_.pdf(2018. 7. 27 인출)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국어로 제공하는 유치원 등록신청서.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going-to-a-public-school/translated-documents/enrolment-application>(2018.7. 27 인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부모들에게 통역이나 번역이 가능함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음.

<https://education.nsw.gov.au/teaching-and-learning/curriculum/multicultural-education/interpreting-and-translations>(2018. 7. 31 인출).

서호주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의 부모들에게 다국어로 자녀의 호주 표준영어 성취도에 대한 언어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공함.

http://det.wa.edu.au/detcms/cms-service/download/asset/?asset_id=16178795(2018. 7. 31 인출)



부록

- 부록 1.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 척도 의사소통 영역 예시
- 부록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대한 의견 조사
- 부록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유치원 평가양식
- 부록 4. 독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부모용 안내책자
- 부록 5. 호주 유아기관에서 진학 기관에 보내는 전환통지서
- 부록 6. 호주 유치원 등록 신청서
- 부록 7. 호주 유치원의 통역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
- 부록 8. 호주 유치원 언어평가 결과 통지서

부록 1.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 척도 의사소통 영역 예시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 2. 의사소통

내용	세부내용	관찰준거			
		관찰문항 (관찰요소)	1	2	3
듣기: 남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남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관찰준거 (관찰요소)	1	2	3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남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남말과 문장을 듣고 일부만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남말과 문장을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관찰 및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시간에 "토끼처럼 경총경총 뛰어 보세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보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가만히 서있다. • 간식시간에 교사가 자기가 먹은 요구르트 병과 빨대를 각각 분리해서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한다. • "주간계획안을 사물함에 있는 자기 가방 속에 넣고 오세요."라고 말하면 "어디요?"라고 다시 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시간에 "토끼처럼 경총경총 뛰어 보세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보세요."라고 말하면 '경총경총' 뛰기는 하나 '살금살금'은 표현하지 못한다. • 간식시간에 교사가 자기가 먹은 요구르트 병과 빨대를 각각 분리해서 놓으라고 하면 한 가지는 제대로 하나 나머지는 하나도 못한 대로 하지 못한다. • "주간계획안을 사물함에 있는 자기 가방 속에 넣고 오세요."라고 말하면 사물함까지 가는 가지만 가방 속에 계획안을 넣지 않고 가방 위에나 사물함에 얹어 놓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시간에 "토끼처럼 경총경총 뛰어 보세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보세요."라고 말하면 그에 맞게 몸으로 표현한다. • 간식시간에 교사가 자기가 먹은 요구르트 병과 빨대를 각각 분리해서 놓으라고 하면 말한 대로 비르게 한다. • "주간계획안을 사물함에 있는 자기 가방 속에 넣고 오세요."라고 말하면 계획안을 자기 가방 속에 넣어놓고 온다.
			<p>2-1</p> <p>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남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남말이해, 문장이해)</p>		

부록 2.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대한 의견 조사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대한 의견 조사 (원장 및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유아 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취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아에 대한 한국어(KSL)교육 지원에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와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유아 대상 제2 언어로의 한국어교육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국내 초등 예비학교 사례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교육 지원 국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또는 외국인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지원 방안을 구체화함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유아교육 현장과 학계에 계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면자문을 청합니다.

2018년 7월 육아정책연구 소장 백선희

조사관련 문의

권미경 부연구위원

☎ 02-398-7775, mkkwon@kicce.re.kr

최윤경 연구원

☎ 02-398-7761, yjyj465@kicce.re.kr

소 속 / 직 위	① 유치원 원장/원감	② 유치원 교사
	③ 교육전문직	④ 대학교수

※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견을 청합니다.

I.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현재 운영 중인 내용)

1. 지원 필요성 체감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 학생의 분포 비율, 국적, 문제점 등)

2. 현재 운영 중인 예비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현황

가. 학급유형: 한국어교육 실시 유형은?

(예시: 일과 중 한국어를 따로 교수하는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교육과정 한국어로 교수하면서 유아의 모국어로 지원하는지 등)

나. 교사의 배치: 추가 교사 배치여부

(배치한다면 어떤 자격을 가진 교사를 어떤 형식으로
- 교사의 자격요건: 한국어교원자격이나 과정 이수 등)

다. 활용교재

라. 성취도 진단 도구 및 방법

3. 현행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시 가장 효과적이라 사료되는 부분은?

4. 현행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Ⅲ. 유치원 한국어교육 모형 제안

유치원의 한국어교육 지원은 참여대상 학생 수, 사용하는 언어, 유치원의 규모나 설립유형 등에 다양하여 하나의 모형을 적용함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유치원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초등병설 유치원 모형

- 초등학교 예비학교 또는 한국어 지원과 연계하여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2. 단설유치원 모형(한국어교육 지원대상이 많은 경우)

- 예비학급으로 완전 분리 교육하는 형태
- 한학기당 2회 진단 성취도 평가를 거쳐 원학급으로의 복귀를 결정함
- 진단도구의 선택이 필요함

3. 사립유치원 모형(한국어교육 지원대상이 소수인 경우): 찾아가는 예비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한국어 지원교사를 순회 파견하는 형태를 고려함
- 특수교육에 적용하는 방식임.

4. 정규 통합교육

5. 교재 또는 자료 개발 지원하는 방법

부록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유치원 평가양식³⁴⁾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온타리오 교육부

유치원 학습 평가서
초기 관찰 기록부

Board Logo

날짜:

학생명:		학생번호:		결석일:		총결석일:	
만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명:		지각일:		총지각일:	
유아교육자명:				유아교육자명:			
소속교육청:				학교명:			
주소:				주소:		전화:	
				교장명:		전화:	

핵심학습(Key Learning) / 학습성장(Growth in learning) / 다음단계학습 (Next steps in learning) ESL IEP

핵심학습 (Key learning)은 평가기간 동안 유아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중요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적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유아의 관심과 학습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학습성장 (Growth in learning)은 평가기간 동안 유아의 학습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발달과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의 발달 단계, 학습 궤적, 개인 특성 및 개인자 등을 반영하여야 평가합니다.

다음단계학습(Next steps in learning)은 학교 및 가정에서 유아의 지식과 기술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유아의 발달단계, 학습 궤적, 개인 특성 및 개인자 등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ESL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영어가 제2언어인 경우 체크합니다.
IEP – Individual Education Plan : 개인별 교육과정을 시행한 경우 체크합니다.

3044E (2016/06) (v.02) © Queen's Printer for Ontario, 2016
Kindergarten
Page 1 of 2

34)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유치원 평가양식.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pp.18~19.<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growingSuccessAddendum.pdf> (2018.08.02. 인출하여 번역함)

유치원 학습 평가서 초기관찰기록부 - 온타리오공립학교

학생명:

학생번호:

만4세

만5세

[Space for board information:
Boards may include information such as the board vision statement or board educational goals.]

유치원 학습 평가서 초기 관찰 기록부

유치원 학습 평가서 초기 관찰 기록부는 유아의 학습에 대한 부모와 교육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초기 관찰 기록부는 가을학기 (첫 학기) 동안의 유아의 학습에 대하여 기술하며, 부모님들께 유아의 학습 및 성장, 다음단계로의 진보에 대한 분명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아의 학습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교실 자료들은 놀이 환경에서 유아가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예시 자료들은 부모님과 교사가 유아의 학습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유아교육자는 관찰과 모니터링, 발달평가 뿐 아니라, 유아의 가족과의 의사소통까지 전반에 걸쳐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정보

우리는 여러분께서 부모 또는 가디언으로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습평가서 초기 관찰기록부는 유아의 학습에 대한 학교로부터의 첫 공식적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유아교육자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부는 여러분께 교실에서 유아의 학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집에서의 유아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여러분과 유아교육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유아의 학습을 지원할 것을 독려합니다. 유아는 부모가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더 쉽게 동기화되고, 학습에서 더 빠르게 진보하며, 긍정적인 행동과 기술도 쉽게 발달시킵니다.

To Parents/Guardians: This copy of the Kindergarten Communication of Learning: Initial Observations report should be retained for reference. The original or an exact copy has been placed in the student's Ontario Student Record (OSR) folder and will be retained for five years after the student leaves school.

Teacher's Signature

X

Principal's Signature

X

Early Childhood Educator(s) _____ [Insert name(s)] _____ contributed to the observ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your child's learning that is reflected in this Kindergarten Communication of Learning: Initial Observations report.

출처: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6). Growing Success: The Kindergarten Addendum,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growingSuccessAddendum.pdf> (2018.08.02 인출)

부록 4. 독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부모용 안내책자³⁵⁾



35) 자료: 독일 작센 안할트 주에서 6개 언어로 제공하는 유치원 안내책자

http://www.lerneninterkulturell.de/wp-content/uploads/Elternbroschuere-KiTa_Onlineversion.pdf (2018. 8. 7 인출)

부록 5. 호주 유아기관에서 진학 기관(유치원)에 보내는 전환통지서³⁶⁾

NSW Transition to School Statement

Starting school is a significant event in the life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e know that strong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amilies, early childhood services and schools helps support a child's successful transition to school.

What is the NSW Transition to School Statement?

A practical and simple tool to make it easier for important information to be shared between families, early childhood services and schools.

How will the statement help your child?

Completed statements help school teachers get to know your child before they enter Kindergarten, then make connections with them and respond to their individual learning needs at school.

How to complete this document

Early childhood educators complete

- Section A – child's personal details
- Section B – child's qualities and abilities
- Section C – child's feelings and expectations about starting school

Families complete

- Section D – family details
- Section E – expectations for your child,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to support their learning
- Section F – consent for the information to be passed on to the primary school

Families return completed statements to the early childhood service or primary school.

Once the primary school receives it, they can start planning.

SECTION A. Early childhood educator to complete this section

Child's first name <input type="text"/>	Child's surname <input type="text"/>
Is this child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Both <input type="checkbox"/>	Child's period of enrolment at preschool/service – mm/yyyy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to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Name of early childhood educator completing this form <input type="text"/>	Number of days enrolled per fortnight <input type="text"/>
Preschool/service name <input type="text"/>	Preschool/service address (Street) <input type="text"/>
Telephone <input type="text"/>	(Suburb/town) <input type="text"/> Postcode <input type="text"/>
Preschool/service email address <input type="text"/>	Date form completed – dd/mm/yyyy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36) 자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유아기관의 교사와 부모가 작성하여 진학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전환통지서.
http://www.transitiontoschool.nsw.edu.au/wp-content/uploads/2017/03/Transition_to_School_Statement_.pdf(2018. 7. 27 인출)

SECTION B. Early childhood educator to complete this section

Section B is guided by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and aligns with the five Learning Outcomes.

Outcome 1: Sense of identity

Briefly comment on how this child:

- Participates in learning and play
- Shares and negotiates resources with others
- Responds when distressed or upset

Outcome 2: Connection and contribution to the world

Briefly comment on how this child:

- Participates in small and large groups
- Shows awareness of the needs of others
- Shares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n play and learning
- Builds and maintains relationships with others

Outcome 3: Children's wellbeing

Briefly comment on how this child:

- Self-regulates emotions
- Demonstrates physical skill and ability
- Manages personal hygiene and self-care

Outcome 4: Confident and involved learner

Briefly comment on how this child:

- Shows interest in learning
- Focuses attention and concentrates when challenged
- Shows wonder and curiosity about the world

Outcome 5: Effective communicator

Briefly comment on how this child:

- Talks and listens in both small and large groups
- Represents thinking and ideas in creative ways
- Demonstrates concepts of print, letters and sounds
- Works with mathematical concepts – e.g. numbers, patterns and shapes

Supplementary information

6. What are some of this child's interests?

7. What teaching strategies and environments encourage this child's learning?

8. Are there individual learning plans or other supports currently in place to enhance this child's learning?
e.g. speech therapy, physiotherapy, occupational therapy

Yes No If Yes, please give details

SECTION C. Child and early childhood educator to complete this section together

The questions below are provided only as a guide for your discussion with this child about transition to school.

1. Have you visited your new school?

Yes No

If **yes**, who took you to visit your new school?

2.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your new school?

3. Would you like me to tell your new school teacher anything about you?

Please complete this digital signature field to ensure your completed entries can't be altered.

Sig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or

Date form completed – dd/mm/yyyy

 / /

When **sections A, B and C** are completed, please take a copy of it and pass the whole Transition to School document to the child's parent/carer so that they can complete **sections D, E and F**.

SECTION D. Parent/carer to complete this section

Your name

Relationship to child

Telephone

Email

What is your preferred language?

Child's date of birth - dd/mm/yyyy

 / /

Name of primary school child is most likely to attend (if known)

Primary school address (Street)

(Suburb/town)

(Postcode)

OR primary school's email address

Is this child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Yes No Both

Child's gender

Male Female

SECTION E. Parent/carer to complete this section

Provide information that you feel comfortable sharing with your child's teachers.

1. During Kindergarten, I would like my child to...

2. I would like my child's Kindergarten teacher to know...

My child enjoys:

My child has already learnt how to:

My child might need help to:

3. The teacher could help my child to learn by...

4. Is your child supported by another service or specialist program relating to their learning or development? e.g. speech therapy, physiotherapy, occupational therapy

Yes No If **Yes**, please give details

SECTION F. Parent/carer to complete this section

Parent/carer consent

I understand this information may be shared with any school(s) my child is enrolled in or other school(s) I nominate.

<p>Child's name</p> <input type="text"/>	<p>Parent/carer name</p> <input type="text"/>
<p>Date - dd/mm/yyyy</p> <input type="text"/>	<p>Signature of parent/carer</p> <input type="text"/>

Once you have completed **sections D, E and F**, please return the completed statement to the early childhood service or primary school

For more information:

W: www.transitiontoschool.nsw.edu.au

T: 1800 619 113

E: ecec.transitions@det.nsw.edu.au

부록 6. 호주 유치원 등록 신청서 (총 16쪽 중 1쪽)³⁷⁾



NSW 공립학교 등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등록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항들 중 어느 것이라도 설명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별도의 첨부 용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양식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 이 양식의 15, 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학교에 제공해야 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제공할 정보의 목적과 이용에 대한 설명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 결과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신청이 수락되는 경우 학교는 제출된 정보를 학생의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등록 확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교복과 같은 물품을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 세부사항 (Student details)

A. 학생 세부사항 (A. Student details)

성 Family name

첫 번째 이름 First given name

두 번째 이름 Second given name

선호하는 이름 Preferred first name

성별 Gender 남 Male 여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위 학생을 몇 학년에 입학시키길 원하십니까? (공란 하나에만 표시) Into which year are you seeking to enrol this student (mark only one box)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하는 시작 날짜 Intended start date / /

담당자 작성란 (OFFICE USE ONLY)

School name

Student registration number Date of enrolment at this school / /

Roll Class (eg 3 SMITH, 9R2)

Current scholastic year in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K-12) House group

SRE/SEE class

Out of home care Yes No Name of statutory care provider

37) 자료: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국어로 제공하는 유치원 등록신청서.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going-to-a-public-school/translated-document/s/enrolment-application\(2018.7.27 인출\)](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going-to-a-public-school/translated-document/s/enrolment-application(2018.7.27%20인출))

부록 7. 호주 유치원의 통역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³⁸⁾



Department of
Education

Welcome

Do you need an interpreter?



English	English	Welcome. Do you need an interpreter?
Arabic	العربية	أهلاً بك هل تحتاج إلى مترجم
Burmese	မြန်မာ	ကြိုဆိုပါတယ်။ သင် စကားပြန် တစ်ဦးကို လိုအပ်ပါသလား။
Chinese (Simplified)	汉语	欢迎。 您需要传译员吗？
Dari	دري	خوش آمدید. آیا به ترجمان ضرورت دارید؟
Farsi	ی و ارس	خوش آمدید. آیا به مترجم نیاز دارید؟
French	Français	Bienvenue. Avez-vous besoin d'un(e) interprète?
German	Deutsch	Herzlich Willkommen. Brauchen Sie einen Dolmetscher?
Gujarati	ગુજરાતી	સુસ્વાગતમ્. શું તમારે દુભાષિયો જરૂરી છે?
Hindi	हिन्दी	आपका स्वागत है। क्या आपको दुभाषि की ज़रूरत है?
Indonesian	Bahasa	Selamat datang. Apakah Anda memerlukan penerjemah?
Italian	Italiano	Benvenuto. Hai bisogno di un interprete?
Japanese	日本語	こんにちは。通訳が必要ですか？
Karen	ကဵု	ထိုက်ဖိတ်တံးနီလိ. ဖဲနီလိတ်တံးပုဂံကတိဂ်နီလိတ်တံးကါ.
Korean	한국어	환영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For translated documents and information on interpreting services, refer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EAL/D) website
<http://det.wa.edu.au/curriculumsupport/eald/detcms/navigation/translations/>

3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부모들에게 통역이나 번역이 가능함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음.
<https://education.nsw.gov.au/teaching-and-learning/curriculum/multicultural-education/interpreting-and-translations>(2018. 7. 31 인출).

부록 8. 호주 유치원 언어평가 결과 통지서³⁹⁾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EAL/D 진보 맵

유치원 - 2 학년 학부모님께 드리는 통지서

귀하의 자녀는 추가 언어 혹은 방언 (EAL/D)으로서의 영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호주 표준 영어 (SAE) 학습 성취는 추가 언어 혹은 방언 (EAL/D)으로서의 영어 진보 맵에 근거하여
보고됩니다.

EAL/D에서의 학생 성취도

귀하 자녀의 성취도는 네 가지 언어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보기, 및 쓰기에 대해 보고됩니다. 성취한
수준에 체크(✓) 표시가 됩니다.

의견

의견에는 자녀의 진보에 대한 정보와 차후 개발을 위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교사와 이 통지서에 대해 상의할 기회를 주시길 기회를 가지십시오.
필요하면 통역사가 주선될 수 있습니다.

추가언어 혹은 방언으로서의 영어		언어 기능							
성취한 EAL/D 수준		1	2	3	4	5	6	7	8
듣기					✓				
말하기					✓				
읽기 및 보기					✓				
쓰기					✓				
의견									

학생 성취도

기초	1	이 학생은 호주 표준 영어를 처음 시작했으며 호주 학교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	이 학생은 간단하고 단순한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전	3	이 학생은 자신의 간단한 말과 문장들을 이해하고, 읽고 쓰기 위한 영어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4	이 학생은 학업 목적을 위한 영어 사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달	5	이 학생은 여러 주제의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이 학생은 여러 주제 영역과 사회적 상황에서 영어 사용의 자신감을 얻고 기능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강화	7	이 학생은 사회적 그리고 학업 목적의 영어 사용에서 더욱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	이 학생은 모든 상황에서 영어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용합니다..

EAL/D Progress Map Reporting Notes To Parents K- Yr2
©Department of Education WA 2015



39) 서호주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의 부모들에게 다국어로 자녀의 호주 표준영어 성취도에 대한 언어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http://det.wa.edu.au/detcms/cms-service/download/asset/?asset_id=16178795(2018. 7. 31 인출)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589
ISBN 979-11-87952-58-9